금주의 법구–〈별역잡아함경〉
애욕보다 큰 것이 없고,
분노보다 깊은 것이 없고,
교만보다 높은 것이 없다.

현대불교

행복 더하는
현대불교 ARS 후원
060-700-1080

1994년 10월 15일 창간 주1회 발행 제1307호 구독신청 (02)2004-8212 hyunbulnews.com (불기 2564년 음력 7월 15일) 2020년 9월 2일 수요일

한국 밀교문화 집대성 국내 첫 밀교총람 발간

진각종, '한국밀교문화총람' 29종 34권 완성

송지희 기자 jh35@hyunbul.com

한국 밀교문화의 모든 것을 담아낸 밀교총람이 발간됐다. 〈한국밀교문화총람〉은 밀교의 이론적 · 문화적 · 교리적 자료를 집대성한 결과물로, 진언과 만다라, 경전 문헌과 의식 등을 총망라해 향후 밀교 연구 발전을 견인하는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진각종(통리원장 회성)은 8월 25일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밀교문화총람 조성 사업'의 결실을 공개했다. 〈한국밀교문화총람〉은 한국 밀교의 문화와 역사, 이론 등 관련 자료의 수집과 정리를 목적으로, 지난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총 3년에 걸쳐 조성됐다. 문화관광체육부와 진각종이 각 15억원씩 총예산 30억원이 투입됐으며 집필진만 100여명이 참여한 대규모 불사다. 무엇보다 국내외에 분산된 밀교 관련 일체의 자료들을 집대성하고 일목요연하게 정리했다는 점에서, 향후 밀교연구의 기초자료로도 폭넓게 활용될 전망이다.

총람 발간을 위해 진각종은 국내 뿐 아니라 인도와 동남아시아, 중국, 일본 등지에 분포된 밀교 유적들을 답사하고 관련 자료를 총체적으로 수집했다. 수집한 자료 가운데 한국 밀교문화에 관련된 성과는 단행본과 도록 · 화보집 형태로 총람에 담겼으며, 모두 29종 34권의 방대한 분량이다.

〈한국밀교문화총람〉은 국내 현존하는 모든 육자진언 관련 유물자료를 수록한 제1권 〈한국의 육자진언〉을 시작으로 △한국의 입체 만다라 △한국의 전승진언 △한역대장경 밀교부 경전 해제(고려대장경) △한역대장경 밀교부 경전 해제(신수대장경) △한국의 밀교 관련 경전 문헌 총목록(고려대장경 미수록 경전 및 논문 목록) △일본 밀교관련 논문 저서 총목록 △밀교학 연구(밀교 및 육자진언 관련 논문 발표집) △진언집성사전(5권) 등 경전의 밀교교리와 연구 및 진언 일체를 다뤘다. 이 가운데 특히 〈한국의 전승진언〉은 우리나라에 다양한 형태로 전해진 방대한 육자진언을 수집 · 정리해 도록으로 편찬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며, 〈진언집성사전〉은 한역대장경의 진언을 총망라한 결과물로 주목된다.

삼국시대부터 현대까지 시기별 밀교역사를 정리한 것도 성과다. 제12권 〈한국 고대밀교사〉는 삼국시대 밀교 역사를, 제13권 〈한국중세밀교사〉는 고려시대 밀교역사를 정리해 수록했으며 조선시대 밀교사를 정리한 제18권 〈한국근세밀교사〉와 제19권 〈한국현대밀교사〉 등 역사를 통해 밀교가 한국 불교문화 및 의식 전반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쳐왔는지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관련 연구가 부족한 까닭에 한데 접하기 힘들었던 밀교 관련 도상도 분야별로 정리됐다. 제16권 〈금강계 만다라 도전〉과 제17권 밀교예술과 도상(티베트편), 제26 · 27권 〈밀교도상 연구 1, 2권〉, 제28권 〈금강계 37존 존상 양식 화보〉가 대표적이다.

한국밀교 대표 종단인 진각종에 대한 이해를 더해 줄 △진각종의 역사 △회당평전 △진각밀교의 교리와 신행 상 · 하권도 포함됐으며, 한국밀교문헌자료총록 상 · 하권도 의미 있는 성과로 꼽힌다.

마지막권인 제29권 〈밀교의 진호국가와 문두루법〉은 밀교의 진호국가 사상 논문집과 문두루법 의식 화보집이다. 진각종이 2018년 복원해 재현했던 '문두루법' 관련 자료가 총체적으로 수록됐다. 특히 신라시대 문두루법은 고려시대 호마법과 함께 대표적인 밀교문화로, 무형문화재로서의 잠재적 가치가 높다는 평가가 적지 않다. 이에 진각종은 총람 발간을 계기로 이를 복원 · 계승하기 위한 방안도 함께 모색할 전망이다.


진각종이 발간한 〈한국밀교문화총람〉.

2016년부터 3년 연구 결실로
문체부 · 종단 총예산 30억원
집필 학자만 100여명 참여해
"문화 · 교리 · 역사 연구 토대"

진각종 교무부장 법경 정사는 "지난 3년간 진행된 총람사업은 한국밀교의 전반적인 자료를 수집해 일목요연하게 정리했다는 점에서 성과가 크다"며 "특히 한국불교학계에서 밀교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고취하고 보다 심도깊은 연구가 진행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고무적"이라고 평가했다. 또 "많은 학자와 실무진의 노력 덕분에 총람이 발간됐지만 아직 남아있는 후속 연구과제가 적지 않다"며 "다수의 미공표 도상 및 사진자료 정리, 국외 답사를 통해 확인한 밀교문화의 전개와 전파에 관한 중요 사진자료의 도록화 등이 지속적으로 이어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국밀교문화총람〉은 한국불교종단협의회 소속 종단과 불교 관련 대학 등에 배포될 예정이며 도록이나 화보집 외 단행본 형태의 일부 서적들은 시중에도 유통될 예정이다. 특히 진각종은 밀교에 대한 이해와 관심 확산을 위해 이번 총람 발간의 후속작업으로 온라인 버전 제공도 고려하고 있으며, 총람 발간 회향을 기념하는 학술대회 및 세미나 개최 등을 통한 밀교연구 활성화 방안도 모색할 방침이다.



우린 '방역 스님 어벤져스' 코로나19 재확산이 이뤄짐에 따라 불교계는 현재 방역 조치로 분주하다. 포항불교사암연합회(회장 철산)는 8월 25~26일 포항지역 25개 사찰을 대상으로 방역 봉사에 나섰다. 방역에는 포항불교사암연합회 회장 철산 스님을 비롯해 임원 스님 20여명이 직접 방역복을 입고 방역에 나섰다. 사진은 문수사 대웅전과 계단을 방역을 하는 스님들의 모습. 〈불교계 코로나 대응 3면〉 사진제공=포항불교사암연합회

태고종 前 종정 혜초 스님 원적

열반송 "오고가고 본래 자연이더라"
17~19대 역임… 8월 30일 영결식



태고종 前 종정 혜초당 덕영 대종사〈사진〉가 원적에 들었다.

태고종은 "혜초당 덕영 대종사께서 8월 26일 오전 0시 태고총림 선암사 무우전에서 원적에 들었다"고 밝혔다. 세납 89세, 법납 75세.

혜초 스님은 2004년 종정으로 처음 추대된 이후 2009년, 2014년 재추대되며 2019년까지 종정 소임을 맡는 등 15년간 태고종단 법의 상징으로 종도들의 존경을 받아왔다. 철저한 계행으로 수행자들의 사표가 돼왔으며, 태고종 법맥의 큰 줄기를 형성해 온 前 종정 대륜 스님과 덕암 스님의 수행가풍을 이은 스승이었다.

2004년 17세 종정에 추대된 스님은 당시 현대불교신문을 통해 특별법문을 발표하고 수행자에게는 부단한 정진을, 재가불자들에게는 청정하고 조화로운 삶을 당부하기도 했다. 스님은 "요즘 젊은 스님들은 힘들게 수행하려 하지 않는다"며 "깊은 신심에서 치열한 정진이 나올 수 있기에 수행자라면 누구나 신해행증(信解行證)을 가슴에 새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스님은 "오고 가고 본래 그 자연이고 진실이 자연의 뜻과 같다"는 열반송을 남겼다. 영결식은 8월 30일 오전 10시 선암사 무우전에서 종단장으로 봉행될 예정이다.

혜초 스님은 1945년 청곡사에서 반웅 청봉 스님을 은사로 득도, 1946년부터 1949년까지 해인사 불교전문강원에서 중등과와 사집과, 고등과, 대교과를 수료한 뒤 1953년 해인사에서 인곡 화상을 계사로 구족계를 받았다. 이어 1961년 불이성 법륜사에서 전득 덕암 스님을 법사로 건당했다. 1970년 태고종 중앙종회의원에 당선된 뒤 총무원 사회부장과 포교원장, 연수원장, 부원장 등 요직을 거쳐 1996년 제17대 총무원장에 당선돼 종단의 기틀을 다지는 데 큰 역할을 했다.

불교 포교에도 남다른 업적을 남겼다. 1988년 한국불교포교사 협회장으로 취임해 포교활동에 진력한 데 이어 1993년 미국 전역에서 순회포교 활동을 펼쳤다. 후학 양성 및 태고종의 기틀을 마련한 공로를 인정받아 2002년에 대통령 동백상 훈장을 수여받기도 했다. 〈영결식 차주 상보〉

송지희 기자 jh35@hyunbul.com

전국 선원 불기 2564년 하안거 해제

진제 스님 해제 법어… "간절한 발원으로 정진"

불기 2564년 경자년 하안거가 9월 2일 해제됐다. 전국 선원들은 해제법회를 열고 100일간의 수행을 마무리했다.

조계종 전국선원수좌회에서 전국 선원의 정진대중 현황을 정리한 〈경자년 하안거 선사방함록〉에 의하면 전국 94개 선원(총림 7곳, 비구선원 57곳, 비구니선원 30곳)에서 총1894명(총림 299명, 비구 1020명, 비구니 575명)의 대중이 용맹 정진한 것으로 집계됐다.

조계종 종정 진제 스님은 하안거 해제를 맞아 법어를 내리고 대중들의 부단한 정진을 당부했다.

진제 스님은 법어를 통해 "조석(朝夕)으로 예불할 때마다 큰 발원(發願)을 세워야 한다"며 "역대 제불조사 중 발원 없이 깨친 이는 아무도 없다. 이렇게 간절한 발원을 세워가며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신심으로 정진해 나간다면 하루하루가 새로워지리라"고 강조했다. 〈종정 및 총림 방장 법어 5면〉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성운대사가 들려주는
불법의 참된 의미


무엇이 부처님의 진실된 가르침인가?
불교의 핵심 개념과 교리에 담긴 참뜻, 즉 부처님이 본래 가르치고자 했던 진실된 의미를 일상적인 예화와 알기 쉬운 언어로 설명하고 있는 불교 입문서!
성운대사 지음/조은자 옮김/384쪽/값 16,000원

방거사의 어록과 시 전편 한국 최초로 완역!
방거사 어록 · 시역주


선의 진미를 맛보다!
이제껏 『속장경』의 방거사어록 3권 중 상권의 어록만 소개되었는데, 중·하 권의 시게詩偈와 찬문의 완역으로 드디어 방거사의 진면목을 만나다!
강승욱 역주/양장/528쪽/값 27,000원

한 권으로 일목요연하게 보는
불교의 이해


불교 신행의 입문서이자 불교 이해의 길라잡이!
절집에서 늘 대하고 보지만 그 의미를 잘 모르는 각종 건축물, 그림, 의례, 불보살, 교리, 경전, 문화, 수행 등, 불교의 핵심 코드들을 알기 쉽게 설명!
도후 지음/296쪽/값 15,000원

도서출판 운주사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로 67-1 성심빌딩 3층 ● 전화 (02) 926-8361 ● 팩스 0505-115-8361 ● 주문 (02) 3672-7181 ● 다음카페: 도서출판 운주사 www.cafe.daum.net/unjubooks

승려복지 기본부담금 성공적 '첫발'

조계종 "제도 시행 첫 달 참여율 83%… 안정적 정착"

부담금 납부 완료율 80% 상회
본사 중 신흥사가 신청률 最高
추가 후원 · 20년납 사례도 눈길
"조계종 복지제도 안착에 도움"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올해 7월부터 본격 시행된 '승려복지 본인기본부담금(이하 기본부담금)' 이 성공적으로 정착되고 있다.

조계종 승려복지회(회장 금곡 · 총무원 총무부장)는 8월 25일 기자회견을 열고 "승려복지제도에 대한 참여의식 증대를 위해 시행한 '기본부담금' 제도가 시행 첫 달(7월) 83%라는 높은 참여율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기본부담금' 제도는 종단 승려복지의 수혜대상이 되는 모든 스님들이 기본적인 부담금을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것으로, 지난해 2월 종단 지도자 포럼서 기본부담금 도입이 가장 먼저 언급됐다. 당시 포럼에서 해당 주제의 발제를 진행한 덕문 스님(화엄사 주지)은 "국가복지제도를 비롯해 이웃종교 등 대부분의 복지제도가 기본부담금을 기반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제도 운영을 위해서는 기본부담금 도입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이후 교구본사주지협의회 회의서도 기본부담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으며, 지난해 11월 조계종 중앙종회 제217회 정기회에서 '승려복지법'을 개정하며 시행의 토대를 만들었다. 이에 따라 내년 7월부터 구족계 수계 5년 이하인 스님에게는 월 5천 원, 수계 6년 이상인 스님에게는 월 1만 원의 본인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됐다.

올해 1월 조계종은 승려분한신고와 승려복지 본인기본부담금제도 시행 공고를 공시하고, 2월 1일부터 6월 20일까지 승려분한신고와 기본부담금 신청서를 함께 접수받았다.

이번 기본부담금 참여 결과는 분한신고와 함께 접수된 신청서 1차분을 정리한 것으로, 연장 접수 받은 2차분 집계가 이뤄지면 신청 인원이 추가될 것이라는 게 승려복지회의 설명이다.

승려복지회에 따르면 분한신고서를 제출한 스님 중 83%인 8225명이 신청을 완료했으며, 이 중 기본부담금 납부까지 완료한 스님은 총 8006명(80.68%)에 이른다. CMS 자동이체를 신청한 스님은 6700명이며, 직접 계좌이체를 신청한 스님은 2000여 명으로 총 8700명이 신청서를 접수한 것으로 집계됐다.

교구별로는 제3교구본사 신흥사가 신청률 95% · 7월 납부율 92%으로 가장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제4교구본사 월정사는 신청률 94% · 7월납부율 90%, 제13교구본사 쌍계사는 신청률 92% · 납부율 91%에 이르며, 재적 대중이 가장 많은 제12교구본사 해인사는 신청률 87% · 7월 납부율 85%, 제15교구본사 통도사는 신청률 82% · 7월 납부율 80%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승려복지회장 금곡 스님은 "이번 결과는 2차 분한신고와 기본부담금 신청서를 제외한 것으로, 해외 교구 스님들의 신청서가 도착하고 집계하려면 시간이 걸린다. 9월 중 신청서 집계를 완료할 것"이라며 "올해 연말까지 승려복지 수혜 대상 중 90%에 가까운 스님들이 기본부담금 제도에 동참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승려복지회는 7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 기본부담금 제도가 시행 첫 달만에 제도 참여율이 80%를 상회하는 것은 고무적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금곡 스님은 "제도의 성패는 참여와 동참에 있다. 시행 첫 달에 90% 가까운 참여율은 스님들이 종도로서 함께 책임지고 실천하는 승가공동체 정신을 보여준 것"이라고 평가하며 "기본부담금 제도의 빠른 정착은 종도들이 평생 마음 놓고 수행과 포교, 봉사할 수 있는 토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 기본부담금 제도의 시행으로 나타난 고무적 현상은 일선 스님들의 종단 승려복지제도에 대한 관심 증가다. 이미 제도 시행 전인 1월부터 기본부담금 입금자가 434명에 달한다. 기본부담금 이외에도 월 1~10만원을 추가로 후원하는 스님들도 있으며, 20년납(納) 분인 500만 원을 일시에 입금하고 추가로 260만원을 별도로 기탁한 사례도 나왔다.

향후, 기본부담금을 통해 확보된 기금으로 양질의 승려복지가 종도들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게 승려복지회의 계획이다.

금곡 스님은 "일시적인 혜택보다는 장기적으로 기금을 조성해 후배 스님들에게도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우선 1인당 2000만 원의 의료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기금을 조성 · 활용할 계획이며, 열반 의례 지원도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

법화종 종정, 일신상 이유로 사임

차기 서리 임명시 의사 밝혀
차기 총무원장 선거 기간 중
종정 추대절차 진행 가능성도

법화종 종정 도정 스님이 건강 악화 등 일신상 문제로 사임했다. 이에 따라 법화종은 올 초 前 총무원장 구속 이후 혼란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10월경 차기 총무원장 선출과 함께 종정 추대절차까지 진행해야 하는 중대한 과제를 안게 됐다.

복수의 종단 관계자에 따르면 종정 도정 스님은 최근 차기 서리에 지관 스님을 임명한 후 사임의사를 밝혔다. 한 종단 관계자는 "종정예하께서 8월 18일 지관 스님에게 차기 총무원장 서리 임명의사를 전하면서 종정 사임의사를 밝혔다"며 "공문 형태로 종도들에게 공표되진 않았지만 이후 원로의장 진파 스님에게도 종정 사임 의사를 전달하신 것으로 알고 있다. 사임 의사가 확고하신 만큼 변동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종정 스님의 사임 이유는 건강 악화 등 일신상의 문제로 알려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전 총무원장 서리 진우 스님이 법원 결정에 의해 '자격없음'으로 직무정지된 후 종단 일각에서 종정 스님 책임론이 거론된 데다, 차기 서리 임명을 비롯한 종단 상황에 대한 복잡한 심경이 겹치면서 사임을 결정했다는 시각도 나온다.

종단 내부에서 종정 스님의 사임은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지만, 이에 대한 후속조치는 아직 공식적으로 논의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종정 스님이 사임에 앞서 총무원장 서리에 임명한 지관 스님에 대한 자격논란이 불거지면서 아직 종도들에게 정식으로 공표되지는 못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다만 중앙종회 의장 성운 스님은 "개인적으로 아직 공문을 확인하지는 못했지만 종단 내부적으로 사임 의사를 표하신 것은 기정사실화 된 만큼, 조만간 원로의회와 중앙종회 등 종단 주요관계자들이 모여 종정 예하 사임에 따른 후속절차를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며 "현 상황으로는 총무원장 선출절차와 동시에 차기 종정 추대절차가 진행될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법화종 종법상 '종정추대법'에 따르면 추대된 종정이 사퇴할 경우 다시 추대 절차를 밟아야 하며, 종정이 임기 중 사임하거나 기타 사유로 궐임(闕任)된 경우 2개월 이내에 후임을 추대해야 한다. 종정 추대위원회는 원로의원과 중앙종회의원, 총무원장, 포교원장 등 11인으로 구성되며, 현재 포교원장은 공석, 총무원장 서리는 자격논란이 제기되고 있어 대안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무엇보다 법화종이 올 10월 예정된 총무원장 선거절차를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지 여부조차 불투명한 상황에서, 종정 추대라는 중대한 과제를 동시에 떠안게 됐다는 점에서 우려도 적지 않다. 올초 전총무원장 도성 스님이 배임수재로 구속된 후 전 총무원장 서리 진우 스님의 직무정지 사태 등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법화종은 여전히 종단 정상화에 난항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종정 스님의 갑작스런 사임 사실까지 알려지면서 혼란은 더욱 가중되는 모양새다.

이런 가운데 중앙종회는 애초 8월 26일부터 차기 총무원장 선거절차 등을 안건으로 임시회를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이 같은 종단 상황을 고려해 8월 28일부터 10일간으로 일정을 변경했다.

차기 총무원장 선출과 관련, 늦어도 9월 초순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명단을 확정하고 총무원장 선거 절차를 공고한다는 방침이다.

송지희 기자 jh35@hyunbul.com

조계종 총무원 부장 · 국장 소폭 인사



성공 스님 덕조 스님 범종 스님 성주 스님 석명 스님

사회부장 성공 스님 임명
총무 · 감사국장 등 인사도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8월 26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신임 부 · 국장과 특별보좌관에게 임명장을 전달했다.

신임 사회부장에는 성공 스님이 임명됐으며, 복지분야 특별보좌관에는 前 사회부장 덕조 스님이 이름을 올렸다. 총무국장에는 범종 스님이, 감사국장에는 성주 스님이, 호법부 상임감찰에는 석명 스님이 각각 임명됐다.

임명장 전달 직후 원행 스님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시국이 어려운 만큼 새로 소임을 맡게 된 스님들의 책무가 크다"면서 "교역직 선 · 후배 스님들과 화합해 종단 발전에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신임 사회부장 성공 스님은 "원장 스님을 잘 모시고, 선배 스님들과 화합해 종단 발전에 도움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신임 사회부장 성공 스님은 혜인 스님을 은사로 1990년 사미계를 수계했으며, 총무원 호법부 상임감찰, 약천사, 운지사, 성전사 주지를 역임했다. 현재 진주 무애사 주지를 맡고 있다.

복지특보 덕조 스님은 혜인 스님을 은사로 1984년에 사미계를 수계했다. 제15 · 16대 중앙종회의원과 총무원 사회부장 등을 역임했으며, 제주 약천사 주지 소임을 맡고 있다.

총무국장 범종 스님은 근일 스님을 은사로 1997년 사미계를 수계했으며, 다수의 총무원 교역직을 역임하고 현재 철원 안양사 주지를 맡고 있다.

감사국장 성주 스님은 종상 스님을 은사로 2001년 사미계를 수계했으며, 호법부 상임감찰을 역임했다.

상임감찰 석명 스님은 덕운 스님을 은사로 2000년에 사미계를 수계했으며, 현재 여주 반야사 주지를 맡고 있다.

신성민 기자

"묘적사 환경 피해 심각 종단·본사적 대응 필요"

묘적사 조사위 현장조사
조계종 환경위 대응 주문

남양주 묘적사 인근에 진행중인 '월문문화예술(융복합)단지 개발사업'으로 사찰 수행환경과 자연환경이 훼손될 수 있다는 현장 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조계종 중앙종회 묘적사수행환경진상조사위원회(위원장 보인, 이하 진상조사위)는 8월 24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분과회의실에서 제2차 회의를 열고 지난 8월 6일 회의 직후 이뤄진 현장 조사 결과를 공유했다.

이날 회의서 진상조사위는 "월문문화예술단지 조성사업이 진행될 경우 사찰 수행환경과 자연환경의 대규모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면서 "대규모 위락시설이 들어서면 묘적천과 월문천 등 인근 하천 피해도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진상조사위는 조계종 종단 환경 기구인 환경위원회를 소집해 적절한 대책을 수립할 것을 주문했다.

진상조사위는 "조계종 환경위원회에서 전문가 현장 실사를 진행해 사업이 진행됐을 경우 우려되는 환경 침해문제를 점검하고 교구본사, 묘적사와 함께 대응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면서 "인근 주민, 지역환경단체들과 연대해 지역주민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해당 사업으로 인한 지역 생활환경 피해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회의에 참석한 묘적사 주지 환풍 스님은 "일부 언론의 왜곡보도에 대해 엄정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환풍 스님은 7월 20일 괴한 2명에게 폭행을 당해 얼굴과 허리 등을 다쳤다. 당시 사찰에서는 주차장 사용문제로 갈등을 빚던 인근 업체와 갈등으로 벌어진 일이라고 추정했다. 이에 중앙종회는 218차 임시회에서 묘적사 수행환경 침해를 진상조사하기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도 했다.

환풍 스님은 "일부 언론의 보도는 사실을 심각히 왜곡했다"면서 "선임된 변호사와 함께 정정보도 요구 및 법적 대응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신성민 기자



코로나 2차 대유행… 불교계 '거리두기' 박차

조계종 종무기관 순차적 출근 · 식사제 도입해

김주일 · 신성민 · 노덕현 · 하성미 기자

코로나19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8월 27일 현재 하루 확진자 수는 441명으로, 대구 · 경북 발 1차 확산 이후 처음으로 400명대 진입이 이뤄졌다. 이 같은 상황에서 불교계는 '강력한 거리두기' 등을 통한 방역 강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거리두기 통한 방역 강화 시행

조계종 총무원(원장 원행)은 중앙종무기관 출근 시간대를 2개조로 나눴다. 종무원들은 8월 24일부터 A, B팀으로 나눠 오전 9시와 10시에 교대로 출근하고, 퇴근은 사람들이 몰리지 않는 시간대인 5시 30분으로 통일해서 퇴근한다. 점심시간도 11시 30분과 12시 30분으로 나눴고, 청사 공양간은 마주보고 식사할 수 없도록 배치를 조정했다.

천태종 총무원(원장 문덕)은 8월 27일 총본산 단양 구인사에 관광객 출입 제한 조치를 단행했다. 지난 2월에 이은 두 번째 출입 제한이다. 이와 함께 천태종 총무원은 전국 지역 말사에도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감염병 예방 수칙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당부하는 지침을 하달했다.

일선 사찰들도 방역조치로 분주하다. 서울 조계사(주지 지현)는 8월 26일 수능 100일기도와 칠석기도 등을 앞두고 확산 방지를 위해 대웅전 내에 3m거리를 둔 50인 좌복을 설치하고 '3배만 진행해달라' 는 안내문도 부착했다.

양산 통도사(주지 현문)는 8월 26일 백중법회 등 주요법회서 신도참여를 긴급 제한했다. 통도사는 사찰을 찾는 신도를 위해서는 마스크 착용 하에 거리를 띄워 앉게 했으며, 법회 시에는 집전 스님만 염불을 하고 참석 대중은 묵언을 지키도록 했다.

부산 범어사(주지 경선)도 같은날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광화문 집회 참석자는 출입을 자제해 달라"는 현수막을 설치했다.

김제 금산사(주지 일원)도 비교적 코로나 청정지역이었던 전주와 군산, 익산 등에서 수도권 발 코로나 확진이 전파됨에 따라 지역불교계 협의 하에 법회와 기도를 모두 취소했다. 금산사 불교회관 및 수현사는 법회 취소와 함께 사찰에 개별적으로 참여하는 신도들에게 대중 운집 방지를 위해 점심공양도 제공치 않기로 결정했다.

천태종 본산 구인사 입장 제한
전국 사찰들 법회 방역 강화해
전국 템플스테이 중단 '셧다운'
진관사 수륙재 등 온라인 중계
곳곳서 코로나 극복위한 기부도



8월 22일 입재한 중요무형문화재 제126호 진관사 국행수륙재의 모습. 최소한의 인원만 법회에 동참했으며, 동참하지 못한 불자들을 위해 유튜브로 중계했다. 사진제공=진관사

2차 확산 초기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중단됐던 템플스테이는 전국적으로 운영이 중단됐다. 사실상 '셧다운' 된 것이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단장 원경)은 8월 26일 이 같은 공지를 전국 템플스테이 사찰에 전달했다. 템플스테이 운영 중단은 9월 6일까지며, 이 기간에는 특별 방역 등이 함께 진행된다.

온라인 활용, 방역 참여도

사찰과 단체들은 법회와 행사의 참여를 제한하는 대신, 온라인 중계를 강화하는 등 대응에 나섰다. 중요무형문화재 제126호인 국행수륙대재 설행사찰인 서울 진관사(주지 계호)는 8월 22일 코로나 극복을 위한 수륙재를 입재했다. 수륙재는 최소한 인원만 동참하도록 했고, 동참을 바라는 불자들을 위해서는 유튜브에서 설행 장면을 중계했다. 수륙재는 10월 10일까지 이어진다.

광주 증심사(주지 중현)는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증심사 라이브 법회' 를 SNS로 재배포하기 시작했다. 증심사는 매월 정기법회와 온라인 일요강좌, 사찰 계절 풍경 등을 사진과 영상으로 전하고 있다.

좋은벗풍경소리(대표 이종만)는 9월 25일 개최예정인 2020찬불가 경연대회를 10월 23일 오후 5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통공연장서 연기해 개최하고, 예선 또한 현장심사가 아닌 동영상 심사로 대체키로 했다.

지역 사찰 방역에 나선 곳도 있다. 포항불교사암연합회(회장 철산)는 포항지역 사찰 스님 20여 명이 방역복을 입고 전문기기를 운영해 직접 방역에 나섰다. 스님 방역단은 포항지역 26개 사찰에서 집중방역을 실시해 눈길을 끌었다.

코로나 극복위한 자비의 손길

방역기관 종사자 및 자원봉사자를 위한 불자들의 후원도 이어지고 있다.

템플스테이와 함께 조계종 사찰음식 문화 보급을 맡고 있는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은 8월 25일 코로나 극복을 위한 응원수기 접수를 시작했다. 10월 31일까지 접수받는 이번 수기공모는 코로나 극복의 사연을 조명하고 현장을 응원하기 위해 진행된다.

재단법인 한마음선원(이사장 혜수)도 8월 27일 안양본원에서 코로나 피해 희생자와 극복을 위한 천도재를 봉행했으며 유튜브를 통해 온라인으로 중계했다. 한마음선원은 최근 코로나 극복을 위해 안양시에 8000만원을 기부하기도 했다.

광주 지역에서는 3개 구청불자회가 8월 27일 연합으로 코로나 방역에 지친 방역요원들을 위한 떡을 만들어 전달해 훈훈한 감동을 선사하기도 했다.

조계종 중앙신도회도 10월 16일까지 청소년들의 코로나 극복 사례를 모으기 위한 UCC공모전도 진행한다. 선정된 콘텐츠는 SNS 등에 배포할 예정이다.

범어사 소장 '삼국유사' 국보 승격

문화재청 8월 27일 지정공고
현존 最古 간행본, 가치 높아
삼화령 애기부처 등은 보물로

불교 성보문화재들이 대거 국보와 보물로 승격 · 지정됐다.

문화재청(청장 정재숙)은 "보물 제419-3호 '삼국유사 권4~5' 를 국보 제306-4호로 승격하고, △경주 남산 장창곡 석조미륵여래삼존상 △합천 해인사 원당암 목조아미타여래삼존상 및 복장유물 △합천 해인사 원당암 목조아미타여래삼존상 복장전적 △공주 갑사 소조석가여래삼불좌상 · 사보살입상 및 복장유물 △공주 갑사 소조석가여래삼불좌상 · 사보살입상 복장전적 등 총 8건은 보물로 신규 지정했다"고 8월 27일 밝혔다.

국보로 승격된 국보 제306-4호 '삼국유사 권4~5' 는 부산 범어사 소장본으로, 총 1책이며 전체 5권 중 권4~5만 남아있다. 범어사 초대 주지를 역임한 오성월(吳惺月, 1865~1943)의 옛 소장본으로 1907년경 범어사에 기증된 것으로 전해진다.



국보로 승격된 범어사 소장본 '삼국유사' .

현재 같은 계열의 판본으로 알려진 국보 제306호(송은본), 국보 제306-3호(파른본)으로 범어사 소장본은 완질(完帙)은 아니지만 1394년 처음 판각된 후 인출(印出) 시기가 가장 빠른 자료로서 서지학적 의미가 매우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기존 지정본에서 누락된 제28~30장을 보완할 수 있는 유일한 자료이자, 1512년(중종 7년) 간행본의 오탈자를 확인할 수 있어 현재까지 알려진 삼국유사 판본에 대한 교감(校勘)과 원판(原板) 복원을 위한 자료로서 역사 · 학술적인 중요성이 크다.

문화재청은 "범어사 소장본 '삼국유사 권4~5' 는 현존하는 동종 문화재 가운데 가장 빠른 인출본이자 기타 지정본의 훼손 · 결락된 내용을 보완할 수 있는 중요한 사료"라며 "다양한 분야에서 우리 민족의 생활상을 복원할 수 있는 사료의 집합체라는 점을 고려하며 국보로 지정해 그 가치를 널리 알리고 보존 · 관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보물 제2071호로 지정된 '경주 남산 장창곡 석조미륵여래삼존상' 은 삼국 시대 미륵신앙과 신앙행위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작품으로 7세기 신라 시대 작품으로 추정된다. 어린아이처럼 귀엽고 천진난만한 용모가 가장 특징적인 인상으로 꼽혀 '삼화령 애기부처' 로도 잘 알려져 있다.

이와 함께 이번 보물지정에는 법보종찰 해인사와 공주 갑사의 불상과 복장유물, 복장전적 6건이 포함돼 눈길을 끌었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국난 극복 위한 500km '자비순례' 열린다

상월선원 만행결사 2차 순례 계획 공개

상월선원 만행결사 대중이 10월 7일부터 21일까지 불교 중흥과 더불어 국난 극복을 위한 500km의 대장정에 오른다.

상월선원 만행결사 결사대중은 8월 27일 서울 한정식집 지리산에서 간담회를 열고 인도 만행결사 2차 예비순례 계획을 공개했다. 이날 공개된 계획에 따르면 2차 예비순례 이름은 '불교중흥 · 국난극복 자비순례' (이하 자비순례)로 붙여졌다.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코로나 사태의 아픔이 있는 대구에서 서울까지 국난 극복을 기원하는 의미다.

자비순례는 10월 7일 조계종 종정 진제 스님의 증명 하에 입재식으로 시작한다. 동화사 약사여래불 아래서 코로나 극복과 수해 피해 회복, 사회갈등 해소 등을 발원한다. 이후 하루 25km씩 행선하며 서울 봉은사까지 전체 순례거리는 500여 km다.

총도감 호산 스님은 "어디를 순례하던 만행결사지만 21일간의 순례가 예비순례는 아니라는 취지에서 불교중흥과 국난극복을 위한 자비순례로 이름하게 됐다. 10월에는 코로나가 사라지고 사회 갈등도 사라지길 바라는 마음"이라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동국대 신임 이사에 경우 스님 선임

학교법인 동국대 이사회서



동국대 신임이사로 경우 스님(고창 선운사 주지, 사진)이 선임됐다.

학교법인 동국대(이사장 성우)는 8월 27일 서울캠퍼스 본관 로터스홀에서 331회 이사회를 열고 임원선임의 건과 교원인사의 건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경우 스님의 선임은 2월 18일 사임한 현문 스님 후임으로 임기는 현문 스님 잔여임기인 2024년 2월 17일까지다.

이와 함께 동대 이사회는 동대 서울캠퍼스의 교원 신규임용 취소와 산하 학교 교감 인사 등의 안건을 통과시켰다. 기타 안건으로는 330회 이사회에서 중점적으로 다뤄진 야간로스쿨에 대한 대책위원회 명칭 변경과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동국대 등록금 감면 등이 논의됐다.

한편, 이날 이사회에서는 이사 호산 스님이 법인 발전기금 3000만원을 쾌척했다. 호산 스님은 "코로나19로 인한 학교 운영의 어려움 극복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기금 전달 의미를 밝혔다.

노덕현 기자

템플스테이

2021년 템플스테이 예비운영사찰 선정 공고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은 한국불교문화자원을 활용한 불교문화 대중화와 문화관광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템플스테이'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한국불교의 사찰문화체험을 제공할 수 있는 역량을 보유한 템플스테이 운영사찰을 선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 다 음 –

● 템플스테이 운영사찰의 기본 요건
「템플스테이 사찰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 (지정요건)

① 운영사찰로 지정받고자 하는 사찰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구비하여야 한다.
1.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전통사찰로 지정된 사찰 또는 1개동 이상의 전통가람 구성의 기본적 당우를 갖춘 사격의 사찰
2. 템플스테이 참가자 20인 이상을 동시 수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 운영실, 숙박시설 및 편의시설을 갖춘 사찰
3. 템플스테이 운영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지도법사 및 실무자가 배치된 사찰
4. 템플스테이 및 이와 유사한 프로그램을 운영한 경험이 있는 사찰
5. 템플스테이 운영에 필요한 제반 자원을 구비하고, 유지 및 관리할 수 있는 예산 규모를 갖춘 사찰

●선정절차 안내

1차 서류심사	2차 면접심사	3차 현장실사	최종선정	예비운영기간
2020년 9~10월	2020년 10월	2020년 10~11월	2020년 11월	2021년 1~12월
예비운영사찰 지정신청서 심사 →	서류심사 합격 사찰의 주지스님을 대상으로 면접심사 →	면접심사 합격 사찰을 대상으로 현장실사 및 평가 →	운영위원회에서 최종선정 →	예비운영기간 (경상보조금 미지원)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심사 단계별 평가기준

구분	평가항목	평가근거
1차 서류심사	운영사찰 지정 관련 기본요건 충족 확인	제출서류
2차 면접심사	대표자(주지스님)의 템플스테이 운영계획 청취	면접심사 평가표
3차 현장실사	사찰의 참가자 수용태세 확인	현장실사 평가표

●서류제출 안내
···**제출기간 : 2020년 9월 7일(월) ~ 9월 18일(금)**
···제출서류 : ① 2020년 템플스테이 예비운영사찰 지정신청서('붙임'자료 포함)
② 서류양식 다운로드
• 템플스테이 홈페이지 : www.templestay.com
• 한국불교문화사업단 홈페이지 : www.kbuddhism.com
···제출방법 : 원본 및 파일 제출
① 원본제출 : 방문 또는 우편접수(마감일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
② 파일제출 : indrajs@templestay.com으로 제출
···제 출 처 : 03145 서울시 종로구 우정국로 56 템플스테이 통합정보센터 4층
한국불교문화사업단 템플스테이팀 양진수
···서류심사 결과발표 : 공문을 통해 개별 안내
※사단법인 한국불교종단협의회 소속 종단의 사찰에 한하여 지원 가능합니다.
※신청서 내 첨부 자료가 누락되거나 불충분한 경우 탈락 처리됩니다.

●문 의 한국불교문화사업단 템플스테이팀 양진수, 02) 2031-2031

한국불교문화사업단 Cultural Corps of Korean Buddhism 단장 원경

모든 길은 왕궁으로… 황룡사 창건 '핵심'

윤선태 교수, 경주문화재硏 창립 30주년 세미나서

궁궐로 짓다가 사찰된 황룡사
철저한 도시계획 통해 창건돼
황룡사 등 前大路 왕궁 향해
'중국 리방제 모방' 학설 반박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신라를 대표하는 사찰인 황룡사의 부지는 본래 궁궐로 지으려고 했던 곳이다. 일연 스님의 〈삼국유사〉에 따르면 새 왕궁을 지으려고 했으나 황룡이 나타나는 이적을 보고 그곳에 '황룡사'를 세웠다고 한다. 사찰연기설화로만 전해지는 황룡사의 창건이 신라 특유의 철저한 도시계획 속에서 이뤄졌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신라사 전문가인 윤선태 동국대 역사교육학과 교수는 8월 21일 열린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창립 30주년 기념 학술대회에서 발표한 논문 '신라 왕도와 국가사찰'을 통해 이 같이 주장했다.

그는 최근 나타난 황룡사지 발굴 성과를 살폈는데, 특히 2016~2019년 진행된 신라문화유산연구원이 발굴한 남쪽대로 및 광장 터 발굴조사 결과에 주목했다. 조사 결과 길이 500m, 너비 50m의 대로가 황룡사 남문 남쪽 광장부터 서쪽의 안압지 인근 신라 궁궐의 동문까지 이어진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이는 황룡사와 남쪽 동서대로가 신라 왕궁의 장엄과 밀접히 관련됐음을 보여준다는 게 윤 교수의 설명이다.

궁궐로 지을 부지에 황룡사를 세운 이유도 철저한 계획 속에 이뤄졌다. 윤 교수는 신라 왕궁인 월성과의 관계를 살폈다. 그에 따르면 황룡사가 건립되기 전 부지는 거대한 습지로 이름하여 '용궁'으로 불렸다. 하지만 신라인들은 자신들의 독창적인 토목기술로 사찰을 세웠고, 현재 안압지(월지) 주변 공간도 활용이 가능하다고 봤다.


신라 황룡사지 전경. 최근 발굴을 통해 대로들이 확인됐는데 이는 월성을 중심으로 계획된 구조물로 추정된다.

윤 교수는 "월지 주변을 월성과 연결해 궁궐 공간을 확장한다면 월성의 기존 장점을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관청 간 인적·물적 자원을 황룡사지보다 더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면서 "황룡사지보다 궁궐을 건설할 보다 적합한 땅이 생길 수 있는데, 굳이 황룡사지에 궁궐을 조성할 필요는 없었을 것이고 이는 후일 만월성 건립으로 실현된다"고 설명했다.

실제 신라 중후기로 넘어가면 월성은 동북쪽 안압지 권역 등 사방으로 증축돼 만월성으로 변모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황룡사를 비롯한 흥륜사, 영묘사, 사천왕사 등 국찰들은 왕의 권력을 더욱 돋보이게 장엄하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조성됐다는 게 윤 교수의 주장이다.

윤 교수는 주장의 근거로 황룡사와 왕성 사방에 자리한 국찰들에게서 공통적으로 '전대로(前大路)'가 확인되는 것을 들었다.

윤 교수는 "국찰의 전대로와 왕궁의 중요한 누각을 갖춘 대문들은 시각적으로 이어져 왕경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왕궁으로 집중될 수 있도록 했다"면서 "역으로 왕은 왕궁 대문의 문루에 올라 각 방면으로 열려 있는 사찰의 전대로를 통해 만민을 굽어 살피고 자신의 손짓 하나로 왕경인들의 일상이 작동하는 왕의 힘을 보여주려고 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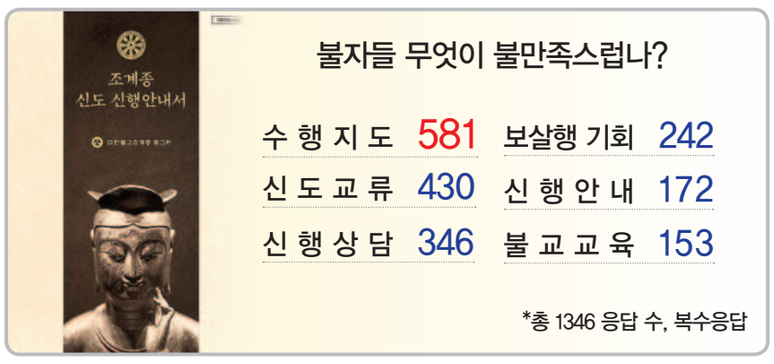
윤 교수의 이 같은 주장은 기존 신라 왕경이 중국 당나라 장안성의 리방제 도시계획을 모방했다는 기존의 학설을 반박하는 것이라서 더 눈길을 끈다.

그는 "그간 신라 왕경 연구는 중국 도성사의 발달과정을 거의 무비판적으로 가져와 신라왕경을 완벽하게 통일적으로 작도했다"고 지적하며 "신라 왕궁의 사방에 배치되어 왕궁을 장엄했던 국찰의 전대로와 그 방향성으로 볼 때, 왕경 계획의 기본적인 중축선은 월성과 그 확장된 궁궐인 만월성이 기준이었다"고 밝혔다.

조계종 신도 신행요구 "수행지도 받고 싶어요"

〈포교원 신도신행안내서〉 발간
신도 인식 분석 자료 발표

1500여명 신도 대상 조사
'수행법 지도 부족' 과제로
매주 1회 신행 불자 50.5%
법회참여 대표적 신행수단



조계종 신도들은 사찰에서 참선과 명상 등 각종 수행법에 대해 배우고 싶어 하는 반면 요구에 비해 적절한 수행지도를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계종 포교원(원장 지홍)은 최근 스님들이 사찰에서 신도들의 신행활동을 이끌 때 참고할 수 있는 〈조계종 신도 신행안내서〉를 발간했다.

사찰 신행활동 지도용 안내서인 〈조계종 신도 신행안내서〉는 포교연구실에서 제1차 서울, 제2차 부산, 제3차 광주 등 전문가 좌담회를 개최하고, 각 지역별 모범사찰을 방문하여 기초자료를 분석했다. 여기에 1500여명의 포교사와 신도들에 대한 설문조사 등을 통해 집대성한 기초자료를 종합 분석한 신행안내서다.

신행안내서에 함께 실린 신행요구 분석자료에 따르면 조계종 신도들은 수행법 지도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 가장 불만족스러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복수응답을 기반으로 총 1346명의 응답자 중 581명이 수행지도 개선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신도들과의 교류, 친목 미흡'이 430명, '개인신행상담의 부족함'이 346명 등으로 나타났다. 불교교리 교육에 대한 개선은 153명, 신행활동 전반 안내 및 교육에 대한 요구는 172명으로 상대적으로 적었다.

다양한 불교대학을 운영하여 사찰에서 불교교리에 대한 교육분야의 접근성은 크게 개선된 반면 신도들에게 맞는 신행상담과 안내, 수행법 지도 등이 추가적으로 개선되야 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조계종 신도들의 신행활동 정도에서는 조계종 신도들은 매주 1회 이상 사찰을 참배하고 가정과 직장에서 정기적으로 신행활동을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총 1468명이 응답한 가운데 매주 1회 이상이 742명으로 50.5%를 기록했으며, 매월 1회 이상 사찰을 참배하고 부정기적 신행활동이 580명으로 39.5%, 매년 2~3회 사찰 참배가 98명으로 6.7% 등으로 나타났다.

신행활동별 실천빈도를 보면 5점 만점 기준으로 대부분이 3점대의 빈도수를 기록했지만, 법회가 3.36점으로 가장 높은 신행활동으로 나타났고, 사회적 실천 일환인 자원봉사는 3.30점으로 두 번째로 높았다. 이에 반해 참선을 비롯한 명상이 2.83점으로 가장 낮았다. 절과 염불, 간경 등은 3.11~3.24로 실천 내용 중 중위권을 형성했다.

포교원은 연구분석 조사결과에 대해 "신행안내와 교육은 있지만 구체적인 지도가 부족하며, 일상적이고 지속적인 신행활동을 위해 주지 스님을 비롯한 소임자들의 관심이 가장 필요하다"며 "신행관련 종단 제도와 시스템, 다양한 신행 프로그램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포교원은 "신행 안내를 돕기 위해 이번 신행안내서 뿐만 아니라 사찰 신행프로그램 구성을 위한 단계별 신행매뉴얼을 제작할 것이다. '새신도' '신진신도' '중견신도' '원로신도' 등으로 구분해 단계별 신행안내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목표"라고 제시했다. 또 기존 승가교육기관 및 불교대학과 연계하여 신행문화 개선을 위한 신행지침 안내 등을 꾸준히 펼쳐나갈 것을 덧붙였다.

한편, 이번 〈조계종 신도신행안내서〉에는 연령별 신행, 가족의례 프로그램 등을 담은 '신행 지침 활용을 위한 신행 프로그램 안내' 등도 함께 수록됐다. 포교원은 조계종 홈페이지에 PDF 파일로 신도신행안내서를 공개했으며, 향후 전국 교구본사와 전법중심도량, 불교대학 등에 우편으로 보급할 계획이다.

포교원장 지홍 스님은 "사찰을 새로 찾은 신도들을 올바르게 이끌어주는 일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우리 스님들의 역량과 역할이 절실한 상황인 것"이라며 "포교원에서 〈조계종 신도 신행안내서〉를 펴내게 된 것도 그러한 까닭"이라고 강조했다.

노덕현 기자



포교사단 부산지역단 코로나 극복 〈법화경〉 기도 회향

포교사단 부산지역단(단장 정분남)은 8월 23일 지역단 회의실에서 '국운융창 발원 법화경 기도' 회향식을 봉행했다. 포교사단 부산지역단 627명은 6월 15일 법화경 독송기도에 입재했으며 70일간 매일 한권씩 독송했다. 회향식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정분남 단장을 비롯해 임원진 등 10여 명이 동참했다. 삼귀의 및 예불 후 법화경 28품을 마지막으로 함께 독송했으며 앞으로도 정기적인 기도를 이어갈 것을 다짐했다. 총 28품인 법화경을 릴레이 형태로 28명이 매일 독송한다.

정분남 단장은 "법화경 10품에 오종법사에 대한 내용을 읽을 때 마다 우리 포교사단의 역할을 마음에 다시 되새길 수 있었다. 인생의 길을 비추는 법화경을 독송하며 함께 성장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간송 소장 보물 불상 2점, 국립중앙박물관서 구입

재정난에 5월 경매 출품돼 유찰
국립중앙博서 자체예산으로 구입
휴관 끝나고 상설전시실서 공개

재정난으로 간송미술문화재단이 경매에 내놓았던 보물 불상 2점을 국립중앙박물관이 구입했다.

국립중앙박물관(관장 배기동)은 "올해 5월에 경매시장에 출품됐던 간송미술문화재단(이하 간송재단) 소장 불상 2점을 최근 자체 예산으로 구입했다"고 8월 24일 밝혔다.

지난 1963년 1월 21일 나란히 보물로 지정된 '금동여래입상(보물 제284호)'과 '금동보살입상(보물 제285호)'이 간송재단을 떠나게 된 것은 누적된 재정난 때문이다. 간송재단은 지난 5월 국가지정문화재 보물 불상 2점을 경매 시장에 출품하겠다고 알렸다. 경매 시작가는 각각 15억 원이었으나 결과는 유찰이었다.

당시 "故 간송 전형필 선생이 남긴 우리 문화재 수호 정신이 훼손되는 것 같아 참담하다", "국가에서 구입해야 한다" 등의 여론이 일었다.

이후 6월 중순 경 간송재단과 경매사가 국립중앙박물관에 제일 먼저 구입 의사를 타진했고, 이에 국립중앙박물관이 규정 검토 후 7월 말 자체 예산으로 구입을 결정했다.

국립중앙박물관 관계자는 "故 간송 전형필 선생의 큰 뜻을 이어 받아 국민 모두의 문화재로서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 불상을 구입하게 됐다"면서 "앞으로 두 불상의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서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과학적 조사와 학술적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코로나19로 잠정 휴관 중인 박물관이 재개관하는 시점에 맞춰 상설전시실에서 전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간송재단 소장 '금동여래입상(보물 제284호, 사진 왼쪽)'과 '금동보살입상(보물 제285호, 사진 오른쪽)'.

신성민 기자

대불련 동문 만해 선양에 한마음

대불련 · 대불련 총동문회 제1회 만해 콘텐츠 공모전 개최

대불련 총동문회(회장 홍경희)는 8월 24일 서울 홍성원에서 간담회를 열고 '제1회 만해 한용운 콘텐츠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대불련 총동문회와 대불련, 대불련 동문들이 만든 만해 한용운연구소 등 3개 단체가 함께 진행한다. 이날 간담회에는 홍경희 대불련 총동문회장, 이근창 대불 이사, 이창경 신구대 교수(만해한용운연구소 대표) 등이 참석했다.

전국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이번 공모전은 '만해, 미래를 열다'를 주제로 〈만해 한용운 고난의 칼날에 서라〉 독후감, UCC 영상(애니메이션, 웹툰, 카드뉴스, 오디오북), 창작곡(성악곡 및 기악곡)등 3개 부분에 걸쳐 진행된다. 개인 또는 3인 이내 팀으로도 응모 가능하며 출품에는 제한이 없다.

독후감은 3000자 이상 한글파일로 제출하면 되며, 창작곡은 1~3분 이내 악보 mp3 노래와 반주 포함된 AR파일 양식이어야 한다.

UCC는 이미지는 가로 세로 2000 픽셀 이상 해상도에 30MB 이내 작품이면 가능하다. 동영상은 1~3분 이내로 1280×720 해상도에 200MB 이내여야 한다.

출품 마감시간은 10월 31일 오후 6시까지로 공모전 홈페이지(www.manhaesnim.com)에서 온라인으로 접수가 가능하다.

콘텐츠 최우수상 1명(1팀)에게는 100만원의 상금을 지급하며, 우수상 70만원(4명 혹은 4팀), 장려상 10만원(20명 혹은 20팀)을 각각 수여한다.

이번 공모전에 대해 홍경희 대불련 총동문회장은 "대불련과 만해 스님을 주제로 하는 첫 공모전인 만큼 많은 대학생들의 참여를 기대하고 있다. 이번 공모전을 계기로 만해 스님의 사상이 확산되고 대학생 불자들과 대불련 동문들이 원력을 하나로 모으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동국대 불교논문 '인성교육' '식문화' 눈길

불교박사 15명에 석사 24명 논문 나와

동국대 가을학기 논문으로 최근 사회 변화와 불교와의 접점을 모색한 논문이 대거 발표됐다.

동국대에 따르면 올해 가을학기 박사학위 수여자 122명 중 불교박사는 15명으로 불교 주제의 박사학위 논문은 △강경숙 불교학과 박사의 '천태지의 감응사상의 종교성에 관한 연구' △인도철학과 세인 스님의 '한국 불교의례의 인도적 연원과 설행' △김택단 선학과 박사의 '영가 현각의 선종영가집에 나타난 천태지관 연구' △레빗프엉타오 박사의 '근세 한국과 베트남 선불교 연구' △박상준 미술사학과 박사의 '고려전기 탑비 연구' △불교학과 박사 법오 스님의 '김대현의 술몽쇄언 연구' △송승훈 선학과 박사의 '신플라톤주의와 밀교의 수행 비교, 관상과 관불을 중심으로' △불교학과 박사 행진 스님의 '전통사찰의 풍수지리적 입지 연구' △국어교육학과 자현 스님의 '한암 중원의 선불교와 교육사상 연구' △유소정 불교학과 박사의 '불교명상과 인성교육의 관계' △불교학과 박사 혜인 스님의 '신라 도륜의 유가사지 주석과 인용방식 연구' △전민지 불교학과 박사의 '대보적경 연구' △전헌열 불교학과 박사의 '고려시대 불교사원경제 연구' △최건업 불교학과 박사의 '분황 원효의 수행관 연구' △한수진 불교학과 박사의 '불교 계율에 나타난 식문화 연구' 등이다.

한편, 동국대 전체 석사학위 수여자 340명 중에는 불교 주제는 24명으로 나타났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창원 진불선원, 禪 통한 행복 찾기 특강

선불교대학 총동문회, 신규탁 교수 초청강좌

창원 진불선원이 신규탁 연세대 철학과 교수를 초청해 특별강좌를 개최했다. 진불선원(주지 무아)은 8월 22일 진불선원 3층 보문당에서 선(禪)을 통한 발심과 행복 찾기를 주제로 강의를 진행했다. 이날 행사는 △삼귀의 △한글반야심경봉독 △학장 무아 스님 인사말 △박종배 진불선원 총동문회장 인사말 △신규탁 교수 특강 △사홍서원 순으로 진행됐다.

신규탁 연세대 교수는 불교와 선, 선과 선어록, 선수행(발심과 행복)을 중심으로 강의를 이어갔다. 아울러 인연법과 선 수행 실천을 강조하며 마무리했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예불 때마다 큰 發願 세워라

조계종 종정 진제 스님



激電光中看變動(격전광중간변동)
在我也能遣能呼(재아야능견능호)
於彼也能擒能縱(어피야능금능종)
如磨手腕亦具備(여마수완역구비)
正法眼藏也受持(정법안장야수지)

금일은 어언 여름 석 달 안거(安居)를 마치는 하안거 해제일(夏安居 解制日)이라. 결제(結制)에 임했던 기상(氣像)과 기개(氣槪)로 각고(刻苦)의 정진에 몰두해서 본분사(本分事)를 해결했다면 금일이 진정한 해제가 될 것이나, 그렇지 못하다면 해제일이 동시에 결제일이 되어야 할 것이다. 자신을 돌아보고 돌아보아야 함이로다.

우리가 출가한 본래의 뜻은 견성성불(見性成佛)이로다.

사람마다 심성(心性)가운데 제불 만조사(諸佛萬祖師)와 더불어 똑같이 불성이 갖추어져 있고, 똑같이 이목구비(耳目口鼻)를 갖추고 있는데 단지 알지 못하는 고로, 쓰지 못하고 있도다.

그러니 모든 대중은 반연(攀緣)을 다 놓아버리고 대신심과 대용맹심으로 삼년 이내에 견성대오(見性大悟)를 하겠다는 각오로 오로지 화두 일념삼매(一念三昧)가 현전(現前)하도록 정진하고 또 정진해야 할 것이라.

또한 조석(朝夕)으로 예불할 때마다 큰 발원(發願)을 세워야 함이라.

역대 제불조사가 발원 없이 깨친 이가 아무도 없음을 알아야 함이로다.

이렇게 간절한 발원을 세워가며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신심으로 정진해 나간다면 하루하루가 새로워지리라.

이러한 신심과 용기를 갖추지 아니하면 조그마한 태풍이 불어와도 다 쓰러져 버린다. 이 몸뚱이에 집착하여 먹고 자고 편하려는 마음을 쓰다 보면 공부를 지어 나갈 수가 없도다. 그저 앉으나 서나 화두와 씨름해 가지고 견성해야겠다는 생각 이외에는 다른 생각을 가져서는 아니 됨이로다.

화두가 있는 이는 각자의 화두를 챙기되, 화두가 없는 이는 '부모에게 나기 전에 어떤 것이 참나인가?' 하고 이 화두를 일상생활(日常生活)하는 가운데 하루에도 천번 만번 챙기고 의심해야 할 것이라.

당나라 시대에 84인의 도인(道人)제자를 배출한 위대한 마조(馬祖) 선사께서 어느 달 밝은 밤에 지장, 백장, 남전 스님의 세 제자와 함께 달을 구경하는 차에, 달을 가리키면서 말씀하셨다.

"각자 본 바 소견을 드러내 말해 보라."

지장(智藏) 스님이 이르기를,

"正好供養時(정호공양시)로다.

바로 공양하는 때로다"하였다.

백장(百丈) 스님이 이르기를, "正好修行時(정호수행시). 바로 닦아 행하는 때로다"하였다.

남전(南泉) 스님은 손을 흔들며 가버렸다.(拂手而去) 이에 마조 선사께서 점검하여 이르시되, "지장은 경(經)으로 돌아가고, 백장은 선(禪)으로 돌아가고, 오직 남전 만이 홀로 형상 밖에 뛰어남이로다"하셨다.

산승(山僧)이 만약 동참했던들,

明月下에 伸脚臥(명월하 신각와)하니

淸風萬年新(청풍만년신)이로다.

밝은 달 아래 다리 뻗고 누웠으니

맑은 바람이 만년토록 새로움이로다.

산승의 이 일구(一句)는 경(經)으로 돌아감인가? 선(禪)으로 돌아감인가? 형상 밖에 뛰어남인가? 시회대중(時會大衆)은 속히 이르고 일러보라!

마조 선사께서 세 분의 제자를 일일이 점검하시니, 대중은 마조 선사를 알겠는가?(양구(良久)하시다가 대중이 말이 없으니, 스스로 점검하여 이르시기를,)

三介四介閑道人(삼개사개한도인)
月下步行道場中(월하보행도량중)
馬祖道將一句來(마조도장일구래)
各自呈神通妙用(각자정신통묘용)

天龍八部皆合掌(천룡팔부개합장)
三世佛祖心點頭(삼세불조심점두)
祖師家風最堂堂(조사가풍최당당)
東湧西沒不思議(동용서몰부사의)

세 분, 네 분 한가한 도인들이 밝은 달 아래 도량을 거니는 중에 마조 도인께서 일구(一句)를 일러오라 하니, 각각 스스로 신통묘용을 바침이라.

천룡팔부가 다 합장하고 삼세불조는 마음으로 점두(點頭)함이로다.

조사가풍이 가장 당당함이라,

동쪽에서 솟고 서쪽에서 빠지니

사의하기 어렵도다.

깊은뿌리는 삼세에 무성하다

태고종 종정 지허 스님



올해는 윤달이 4월 달에 들어서 4월 초파일을 두 번 지낸 하안거 결제이기에 다른 해와 달리 수행자들이나 일반 사부대중도 더욱 돈독한 수행으로 90일을 지냈을 것이다.

탐진치에 묻혀 살거나 수행의 길을 택하여 살거나 세월은 유수와 같이 흘러간다. 하지만 뜻이 다르면 맺힌 바가 다르다 하겠다. 승가에 흔히 말하기를 내 마음이 부처라 하고 부처가 내 마음에 있다 한다. 이렇게 흔한 부처와 이렇게 흔한 마음을 보았는가. 보았으면 한번 말해 보라.

泥牛靑天走萬里(니우청천주만리)
木馬海底是弄雷(목마해저시농뢰)
진흙소가 푸른 하늘 만리를 달리니
나무말이 바다 밑에 번개를 희롱하도다

송(頌) 하다.

曹溪將峰浮白雲(조계장봉부백운)
寂廖禪室淸涼風(적요선실청량풍)
無事老衲無空笛(무사노납무공저)
奧妙高低自在中(오묘고저자재중)
조계산 장군봉에 흰 구름 떠있으니
고요한 선실에 맑고 서늘한 바람이로다
일없는 늙은 납자 구멍 없는 피리는
오묘한 높낮이 스스로 그 가운데 있네

말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눈다. 그 하나는 중생이 자기 업장에 의하여 알음알이 생각으로 하는 말과 다른 하나는 근본을 철저히 깨닫고 하는 말이 있다. 중생의 부질없는 말은 순간에 사라지거나 아무리 좋은 말도 세월이 지나면 낙엽이 되어 흔적이 없다. 깨달음을 이룬 부처님이나 조사 스님의 말씀은 영원히 남아 수행자의 지표가 되어 깨달음을 돕는다.

"크게 수행한 이도 인과에 떨어집니까"하고 묻는다면 나는 "시방에 깊은 뿌리, 삼세(三世)에 무성하다"하겠다.

默默閑孤坐(묵묵한고좌)
觀雲後觀月(관운후관월)
一氣能山河(일기능산하)
茶盞靑龍越(다잔청룡월)
묵묵한 한 가운데 외로운 자리
구름을 지극히 본 뒤에 지극한 달을 보네
한 기운이 능히 산과 강이거니
찻잔에 푸른 용이 넘어가네

무념 돌아가 백천삼매 몰록 닦으니

쌍계총림 방장 고산 스님



諸緣放下歸無念하면
無碍自在快活人이로다
百千三昧頓修成하니
一一契合佛心意로다

모든 반연을 놓아버리고
무념에 돌아가면
무애자재 쾌활한 사람이로다

백천삼매를 몰록 닦아 이루었으니
낱낱이 부처님 마음과 뜻에
계합하도다

三山毒藥成靈藥하니
六道衆生無病人이로다

토끼뿔 주장자로 허공계의 달을치니
그믐달 한밤중에 서광이 비취도다

삼산의 독약이 영약을 이루니
육도중생이 모두 병이 없도다

時會大衆은 之南之北 自由人 이로다

上堂하야 打柱杖
三下云하시되

법상에 올라
주장자를 세 번치고 이르시되

打柱杖一下하고 遂下座하시다
주장자를 한번 치고
드디어 하좌하시다

정중동중이 여일함이로다

영축총림 방장 성파 스님



火不能燒요 水不能溺이며
風不能飄요 病不能侵이라
軟似兜羅하고 硬如鐵壁이라
天上人間에 古今不識이로다.

불이 태우지 못하고 물이 빠뜨리지 못하며 바람도 날리지 못하고 병도 침범하지 못하도다. 부드럽기는 도라솜과 같고 단단하기는 철벽과 같으니 천상과 인간이 알지 못하도다.

총림대중이 산문출입을 삼가며 하안거 동안 힘써 정진한 까닭은 본래 구족한 지혜덕상을 체득하여 어리석은 마음이 생멸하는 것을 없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러한 때에 중생이 오면 중생의 원함에 응해 한량없는 교화를 펼치나 한 중생도 교화했다는 흔적이 남지 않습니다.

지금 세간에는 수해가 나고 전염병이 유행하여 고통받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러한 일들을 외면하지 않고 수행의 향상을 위해 활용한다면 수행자의 역량을 점검하는 좋은 기회이기도 합니다.

선방에서 용맹정진한 수행력과 삼장을 연찬한 안목으로 중생의 아픔과 고통을 치유할 수 있는 역할을 해야 하며, 이러한 역할이 원만히 이루어질 때 부처님의 가르침이 참으로 소중하다는 감동의 마음이 일어날 것입니다.

一手擡 一手搦
左邊吹 右邊拍
無絃彈出無生樂
不屬宮商律調新

知音之後徒名邈

한 손으로 들고 한 손으로 잡으며
왼쪽으로 불고 오른쪽으로 치니
줄 없는 거문고로 무생곡 연주하도다
궁상율조에 매달리지 말지니
지음한 후에는 한갓 이름뿐이로다.

미륵의 누각, 극락의 난간이로다

덕숭총림 방장 달하 스님



이 여름 구순 하안거 해제를 당하여 소식이 어떠하십니까.

〈법화경〉에 상자적멸상이라, 항상 스스로 고요해서 적멸상이라고 했습니다. 소리 앞에 먼저 와있는 굽이굽이 저 유유히 멋있는 산천들! 〈화엄경〉에 법계의 성품을 보라, 응관법계성 하라. 보고 듣고 응하는 이 물건을 보라고 했습니다.

경허 스님께서는 "화엄경의 응관법계성이나 법화경의 상자적멸상이나 모두가 중생들의 보고 듣고 아는 見聞覺知의 이 자체바탕이다, 차별세상에 둘 아닌 이뭘까로 가닥을 잡으니, 이 자리가 미륵의 누각이요, 여기가 극락의 난간이로다"라고 하셨습니다.

만공 스님께서는 "참선은 부처님의 골수다"라고 하셨습니다. 참선은 이 하는 이 자체 바탕이요, 마하반야바라밀입니다. 마하는 뭘 듯이 기뻐 환희용약 하는 외마디 탄성입니다. 우주와 차별세계와 오온이 이 자체로 녹아져 둘이 아닌 알 수 없는 이뭘까 한 덩어리 의심으로 철커덕! 계합이 되었으니, 아! 이 자체의 절대절명이여, 마하반야바라밀입니다.

이뭘까 이 한 구절은 가다듬어 계향이요, 안정되어 정향이요, 돌이켜 혜향이요, 유일무이 해탈향이요, 이뭘까 이 한 구절은 일체에 도움을 주니 해탈지견향입니다. 해탈지견이 일상이 되는가? 만공 스님이 물었습니다.

"금일 대중은 임제의 할을 친하였는가, 덕산의 방을 친하였는가?"

벽초 스님이 자리에 벌떡 일어나

"임제의 할도 친하지 않고, 덕산의 방도 친하지 않습니다."

"그럼 무엇을 친하였는가?"

만공 스님의 말이 떨어지자 벽초 스님이 할을 했습니다. 만공 스님이 주장자로 벽초 스님을 한 번 때렸습니다. 벽초 스님이 절을 하고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만공 스님이 "전무후무로다. 앞도 없고 뒤도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묻습니다. 만공 스님의 이 전무후무는 경책인가, 칭찬인가? 만공 스님이 주장자로 때렸을 때 그대라면 어떻게 했을까? 뜸이 잘 든 밥은 향기가 허기를 진정시킵니다. 어떻게 했으면 만공 스님이 흡족해했을까? 벽초 스님의 효심이 지극하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도움이 되는 행동 보살행은 뿔 난 물고기의 물이오, 학이 소리치며 날 수 있는 허공이다. 산하대지 두두물물이 이뭘까를 굴리는 힘으로 돌아오게 한다. 세수하고 코풀 때 이놈이 같이 굴러가면 구경원성 살반야가 아니겠는가. 끝없는 부처님의 대자대비의 한복판이다. 이 정성을 바칠 뿐이다.

信心不二 不二信心
可笑尋牛者 騎牛更覓牛
이 물건이 둘이 아니다,
둘 아닌 이 물건이여!
우습다 소찾는 자여, 소타고 소찾나!

만공 스님은 해제하는 날 사홍서원을 일러주셨습니다. 사홍서원을 감당해서 실천할 수 있는 길은 오직 백억 부처님의 힘의 원동력 이뭘까 뿐이라는 것을 다시 확인합니다.

노사의 이 노바심절의 경책을 걸망에 짊어지고 산문을 나섭니다.

여수(汝水)는 동쪽으로 흐르느니라

해인총림 방장 원각 스님



수산성념선사에게 어떤 납자가 물었습니다.

여하시불법대의(如何是佛法大意)닛고?(어떤 것이 불법의 대의입니까?)

초왕성반(楚王城畔)에 여수동류(汝水東流)로다. (초나라 왕성 주변의 여수(汝水)는 동쪽으로 흐르느니라.)

수산성념(首山省念)선사는 풍혈연소선사의 법을 이었으며 여주(汝州)땅에 머물면서 임제 종풍을 널리 선양하였습니다. 당나라가 망하고 송나라가 등장하기 전 오대십국(五代十國) 시대의 초(楚)나라가 이 법문의 배경입니다.

여수(汝水)는 하남성(河南省)을 흘러 회수(淮水)로 들어가는 강입니다. 회수는 양자강(揚子江)과 황하(黃河) 사이에 있는 큰 강입니다. 황하만절필동(黃河萬折必東) 즉 황하는 만 번을 꺾여도 결국 동쪽으로 흐른다고 했습니다. 물론 회수도 마찬가집니다.

자공(子貢)이 공자에게 큰물을 관찰하는 이유를 물으니 "만 번을 꺾어서 반드시 동쪽으로 가고자 하는 것은 의지가 굳은 사람과 같기 때문이다"라고 대답합니다. 동쪽이라는 방향만 보는 것이 아니라 초심(初心)을 절대로 잃지 않으며 또 물이 가지고 있는 속성인 제행무상(諸行無常) 제법무아(諸法無我)의 도리까지 함께 깨닫는 것입니다.

동쪽으로 가는 것도 중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만 번을 꺾이더라도 동쪽으로 가야한다는 의지를 꺾지 않는 것입니다. 수행자 역시 만 번의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절대로 '깨달음'이란 본래목적을 꺾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종문(宗門)의 많은 선장(禪匠)들이 만절필동이라는 불퇴전의 각오로 정진했기 때문에 법등(法燈)을 이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동산양개 선사는 호남성 담주(潭州)에서 큰 개울을 지나다가 물속에 비친 자신의 그림자 모습을 보고 크게 깨친 후 "절대로 남에게서 찾지 말라"는 '과수게(過水偈)'를 지었습니다. 용성(龍城) 선사도 낙동강을 지나다가 '과수게(過水偈)' 오도송을 읊었습니다. 재가의 소동파(蘇東坡)거사도 여산(廬山)에서 계곡물을 보고서 '계성변시광장설(溪聲便是廣長舌) 계곡의 물소리가 바로 법문'이라는 오도송을 남긴 것입니다.

수산성념선사께 '불법대의'를 물으니 '여수(汝水)는 동쪽으로 흐른다.' 고 했습니다. 이번 해제 기간에 만행할 때 만절필동의 정신으로 운수 행(雲水行)을 해야겠습니다. 조용한 물가나 고요한 호수에 머무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큰 바다에 이를 때까지 정진 행을 멈추지 말 것을 다시 한번 당부 드립니다.

성반동류수(城畔東流水)
인풍랑역고(因風浪亦高)
강호(江湖)에 유부주(留不住)
도해작파도(到海作波濤)

성 곁에 동쪽으로 흐르는 물이
바람에 의해 파도마저 드높구나.
그럼에도 강과 호수에는 절대로 머무르지 않고 바다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파도가 되는구나.

지면 관계상 법어 전문을 싣지 못했습니다. 전문은 인터넷 뉴스(www.hyunbulnews.com)를 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

| 현불 논단 |

코로나와 그릇된 신앙



방영준 교수
성신여대 명예교수

코로나19 재확산… 대유행 조짐
두 번의 확산 중심에 '교회' 있어
개신교계 '비대면 예배'도 거부해

코로나 재난, 종교 역할 상기시켜
종교 · 이데올로기 쌍생아적 관계
잘못된 믿음의 노예, 공공적 재앙

'정교분리' 는 계몽 · 근대화 산물
정치 주체 공공선 유도 종교역할
불교, '깨달음 사회화' 고민 해야

이를 어쩌랴. 코로나 재난이 잠잠해지는가 했더니 다시 기승이다. 새로운 시작이라고 하니 그 끝이 아득하게 느껴진다. 이런 코로나 재난의 확산에 종교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코로나19의 1차 확산지인 대구 · 경북 지역은 신천지 교회가 전파의 온상이었고, 이번 수도권 지역 확산은 전광훈 목사가 이끄는 사랑제일교회가 큰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사랑제일교회는 정부가 가짜 통계로 방역 실패의 책임을 교회에 전가하고 종교를 탄압하고 방역 독재를 한다고 비난하면서 국무총리 등 방역 당국을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한다. 부산기독교총연합회는 '비대면 예배' 를 종교 탄압이라고 비난하고 있다.

이번 코로나 재난은 종교의 사회적 기능과 역할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든다. 특히 종교의 '믿음' 문제와 '정치와 종교의 관계' 이다. 인간의 삶의 모습은 다양한 믿음의 구조 속에서 진행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믿음 체계는 개인과 사회 공동체에 엄청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종교와 이데올로기의 쌍생아적 관계는 믿음의 강제와 믿음의 마술에 있다. 잘못된 믿음의 덫에 걸릴 때 사람들은 종교와 이데올로기의 노예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될 때 믿음은 사적인 영역을 넘어 공적인 영역으로 확대되어 엄청난 재앙을 가져오기도 한다. 이에 믿음에 대한 성찰적 자세가 반드시 요구된다.

그런데 믿음은 신화적인 성격이 강해 자신의 믿음과 자기 종교집단의 신앙 체계를 성찰하는 것이 만만치 않다. 믿음의 마술에서 벗어난 종교가 있다. 바로 불교이다. 기독교가 절대주의적 입장에 서 있다면 불교는 상대주의적 입장에 서 있다. 불교 교리의 핵심은 연기론으로 상대성의 원리 위에 불교의 사상과 실천의 체계를 구축한다. 불교의 믿음 체계는 '주체적 믿음' 으로 깨달음으로 가는 나침판의 역할을 하며 수행을 통해 얻어지고 확인된다. 그만큼 주체적 믿음은 자기 성찰적이다.

다음으로 종교와 정치의 관계다. 전광훈 목사의 행적은 여느 정치인 못지않게 정치적이었다. 정당을 만들기도 했고, 장로 대통령을 만든다고 앞장 선 사람이다. 정교분리의 개념은 계몽과 근대화의 과정에서 나온 선언적인 성격이 강하다. 현실에서 종교와 정치의 분리는 하나의 구두선에 지나지 않는다. 문제는 종교와 정치의 바람직한 관계가 무엇인가를 탐색하는 것이다.

여기에 종교의 정치철학적 과제의 중요성이 등장한다. 즉 정치현상과 정치권력을 윤리 도덕적으로 평가하고, 바람직한 정치규범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정치체제와 정치 구성원이 공동선을 추구하게 하여 행복한 정치생활을 구현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하화중생(下化衆生)이다.

그러나 정치와 종교의 관계는 부정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았다. 현재 한국사회에 있어 갈등의 큰 씨앗은 이데올로기와 종교이다. 그리고 그 둘의 모습은 너무 닮았다. 정치적 이념으로 인한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을 종교는 상실하였고, 오히려 종교가 이념의 역기능적 요소를 나타내고 있다.

코로나 재난은 종교의 존재 양식에 엄청난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코로나 전후의 종교 존재 양식은 근원적으로 달라진다는 것이 종교학자들의 지배적인 견해다. 그리고 종래의 믿음 위주의 종교 기능도 약화될 것으로 전망한다. 연기론적 틀에서 보면 당연한 변화다. 1990년대 이후 '깨달음의 사회화' 라는 용어가 불교계에 많이 사용되고 있다. 붓다의 가르침은 '지금, 여기서' 살아 숨 쉬는 것이어야 한다. 코로나 재난의 흙탕물 늪에서 어떻게 연꽃을 피울 것인가?



지원 스님의
마음처방전

도전하는 사람은 아름답다

싯다르타 태자의 출가 소식은 이웃나라까지 알려졌습니다. 하루는 빔비사라왕이 숲 속에서 명상에 잠겨있는 싯다르타를 찾아왔습니다.

"태자처럼 젊고 기품 있는 사람이 사문이 되어 고생한다는 것은 참으로 아까운 일이오. 나와 함께 우리나라에서 사는 것이 어떻겠소."

그러나 싯다르타 태자는 "저는 이미 세상의 모든 욕망을 버리고 출가한 몸"이라며 정중하게 거절했습니다.

그러자 빔비사라왕이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무슨 목적이 있어 출가를 하셨소?"

"늙고 병들고 죽는 괴로움에서 벗어나 내 자신과 이웃을 구하기 위해서입니다."

"그것을 이룰 수가 있겠소?"

"되고 안 되고는 해보지 않고는 모릅니다. 저는 죽어도 물러서지 않을 것입니다."

싯다르타 태자는 6년의 고행 끝에 자신의 목표를 이루었습니다. 깨달음을 이루었고, 부처님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부처님은 사람들에게 이런 가르침을 주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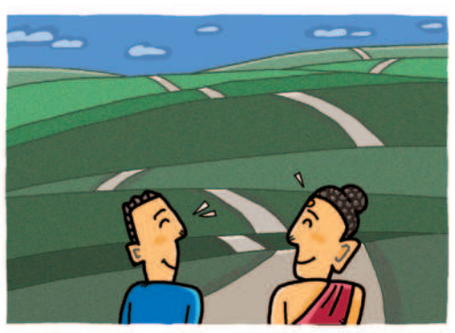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사람들아 원력을 가져라. 그대가 현명하다면 용기를 잃지 말라. 바라던 목적을 성취한 지금의 나를 보라. 사람들아 원력을 가져라. 그대가 현명하다면 용기를 잃지 말라. 험난한 파도를 헤치고 해안에 도달한 나를 보라. 그대가 현명하다면 비록 역경에 처했더라도 목표를 이룰 수 있다는 희망을 포기하지는 말라. 험난한 파도를 헤치고 피안에 도달한 나를 보라. 명 선장은 거센 파도에 도전할 줄 아는 사람이다."

원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직 죽음에 이르지 않는 한 인생이 결정된 것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역경이라도 극복하겠다는 자세로 희망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은 자신의 뜻을 이룰 수 있습니다.

요즈음 사람들은 도전 정신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너무 쉽게 인생을 포기해 버립니다. 천하의 명검도 쇳덩어리를 수없이 연마한 끝에 나온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쉬지 않고 연마하는 가운데 자신의 뜻을 성취할 수 있습니다.

'늙고 병들고 죽는 괴로움에서 벗어나겠다' 는 부처님의 목표는 지금까지 그 누구도 세우지 않은 목표입니다. 부처님의 도전에 사람들은 의문을 품었지만, 불퇴전의 정신으로 정각을 이루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정신이 필요합니다. 지금 고통과 괴로움 속에 있다면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 한 번쯤 뒤돌아보세요. 힘들다고, 어렵다고, 괴롭다고 아무리 말해도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노력해야만 극복할 수 있습니다. 부지런한 노력은 괴로움을 없애줍니다.

〈육지장사 회주〉

社 說

보편적 승가복지가 종단 미래 근간

조계종 승려복지제도가 시행 10년만에 완전히 안착됐다는 평가다. 올해 처음으로 전종도 기본부담금 제도가 시행되면서 일각의 우려를 사기도 했지만, 시행 첫 달만에 83%라는 높은 참여율을 기록하면서 모든 우려가 불식됐다.

기본부담금 제도의 기본 골자는 승려복지 수혜대상인 스님들이 의무적으로 기본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는 것이다. 전종도 차원의 참여를 통해 보편적 복지를 구현하겠다는 취지다. 매월 5000원에서 1만원 수준이지만 모든 종도가 일정 금액을 납부하는 시스템인만큼, 추진과정에서 많은 논란을 낳기도 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시행 한달만에 대부분의 종도가 가입했다는 점에서 이례적인 성과라는 평가와 함께, 조계종 스님들의 승려복지제도에 대한 높은 관심과 신뢰를 드러냈다는 분석이 나온다.

승려복지회에 따르면 8225명이 기본부담금 신청을 완료했으며, 이 중 납부를 완료한 스님은 총 8006명에 이른다. 해외교구 등 연장 접수된 2차분 집계가 완료될 경우 총 신청인원은 이보다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기본부담금 제도의 성과는 곧 향후 조계종 승려복지제도의 무한한 발전 가능성을 드러내는 지표일 수 있다. 전종도의 참여로 탄탄해진 재정적 토대는 종단의 숙원과제였던 '출가부터 열반까지' 책임지는 보편적 복지의 현실화와 직결되기 때문이다. 보편적 승가복지는 나아가 조계종 스님들이 노후 걱정 없이 수행 · 포교에 매진할 수 있는 근간이 될 것이다.

조계종 승려복지제도가 발전을 거듭해 양질의 승가복지를 구현하고 이를 통해 종단 미래를 담보하는 핵심사업으로 우뚝 서길 발원한다.

한국 밀교연구 활성화 토대되길

밀교는 삼국시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한국 불교문화에 깊은 영향을 미쳤다. 우리의 불교문화 전반에, 또 전통불교의식의 근간에 밀교문화가 자리하고 있음은 분명한 사실이다. 한국 밀교문화의 모든 것을 망라한 〈한국밀교문화총람〉 발간 소식이 더없이 반가운 이유가 여기에 있다. 어떤 분야든 탄탄한 기초자료는 모든 심화연구의 첫발이 되기 때문이다.

진각종은 문화체육관광부 예산 일부를 지원받아 한국 밀교의 문화와 역사, 이론 등 관련 자료를 총체적으로 정리해 〈한국밀교문화총람〉으로 탄생시켰다. 그야말로 밀교의 이론적 · 문화적 · 교리적 자료를 집대성한 결과물이다. 집필진만 100여 명이 참여했으며 발간 목록은 29종 34권에 달한다.

무엇보다 국내외에 분산된 밀교 관련 일체의 자료들을 집대성하고 일목요연하게 정리했다는 점에서, 향후 밀교연구의 기초자료로도 폭넓게 활용될 전망이다. 진언과 만다라, 경전 문헌과 의식 등을 총망라해, 그동안 한국불교계에서도 연구범위가 넓지 않았던 밀교연구를 활성화하고 발전을 견인하는 토대가 될 것이란 기대가 모이는 이유다.

밀교종단 진각종의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계기가 될 가능성도 적지 않다. 일례로 진각종이 2018년 복원해 재현했던 '문두루법' 이 대표적이다. 관련 자료가 총체적으로 수록된 자료집이 총람에 포함되면서 그 의미와 가치가 학자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기 때문이다. 무형문화재로서의 잠재적 가치가 높다는 평가가 이어지면서, 종단 차원에서 '문두루법' 의 무형문화재 지정을 위한 논의도 진행될 전망이다. 〈한국밀교문화총람〉 발간이 한국불교계 이면에 자리한 밀교의 참 모습을 새롭게 조명하는 전환점이 되길 바란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1994년 10월15일 창간
발행인 : 혜도 대표이사 : 김재진 편집국장 : 김주일 인쇄인 : 배성한
(우)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 606호 (운니동, 월드오피스텔)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8
편집국 02)2004-8257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6 FAX (02)737-0696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쇼핑몰 현불샵닷컴 www.hyunbulshop.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부 산 지 사 : 010-5640-8883
경 남 지 사 : 010-3860-7008
광주전남지사 : 010-2629-1508
대 구 지 사 : 010-2813-8008
영 주 지 국 : 010-9373-3778
전 북 지 사 : 010-8642-7733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구독료 : 1개월 5천원
등록일:2007년 3월 9일 · 등록번호:서울다 07641(주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세계 붓다 평화 봉사상
살아있는 관세음보살과 보현보살의 화신을 찾습니다
2020년 한국과 세계 불교를 이끄는 리더, 세계와 한국을 빛낸 자랑스러운 인물

불기 2564년은 중국 우환에서부터 전파된 코비드19바이러스로 대한민국 국민을 비롯하여 지구촌 전체가 고통을 받고, 세계 경제에도 막대한 타격을 주는 액난을 맞이했습니다. 이 고통과 아픔을 함께 나누는 곳에는 대한민국을 이끄는 지도자라 칭 하는 분들의 모습이 많이 보이지 않아 아쉬웠습니다. 이제는 대한민국이 하나가 되어 서로를 신뢰, 존중하고 화합, 단결하는 절실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불평불만 보다는 매사 긍정적이고, 불신보다는 화합의 포용과 미소로 함께 나누는 사회를 누가 만들어 주는 것이 아니라 국민 스스로 만들어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협회에서는 살아있는 관세음보살과 보현보살의 화신을 찾습니다. 이름도 富도 名譽도 없지만 때 묻지 않은 순수한 수행자로 먹물 옷이 부끄럽지 않게 봉사와 헌신으로 고통 받는 지구촌 중생들에 지팡이가 되고 따뜻한 손길이 되어 주시는 불제자들을 발굴하여 세상에 그들의 아름다운 선행을 알리고 함께 동참하는 계기를 갖고자 합니다. 수천마디의 말보다 몸소 실천하는 부처님께 부끄럽지 않는 행원으로 세상에 알려지지 않았으며 주위 모르게 고통 받는 중생들에게 희망과 미소를 안겨주는 살아있는 관세음보살을 찾아 세상 모든 분들의 감사와 찬사의 박수를 보내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불교인이라면 누구나 추천 가능합니다. 많은 분들의 추천을 기다립니다.

◈◈ 제출서류 및 안내 ◈◈
제출서류 추천서와 자기소개서1통, 이력서 1통, 사진 1매 내외 ※ 본 협회에서 현장 심사를 거쳐 최종 심사 후 개별 통지해드립니다.
자 격 승가 및 재가자로 불심이 돈독한 분
접 수 일 2020년 9월 30일(수) 까지
제 출 처 (우)03158 서울시 종로구 삼봉로 68(청진동6번지 신영빌딩303호)
TEL 02-733-5665 / H·P 010-5229-6061 moktakno1@hanmail.net
시 상 식 2020년 12월 16일(수) 수상자 200명 훈장(메달)과 수훈패
장 소 백범김구기념관 (서울 용산구 임정로 26)
총 회 장 미얀마연방정부승가회 회장(세계불교도들의법왕)우꾸마라종정큰스님
총부회장 불교수호협회회장 및 세계불교법왕청 사무국장 우킨쉐이
회 장 목탁 대승정
대회장, 총괄 공동본부장 혜정 · 진성, 조직 본부장, 심사 공동위원장 심오 · 현담, 의전 본부장,
의전1원장 김재은, 의전2원장 이정희
심사위원 승가심사위원 혜정, 진성, 도광, 심오, 현담, 법운, 송운, 혜광, 상운, 대공, 대도, 백련
재가자심사위원 김재은, 고동욱회장, 명지민, 박정의회장, 이정희, 정영숙, 상미옥, 양미애, 윤서영, 최연호,
김명옥, 김영춘, 모미숙, 송윤서, 박정하, 이은송, 이양순
※ 초청장을 지참한 VIP만 입장할 수 있습니다. (전원 지정 좌석제 실시) ※ 초청자 명단에 없이 격려차 참석하신 분들은 정중히 행사장 입장 사절합니다.

추천된 대상 시상자들에게 서류 접수비 및 후원금을 일체 받지 않습니다.
모든 비용은 본 협회에서 전액 부담합니다.

주최 및 주관 국제붓다 평화 자비봉사단, 대한민국 나라사랑 협의회, 종교법인 세계불교법왕청, 종교법인 국제불교지도자협회, 종교법인 국제선불교조계종, 외교법인 한국-미얀마 친선교류협회, Republic of the Union of Myanmar, 한국주재 미얀마 문화원 & 미얀마관광청 한국대표부, 미얀마 코리아 종합기술대학교 (양곤 흘라잉따야 구쑤빠웅용 동네따까마-14번지)
협 찬 현대불교신문사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8/26~9/1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02)3672-718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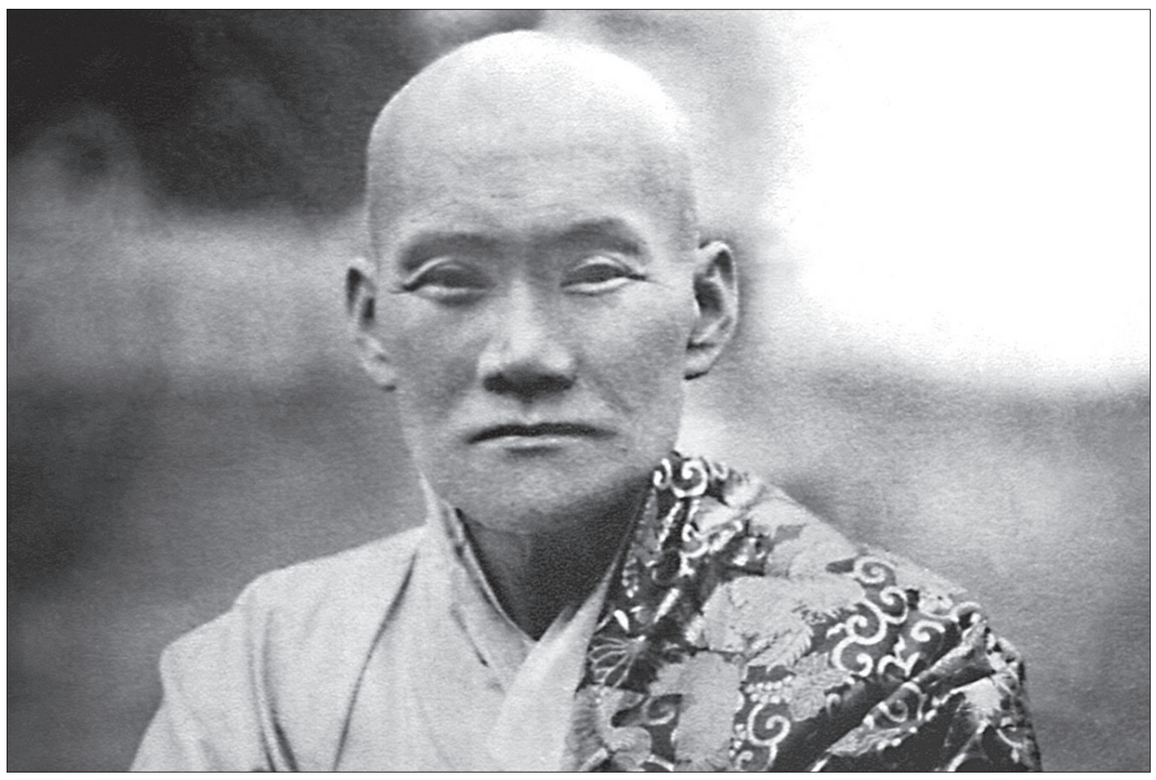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원빈스님의 금강경에 물들다	원빈스님	이층버스	6	우리는 늘 바라는 대로 이루고 있다	김원수	청우당
2	칸니 명상 : 아나빠나사띠와 위빳사나수행의 입문서이자 안내서	수망갈라/차은숙	운주사	7	낡은 옷을 벗어라 : 법정스님 미출간 원고 68편 수록	법정스님	불교신문사
3	불교는 깨달음의 과학(무명의 족쇄를 풀어줄 정법의 108요답)	무진 황경환	현대불교신문	8	지금 이대로 좋다	법륜스님	정토
4	정선 맛지마니까야	이중표	불광출판사	9	정혜결사문 : 선정과 지혜로 세상을 밝혀야	보조지눌/원순스님	법공양
5	요가디피카(아헹가요가) 육체의 한계를 넘어	아헹가/현천스님	선요가	10	방거사 어록 시 역주(선어록총서3)	강승욱	운주사

책세상

암울한 시대서 미래 밝힌 선승 '한암'



시대를 초월한 성자, 한암
조계종의 초석을 정립하다
자현 지음 / 불광출판사 펴냄 / 3만원



한암 관련 최초 박사 논문 책으로
생애와 사상 종합적 · 입체적 연구

선불교 중흥조 경허 마지막 제자
일제 · 한국 전쟁 암울한 시대서
승가교육 이끌며 禪戒一致의 삶
확고한 선사상과 교육철학 확립

박재완 기자 wanihollo@hanmail.net

한암 스님(1876~1951 · 사진)에 대한 최초 박사 논문인 자현 스님의 '시대를 초월한 성자, 한암' 이 책으로 출간됐다.

책은 한암 스님의 생애와 사상에 대한 종합적이면서 입체적인 연구 결과로, 선사로서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선사상을 검토하고, 이의 확장적인 실천으로서의 교육론에 대해 조명하고 있다.

책은 총 다섯 개의 장에서 한암 스님을 조명한다. 제1장(서론)에서는 연구 목적과 연구 범위, 서술 방향을 밝혔다.

제2장에서는 기존의 연구 토대 위에서 자료들의 면밀한 분석과 이증(理證)을 통해 한암 스님의 생애를 종합적으로 요약 · 정리했다.

제3장에서는 한암 스님의 선사상에 대해 다뤘다. 제1절에서는 한암 스님의 자전적 구도기인 〈일생패궐〉을 통해 한암 스님이 깨달음을 얻게 되는 계기와 과정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그 특징을 도출했다.

제2절에서는 한암 스님의 선 관련 문헌 중 분량이나 내용 면에서 단연 압권이라고 할 수 있는 〈선문답 21조〉를 살펴본다. 〈선문답 21조〉는 1922년 한암 스님이 건봉사 만일원 선원의 주실[조실]로 초빙되어 동안거를 날 때, 열중이었던 미우 이력과 문답한 내용이다. 이 문건이 중요한 이유는 21조 중 전10조에서 선수행과 관련된 체계를 정립하려는 양상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후10조에서는 여말 나옹 혜근의 〈공부십절목〉이라는 선수행의 체계에 대한 물음에 한암 스님이 답변하는 구조다. 제3장의 마무리는 한암 스님의 계율 관련 문건인 〈계잠(戒箴)〉에 대한 검토다. 〈계잠〉에서의 '잠(箴)' 이란 유교의 선비들이 스스로를 경계하기 위해 생활공간에 붙여 놓은 잠언과 같은 문건이다. 한암 스님은 이를 〈계잠〉이라고 불렀는데, 이는 한암 스님의 청정한 율행 및 이의 지향을 알 수 있는 부분이다.

마지막 제4장에서는 한암 스님의 교육론과 관련된 내용을 다뤘다. 이 부분은 동시대의 다른 고승들과 변별되는 한암만의 특징인 동시에 본 연구가 교육학 논문이라는 점에서 필연성을 내포하는 측면이다.

한암 스님의 교육관과 관련해서는 먼저 그 배경이 되는 초조론(종조론)의 주장에 대한 측면이 존재한다. 한암 스님은 홍주종을 주장하지만 한국 선불교 안에서는 사굴산문의 지눌의 영향을 강하게 받고 있다. 이는 한암 스님이 종조론을 주장하는 것과 더불어 〈육조단경〉 및 이통현의 〈신화엄경론〉 강조 등에서 명확하게 확인된다.

다음으로는 한암의 교육관 형성 및 이의 현실적인 구체화와 관련해서 한암의 내원선원 주석과 〈승가오칙〉에 대해서 조명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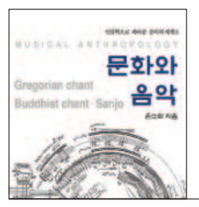
제4장의 마무리는 한암 스님의 일생에서 가장 뚜렷한 교육자의 모습과 교육적인 형태를 통해서 교육사상을 알 수 있는 삼본사승려연합수련소이다. 일제의 심전개발운동의 일환으로 제기되어 강원도 불교와 관련해서 전개되는 것이 바로 삼본사승려연합수련소 즉 삼본사수련소이다.

한암 스님은 한국 선불교의 중흥조 경허 선사의 마지막 제자로서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의 암울한 시대에서 총 4차례 교정과 종정으로 추대되며 한국불교의 미래를 밝힌 선승이다. 이런 시대적 특수성으로 인해 한암 스님은 선사임에도 불구하고 교육과 계몽에 대한 깊은 고민과 부단한 노력을 경주했다.

이로써 한암 스님만의 선사상과 교육철학이 확립됐으며 이는 1941년에 창종되는 조선불교조계종에 반영되고 오늘날의 대한불교조계종으로까지 일정 부분 연결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한암 스님에 대한 연구는 곧 일제강점기와 현대의 한국불교를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한 측면에서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저자 자현 스님은 동국대학교 강의전담 교수와 능인대학원대학교 교수를 역임했다. 현재 중앙승가대학교 불교학부 교수로서 교학처장으로 재직 중이다. 또한 월정사 교무국장, 조계종 교육아사리, 불교신문 논설위원, 한국불교학회 법인이사, 상하이 푸단대학교 객원교수, 문화재청 전문위원(동산분과) 등을 맡고 있다. 한국 · 인도 · 중국 · 일본과 관련된 160여 편의 논문을 한국연구재단 등재지에 수록했으며, 〈불교사 100 장면〉, 〈한국 선불교의 원류 지공과 나옹 연구〉 등 40여 권의 저서를 펴냈다. 2019년 불교출판문화상을 비롯해 다수 수상했다.

인류학으로 바라본 한국 범패는?



문화와 음악
윤소희 지음 / 맵씨터 펴냄 / 4만2천원

'인류학으로 바라본 음악의 세계' 1권 〈문명과 음악〉에 이은 2권 〈문화와 음악〉이다. 문화적 토양이 어떻게 음악의 선율 · 리듬 · 예술이 되는지를 들여다본다.

1권과 같은 대 주제에서 시작하지만 과정은 다르다. 1권에서 다가가지 못한 부분을 자세하게 분석했다. 문화적 DNA가 다른 지구촌의 종교음악과 한국 전통음악이 어떻게 형성되고 진화되어 왔는지를 인류학적 관점으로 풀어낸 1권에서는 인류문명의 시작부터 문화시대까지 포괄적으로 조명함으로써 음악적 실체에 제대로 다가가지 못했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제2권인 〈문화와 음악〉에서는 실제 음악을 현미경의 렌즈로 들여다보듯 분석했다. 분석 대상은 범패와 산조다. 범패는 현존하는 한국전통음악 중에서 가장 긴 역사를 지니고 있고, 산조는 가장 한국적인 예술성을 지닌 음악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종교는 으레 율조와 함께 전파되는 것이므로 한반도에 불교가 들어올 때부터 범패에 대한 탐구도 있었겠지만 근세기 한국의 범패 연구는 주로 오선보 채보와 악조 파악에 머물러 왔다." 저자는 위 사실에서 '범패란 무엇인가?' 라는 화두를 품기 시작했으며, 책 〈문명과 음악〉을 통해 지구촌 종교음악과 한국의 범패가 어떤 관계를 지니고 있는지를 인류학적 관점으로 풀어냈다. 하지만 범위가 너무 확대되어 음악적 실체에서 다소 멀어진 텍스트가 됐다. 2권 〈문화와 음악〉에서는 이들 음악을 줌인하여 선율 전환 방법인 변조 · 전선법 · 전조의 과정을 범패 · 그레고리오 성가 · 산조를 통해 비교 분석했다. 또한 음악의 토양인 생활과 문화에 대한 이야기부터 전공자들을 위한 분석에 이르기까지 망원렌즈에서 현미경으로 초점을 좁혀가고 있다.

책은 서양의 종교음악과 중세음악 이해의 탄탄한 기반 위에 우리 음악의 원리를 터득해 온 저자의 경험을 살려 한국전통음악을 인류보편적인 시각으로 풀어내고 있다.

서로 다른 분야의 소통을 위해 국악은 서양음악 전공자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했으며, 서양음악은 국악도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용어와 서술 방식을 바꾸어 설명했다.

가야금의 조현표와 실음의 관계, 다른 악기와의 합주를 위한 음악어법의 면밀한 세계를 조명했으며, 국악개론이나 총론에서 말하는 범패의 정의가 실제 악곡의 느낌과 괴리가 있음을 역사적 전개와 문화적 배경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다.

저자 윤소희는 부산대학교에서 음악학 석사, 한양대학교에서 음악인류학 박사를 마쳤으며, 현재 위덕대학교 연구교수다. 〈불교성악 작곡집〉, 〈신라의 소리 영남범패 대담집〉 등 다수의 저서가 있다.

박재완 기자

우주의 신비가 호흡에 있다 - 호흡의 비밀을 풀다
만트라 염불선치료 명상 과학 센타
제6차크라 젠에너지 음악치료 명상
공개 강좌 : 매월 셋째주 일요일 오전 11시

4차 산업혁명과 AI 인공지능 시대에 미래의 대체의학인 젠에너지체(밀교의 의성신 · 금강신)를 배우고 익혀서 몸과 마음을 닦아 위로는 깨달음을 구하고 아래로는 중생을 이롭게 하고 제도하는데 원력을 세워서 수행 정진 하실 분.

■ 수 행 : 고타마 싯다르타(석가모니)부처님의 호흡법을 발견, 전수함. (아나빠나사띠숫타)
■ 부처님말씀 (아나빠나사띠숫타) : 1. 들숨날숨에 대한 알아차림을 통한 삼매을 닦고 많이 공부지으면 큰 결실이 있고 큰 이익이 있다.
2. 들숨날숨을 통한 알아차림에 대한 삼매을 닦으면 – 몸도 피로하지 않았고 눈도 피로하지 않았고 나의 마음도 번뇌로부터 해탈하였다.
3. 호흡의 전과정(길고, 짧고, 거칠고, 미세한)을 온몸으로 경험하면서 숨을 들이쉬고 내쉬리라.
4. 맛지마니까야 : 평정한 마음과 분명한 알아차림과 육신의 행복을 느끼며 머무른다.
■ 특 징 : 제 6차크라(제3의 눈 · 뇌의핵심〈송과체〉 · 인당)가 단기간에 몸이 바뀌면서 온 몸에 신경세포가 전부 살아 움직이고(피부호흡) 머리에서 부터 발끝까지 온 몸에 24시간 강력한 전류가 흐르며 (젠에너지체 – 행주좌와어묵동정) 고요하고 편안한, 몸이 완전히 이완된 호흡 선정 상태에서 부작용 없이 자연스럽게 뚫리고 열려 나감.
■ 개인지도(구전심수) / 면접 상담 후 결정 ■ 등록번호 : 138-50-00260
■ 문 의 : ☎ 02-393-8027 (젠에너지 치료 예약 접수)

제6차크라 젠에너지 치료 명상가 처명선광
- 동국대학교 일반대학원 선학과 응용선학 박사수료
-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명상심리상담학과 석사 졸업
- 중앙승가대학교 불교학과 졸업,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중어중문학과 재학중
- 동방대, 옥천범음대 졸업, 중앙승가강원 대교과 수료
- (사)한국산업카운슬러협회 1급 지도자(심리상담)
- 서울 남부 구치소 교정위원, (전)서대문경찰서 경찰발전위원회 위원
-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 국가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이수자

*후원계좌 : 국민은행 (371101-04-120586 박성호)

제6차크라 열리기 전·후 비교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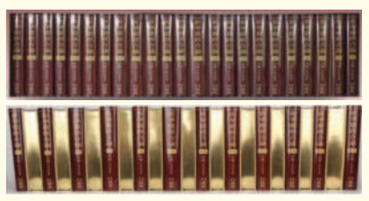

2015년 8월 4일


2017년 1월 9일

페이스북에서 'Sung Ho Park'(처명선광) 검색

붓다의 호흡법 연구소(소장:처명)
유튜브에서 '처명선광' 검색
듣기만해도 치료가 되는 실전 명상

2020 탄허 대종사 역저서



신화엄경 합론
(新華嚴經 合論)
4×6배판 2도인쇄 세로쓰기
전체금장 12,424쪽.
합본23권
값1,610,000원

이 책은 불교의 진수(眞髓)이며 고래 화엄종의 소의경전이다. 법화(法華)·열반(涅槃)과 함께 삼대경으로 손꼽히는 일승요의경으로써 요의경(了義經) 중에서도 가장 으뜸이다.
백천중류에는 바다가 가장 으뜸이고, 삼라만상에는 허공이 가장 으뜸이며, 일체 성현 중에서는 부처님이 가장 으뜸이고 일체 경교(經敎)에서는 화엄경이 가장 으뜸이다.
범부가 보살이 되고 부처가 되는 과정의 삼현십지와 불법의 신(信)·해(解)·행(行)·증(證)과 사법계·십법계·육상원융·십현문 등 가장 심오하고 광대무변한 법문이 이 경(經)·논(論)·소(疏)에 잘 설명되어 있다.
본 경은 80권 화엄경과 통현론 40권·청량국사 화엄소초 150권·회석 7권·현담 8권·보조국사의 원돈성불론 1권·계환선사의 화엄요해 1권과 탄허선사의 주석 등 총287여 권의 집대성이다.
이와 같이 화엄학을 집대성하여 수록하고 번역한 것은 유사이래 처음 있는 금자탑이니,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일찍이 없었던 귀중한 법보(法寶)중의 법보로써 크게 추앙받으리라.
우주와 인생을 꿰뚫어 볼 수 있는 진리는 오직 화엄경(華嚴經)뿐이다.



전 5권 전체금장
덧말 대방광 불화엄경(40품)
4×6배판 2도인쇄
가로쓰기
전5권 한질 값400,000원

대방광 불화엄경(40품)을 덧말(음)을 달아 남(男)·녀(女)·노(老)·소(少)·유(有)·무식(無識) 누구나 수 읽어볼 있 한 번쯤게 단락을 달았습니다.약3,200쪽 분량으로 640쪽 1권 총5권 한셋트로 2도인쇄 전체 금장으로 영원히 유산이 될 수 있게 제작했습니다.어려운 한문 때문에 경을 못 보는 분들도 많으리라 생각되어 대방광 불화엄경 40품 594,741여자(餘字)를 원문과 동시 덧말(음)을 붙여 한글만 알면 누구나 한번쯤 독송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본 화엄경은 가정에서
법보로 가보로 꼭 필요합니다.
본경전을 受持하면
돈과 시간이 절약됩니다.
譯經많은 他의 追從을 不許.


도덕경 (道德經)
4×6배판 2도인쇄 세로쓰기
고급양장 전2권 1.152쪽.
도덕경 고급양장 2권
140.000원


莊子南華經
(장자남화경)
4×6배판 고급양장 512쪽
탄허스님 육성 씨디포함
고급양장 1권 60.000원


주역선해 (周易禪解)
4×6배판 2도인쇄 세로쓰기
1.784쪽.
주역선해 3권
210.000원

도서출판 교림
http: www.tanheo.com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사동4길17(경운동)
건국빌딩 건국관 202호
☎ (02)733~3334

티베트 노승, 사후 28일 삼매에 들다

게쎄 잠빠가쵸 스님, 입적 이후 '화제'

한여름 더위 속 사망했으나
경직 · 부패 등 사망징조無
사후삼매인 '툭담' 추정돼
달라이라마, 조사 지시도

박영빈 객원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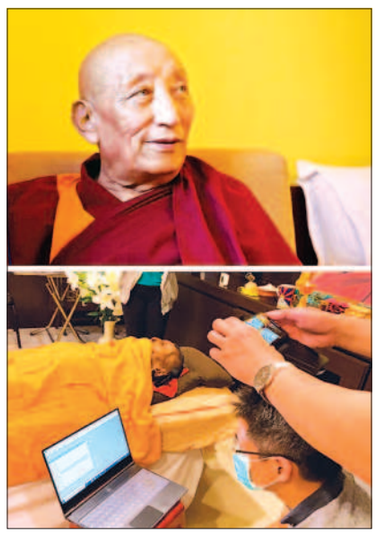
수행이 성숙한 수행자는 생사에 자재해 진다고 많은 법문에서 일컬어진다. 이를 몸소 증명한 사례가 대만에서 등장했다. 타이베이에서 입적한 티베트 출신의 노승의 시신이 28일간 사후경직, 부패 등의 사망의 징조를 보이지 않아 과학자들의 관심을 끌었다. 이 놀라운 소식을 '부디스트 글로벌 도어' '자유 아시아 방송' '티베트 넷' 등 외신들이 특별 보도했다.

지난 7월 14일 타이베이에서 세수 86세, 법랍 78세로 입적한 게쎄 잠빠갸초 스님은 달라이라마가 대만에 파견한 최초의 게쎄(한국의 불교학박사) 스님이다. 23년간 대만에 상주하며 수많은 제자들을 양성했으며 현재 달라이라마의 중국어 통역관들은 모두 이 스님의 제자인 것으로 유명하다.

오랜 지병과 노환으로 입적한 잠빠갸초 스님의 법구는, 티베트 불교식으로 장례절차를 따르겠다는 제자들의 요청에 따라 시신에 그 어떠한 부패방지처리 없이 입적한 병상 그대로 냉방시설만 설치된 방으로 이운됐다. 그러나 이튿날 조문과 기도를 위해 방문했던 동료 게스님들이 법구를 확인하는 절차에서 티베트 불교에서 사후 삼매로 불리는 '툭담'에 든 것으로 밝혀졌다.

툭담은 티베트 불교에서 수행력이 높은 수행자가 육체적으로는 사망하였으나 그 미세한 의식이 육신에 남아 삼매에 든 상태를 말한다. 툭담에 든 수행자의 시신은 일반적인 시신과 달리 사후경직이나 피부의 변색, 악취 등의 증상이 보이지 않는다. 특별히 심장부근의 체온이 남아 있거나, 시신의 크기가 줄어드는 등의 현상도 나타난다.

잠빠갸초 스님이 입적한 당시 대만은 한 여름으로 평균 38도의 폭염이 이어지고 있었고, 법구가 안치된 방은 19~20도 가량의 냉방만이 가동되고 있었다. 그러나 법구의 피부는 살아있는 사람처럼 탄력이 있었고, 변색이나 반점 등의 현상도 보이지 않았으며 그 어떤 냄새도 나지 않았다. 5일이 넘도록 시신에 아무런 징후가 없자 대만의 티베트 사무국은 인도의 달라이라마 사무국에 보고했고, 달라이라마는 "시신의 코에서 액체가 나오고 피부색이 변하기 전까진 다비식을 미루라"고 지시했다. 이와 함께 "의료전문가들과 과학자들을 초청하여 시신에 대한 과학적 조사를 진행하라"고 전했다.



입적 후 1달 가량 사후삼매인 '툭담'에 든 잠빠갸초 스님(위), 스님의 법구를 조사하는 연구진(아래). 사진출처=티베트 넷

입적 11일째 되는 날 대만국립 중앙연구원의 학자들이 스님의 법구를 과학적으로 조사했다. 조사팀을 이끈 물리학자 리팅궈 교수는 "검사결과 시신의 포화산소도는 86으로, 살아있는 사람과 가까우며, 겉보기로 내부장기가 분해되지 않았으며 얼굴의 혈색과 미온의 체온이 시신에 남아있다"고 확인했다.

함께 참여했던 리시창 교수는 "혈중산소 농도와 함께 130회의 맥박도 함께 측정됐다. 그러나 이 맥박이 실제 몸의 신호인지, 혹은 침상의 진동인지는 알 수 없다"며 조심스럽게 의견을 제시했다. 리시창 교수는 "이 정도의 혈액산소도라면 체내에서 아주 미세한 생리활동이 있을 수 있지만, 현재로선 측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입적 15일째인 7월 28일과 8월 1일, 대만 국립대 심리학과 교수들과 연구진들이 뇌파를 측정했으며, 확언할 수는 없으나 뇌에서 미세한 반응이 있었다고 발표했다.

소식이 현지 언론과 SNS를 통해 전파되면서 해외 불자들은 "어려운 시기에 수행을 놓지 말고 정진하라 마지막까지 보이는 모습"이라며 빠르게 공유되고 있다. 또 지난 3월경 동일하게 툭담에 들었던 티베트의 스님들에 대한 사례도 함께 전파되고 있다. 잠빠갸초 스님의 법구는 8월 21일 대만에서 다비됐다.

스리랑카 승가대, 정부가 직접 운영

불교계 요구로 교육부 이전
승단에서 정부로 주체 변경



정부산하로 이전된 스리랑카 팔리 대학. 사진출처=아시아트리뷴

스리랑카의 승단에서 관리하던 두 곳의 대형 승가대학이 교계의 요청으로 교육부 산하로 운영주체가 이전됐다. 지난 8월 22일 스리랑카의 온라인 시사뉴스 '아시안 트리뷴'은 이 특별한 소식을 집중 보도했다.

8월 21일 스리랑카의 고타바야 라자팍사 대통령은 대통령궁 비서관실에서 열린 제 5차 불교자문위원회 회의에서 스리랑카 승단이 운영하던 두 개의 불교 대학을 교육부 산하로 이전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불교자문위원회는 스리랑카 교계의 장로스님들이 모인 단체로 대통령과 정부에 조언을 제시하는 고문역을 맡고 있다.

스리랑가 승단의 요청에 따라 정부 산하로 이전된 대학은 '스리랑카 불교와 팔리 대학(Sri Lanka Buddhist and Pali University)'과 '스리랑카 빅슈 대학(Bhiksu University of Sri Lanka)'이다.

스리랑카 불교와 팔리 대학은 1985년, 행동하는 지성으로 이름 높았던 월폴라 라훌라 스님이 설립했다. 해당 학교는 불교철학과 팔리어를 중심으로 가르치며 출가자를 우선해서 선발하는 대학으로 스리랑카 정부가 공인한 정규대학이다.

스리랑카 빅슈대학은 1968년 스리랑카 불교계의 발원으로 세워진 최초의 출가자 전용 고등교육기관이다. 테라와다 불교의 비구스님들을 교육하고 전법을 위한 전초기지로 이름 높은 대학으로 역시 스리랑카 정부가 공인한 정규대학이다.

코타바야 대통령은 역사적으로나 의미상에 중요한 이 두 대학의 운영 주체를 스리랑카 교육부가 맡으면서, 대학의 운영비에 국고가 투입도리 수 있음을 자문위원회에서 시사했다.

또한 정부 산하에 들어온 이상 국무장관의 감독 하에 교육공무원들의 활동 모니터링을 실시하라고 지시했다. 특히 이번 자문위원회를 통해, 그동안 다양한 부처에 분산되어 관리되어 오던 불교교육기관에 대한 단일한 부처의 직접적인 감독이 필요함이 언급됐다는 점에서 두 대학의 변화가 스리랑카 승가교육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김민재 객원기자

'스님 유튜버'들이 전하는 메시지는?

日불교, 새 포교형태 눈길
영상으로 불교 가치 전해

코로나 시국으로 실내 활동시간이 급증한 가운데, 간편하게 즐길 수 있는 유튜브 영상이 인기가 급증하고 있다. 한편 일본에서는 최근 스님들이 직접 유튜브 방송을 진행하거나, 영상을 제작해 올리는 '스님 유튜버' 늘고 있다. 지난 8월 8일 일본의 '일간 겐다이'는 스님 유튜버들을 집중 취재, 그들이 전하려는 메시지를 보도했다.

코로나19의 광범위한 급속전염으로, 일본에선 일찍부터 불교계의 유튜브 이용이 등장했다. 대부분의 사찰들이 유튜브 라이브를 이용해 조석예불을 중계하거나 법회를 진행했다. 최근에는 백중기간에 맞춰 천도재를 중계하는 사찰도 다수 등장했다. 이러한 가운데 스님들이 개인적으로 유튜브 영상을 업로드해 대중들과 소통하는 '스님 유튜버'들이 조용히 늘고 있다.



일본 사찰요리를 소개하는 카쿠호 스님의 채널. 사진출처=유튜브 캡쳐

최근 '요리스님의 부엌'이라는 채널을 시작한 아오에 카쿠호 스님이 대표적이다. 스님은 2005년부터 일본의 사찰요리를 대중화 하고, 해외에 전파하기 위해 노력중이다. 스님은 "요리는 유튜브에서 가장 인기 있는 콘텐츠입니다. 그러나 단순한 요리뿐만 아니라, 조리하면서 자신의 마음을 가볍게 할 수 있는 한 마디를 함께 전하고 싶다"며 채널을 시작하게 된 계기를 전했다.

카쿠호 스님은 미국유학 경험을 살려 영어로도 채널을 함께 운영하고 있다. 스님은 "재료를 준비하고, 조리하고, 요리를 만들어내는 모든 과정에서 느껴지는 모든 감각을 통해 삶과 마주하자는 메시지를 전하려한다"고 전했다.

한편 기존에 영향력을 발휘하던 스님들이 유튜브에 진입하는 모습도 보인다. DJ활동으로 유명한 토모미츠 가신 스님은 일본최대의 불교 페스티벌인 '코겐(向源)'의 운영자이다. 가신 스님은 "코로나19로 페스티벌이나 디제잉 등의 직접적인 삶의 보람이 없어졌다. 일상이 비일상이 되어버렸다. 이럴 때에 몸을 움직이지 않고, 변화를 바라는 타이밍에 아무 것도 하지 않는 것은 자신의 감성을 무디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며 유튜브에 진입한 계기를 전했다. 스님은 "스스로가 자신의 인생을 보람차게 하는 것을 만들어낸다. 또 이러한 결과를 사람들에게 보이고 모두가 즐거워질 수 있기에, 유튜브 활동은 새로운 '자리이타'의 실천을 느끼게 해준다"고 전했다.

가신 스님은 "지금 시대는 종교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물음이 높아지고 있다. 진정한 의미에서 사람들을 전염병에서 보호하는 것은 종교의 역할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종교가 보여줘야 하는 콘텐츠는 궁금증을 유발하고 이를 해결하는 것이 아닌 '자신의 내부에서 가치 있는 무엇인가를 찾아내는' 콘텐츠다"라고 강조했다. 박영빈 객원기자

英, 코로나 사태에도 법등 이어진다

요크 도심에 포교원 개원



영국 요크시 길리게이트에 새롭게 개원한 도심 포교원. 사진출처=더프레스

영국 잉글랜드 노스요크셔주에 위치한 요크시에 도심 포교원이 개원해 화제다. 지난 8월 24일 뉴질랜드 일간지 '더 프레스'는 영국 요크시 중심에 새롭게 개원한 불교 포교원의 소식을 보도했다.

요크 불교센터라는 이름으로 개원한 이 도심 포교원은 유럽불교공동체 중 하나인 '트리라트나(Triratnam, 삼보회)' 소속이다. 트리라트나의 오랜 회원이자 포교원장인 샤캬파다(Shakyapada)는 "트리라트나 불교는 아시아에서 시작된 불교의 관습과 경전을 서양인에게 친근한 방식으로 제시한다"고 밝혔다.

요크시 중심부에 개원한 이 도심포교원에선 불교교리와 명상을 가르치고, 공정거래 제품과 책을 판매하는 등의 사회적 기여를 위한 활동을 준비 중이다. 포교원측은 "명상시간은 모든 사람들이 언제든지 누구나 참여할 수 있게 문을 열 예정이다. 지역주민들이 명상과 불교에 대해 더 많이 알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고 전했다.

샤카파다 포교원장은 "우리 포교원은 불교적 계율을 강요하지 않는다. 이는 포교원의 불자들이 불교도임과 동시에 사회의 구성원으로 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의 삶을 더욱 윤리적으로 살기 위해, 계율이 지침으로써 친절과 자비, 만족, 성실, 자각의 다섯 가지 실천을 강조한다. 이는 불교의 전통적인 5계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포교원의 중심적인 사상을 전했다.

김민재 객원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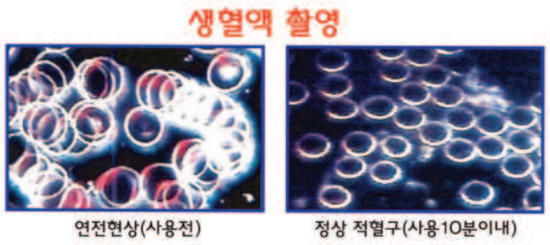
"비누로 손·얼굴 한번 씻었는데 피가 맑아지고 뇌파가 안정된다."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는 국가가 나서서 국민건강, 인류건강을 위하여 보호 지원 육성해야 되는것 아닌가요?

보약을 먹은 것도, 주사를 맞은 것도 아니고 BLOOD MATE® 단 한번 쓰고 20분도 채 안되어
"엉켜있던 적혈구가 정상 적혈구로, 불안정한 뇌파가 안정된다."

항균(폐렴균, 대장균, 포도상구균) 99.9%가 아토피, 검버섯, 무좀, 사타구니 가려움증, 뽀루지, 비듬, 여드름, 발뒷꿈치 각질등 각종 피부질환 개선은 물론 탈취 75%는 발냄새, 겨드랑이, 체취, 홀아비, 노인냄새 제거.

생혈액 촬영



연전현상(사용전) 정상 적혈구(사용10분이내)

뇌파 측정촬영



사용전 사용후

▶ 목·어깨·허리 통증과 무릎관절, 다리에 쥐나는 것이 없어지고 뇌파가 안정되어 정신이 맑아진다.
▶ 때를 일부러 밀지 않고 비누거품으로 마사지만 해주면 깨끗이 세정되는 특징과 피부가 투명하고 매끄러우며 스킨, 로션을 바르지 않아도 피부보습효과가 뛰어나다.

피가 맑아지고 뇌파가 안정되는 게르마늄 허브비누
BLOOD MATE®
항균 99.9% 탈취 75% 음이온 126cc 원적외선 방사 90.2%

BLOOD MATE® 강비누:35,000원2개 = 70,000원
BLOOD MATE® 순비누:15,000원2개 = 30,000원
ORAL MATE® 치 약:21,000원3개 = 63,000원
163,000원 ➡ SET 구매시 100,000원

BLOOD MATE®
CS137(세슘) 방사능 제거용
효과 :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피폭자(8개현 5,600만명)의 방사능 치유 목적에 의해 세계 최초로 개발된 일본 정부의 예산 집행을 기다리고 있는 제품.



BLOOD MATE® (비누), ORAL MATE® (치약)의 폐렴균, 대장균, 포도상구균에 의한 항균시험 시험성적서

검버섯 제거 현상



사용전 사용6개월 후

㈜에이스 삼강 02)353-9692 , 010-2791-3696 | 농협 301-0238-2776-51 예금주 : ㈜에이스 삼강

호법신장 위태천 '날개투구' 쓴 이유



조성금의
한국불화 원류를 찾아서

⑰ 위태천 관련 도상



동인도 팔라시기(8~9세기) 제작된 스칸다의 모습. 위태천의 기원인 스칸다가 공작을 타고 왼손에 창을 들고 있으며, 뒤로 공작의 깃털이 광배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



파주 보광사 대웅보전 판벽의 위태천. 전각을 보호하는 호법신의 모습으로 위태천을 상징하는 '날개투구'가 인상깊다. '날개투구'는 북송 이후 도상이 정형화 됐다.

몇 해 전 겨울, 러시아 에르미타주 미술관 학예사 키라 씨와 함께 조계사와 불교중앙박물관을 방문한 적이 있었다. 중앙아시아 불교미술 연구자인 그녀는 한국의 불교미술에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어떤 도상을 가리키며 그리스 신화의 전쟁과 승리의 신 니케(Nike)와 매우 흡사한 이 신상은 누구냐고 물었었다. 니케의 날개가 등이 아닌 머리에 쓴 투구에 달린 이 신은 과연 누구일까? 이미 독자들은 이 글을 읽으며 그 모습을 떠올리고 있을 것이다. 바로 '위태천(韋馱天)'이다.

위태천은 범어인 '스칸다(Skanda)'를 음차해서 사건타(私建陀)·건타(建陀)·사건타제바(私建陀提婆)라고 하며, 한역하여 위천(韋天)·위천장군(韋天將軍)·위장군(韋將軍)이라고 했으며, 조선시대에는 동진보살(童眞菩薩)이라고도 하였다.

위태천의 기원인 스칸다는 〈마하바라타(Mahabharata)〉와 〈라마야나(Ramayana)〉에 의하면 힌두교의 신 시바와 파르바티 사이의 장남으로 태어나 무한한 힘을 지니고 있으며, 전쟁의 신으로서 신들의 군대를 지휘한다고 한다. 스칸다는 머리가 여섯 개 혹은 머리 하나에 창이나 활과 화살을 지니며 공작을 '바하나(Vahana, 신의 탈것)'로 삼았고, 인도 전역에 그를 모신 사원과 신전에서 조각이나 회화로 발견된다.

스칸다가 불교의 신으로 차용된 설화를 살펴보면 석가모니께서 열반에 드신 뒤 발이 빠른 귀신(疾足鬼)이 부처님의 진신사리를 훔쳐서 달아난 일이 있었다고 한다. 그때 스칸다가 무한한 힘으로 귀신을 순식간에 잡아 와서, 모든 왕과 신들이 그의 행동에 깊이 감격했다. 이후 스칸다는 여래의 사리를 되찾아 온 뒤 스투파의 도굴을 막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부처의 뜻을 받들어 출가인을 보호하고 불법을 보호하는 호법신의 임무를 맡게 되었다.

스칸다는 인도에서 쿠마라(Kumāra)로도 불리우며, 음역하여 구마라천(鳩摩羅天) 혹은 위태천으로 한역되어 약 5세기경에 처음으로 중국에 소개되었다. 경전에 기록된 이른 사례를 찾아보면 인도의 대승불교 승려인 용수(龍樹, 150?~250?)가 쓴 〈대지도론(大智度論, K.0549, T.1509)〉의 한역본(402~406년)이다. 〈대지도론〉 제2권에는 "마라천은 진나라 말로는 동자(童子)이다. 닭을 높이 들어 올리고 요령을 잡고 있으며, 붉은 번을 쥐고서 공작을 탔다. 이들은 모두가 하늘의 대장"이라고 적혀 있다.

그리고 북량(北凉)의 담무참(曇無讖)이 5세기 초 한역한 〈대반열반경〉(大般涅槃經, K.105) 권7에 "보살이 천신에게 공양하기 위하여 천신의 사당에 들어갔으니, 그 천신은 범천·대자재천·위태천·가전연천이었다"는 내용이 있다.

이처럼 5세경에 처음 중국에 소개된 위태천은 아직 우리에게 익숙한 '신중도' 속의 날개 달린 투구와 갑옷을 갖춘 특별한 천신의 모습은 아니었다.

위태천이 특별한 천신으로서 신앙의 대상이 되기 시작한 것은 중국 당나라의 승려 도선율사(道宣律師, 596~667)가 저술한 〈도선율사통감록(道宣律師感通錄)〉에 의해서이다. 이 책에서 도선율사는 위태천을 '위장군'이라 칭하며, 남방 증장천왕(增長天王)의 여덟 대장 중의 하나이자 사천왕의 32장군들 중에서 가장 우두머리라고 서술하였다. 도선율사가 이처럼 위태천을 불교의 중요한 신으로 묘사하면서 중국 불교에서 호법신으로서 뿐만 아니라, 신앙의 대상으로도 자리 잡게 된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도선율사에 의해 7세기경부터 불교의 중요한 호법신으로 자리 잡기 시작한 위태천은 송대에 들어서 유행한 천태종에서 중요하게 꼽은 신중들에 포함이 된다. 나아가 사리와 사찰의 수호뿐만 아니라, 천태종의 기본 경전인 〈묘법연화경(妙法蓮華經=법화경)〉 사경이나 판본의 첫머리에 수호 신장으로 등장한다. 이러한 영향을 받아 우리나라도 고려 후기부터 경전의 앞부분에 위태천이 위풍당당하게 등장을 하며, 이후 조선시대에 이르기까지 종파와 경전의 종류에 상관없이 배치되게 되었다.

'스칸다' 음차·한역해 '위태천'으로
시바 장남으로 '공작'을 타고 다녀
불교 신장되고 신앙 대상으로 숭앙
북송 이후 '날개 투구' 도상 정형화
동방원정 후 "니케와 결합" 의견도

송대 이후 종파와 관계없이 위태천이 널리 숭상되었다고 하지만, 현존하는 유물은 많지 않다. 남송 시대(1127~1279)의 작품으로 일본 지온인(知恩院)소장의 '육도회(六道繪)' 중 천도(天道)를 묘사한 장면에 위태천이 그려져 있으며, 조각으로 일본 초류지(長瀧寺)에 위태천상이 있다.

지온인 소장 불화에서는 투구를 쓰고 갑옷을 입은 무장형 위태천이 묘사되어 있으나, 날개 달린 투구와 무기류는 갖추고 있지 않다. 반면에 초류지의 위태천상은 갑옷을 입고 새 깃털 장식이 있는 투구를 쓴 채 합장한 양 팔뚝 위에 보봉(寶棒)을 얹고 있는 형상으로 표현되었다. 남아있는 작품을 통해서 볼 때 위태천의 상징인 날개 달린 투구와 보봉이나 칼, 금강저 등을 든 모습이 남송 시기에는 완전히 정형화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도대체 위태천의 날개 달린 투구는 어디에서 왔을까? 여기에 대해서는 몇 가지 의견이 있다.

첫 번째, 북송(北宋, 960~1127) 초에 군대의 법제화를 위해서 편찬된 〈무경총요(武經總要)〉에 "장수들은 갑옷을 입고, 새 깃털 장식이 있는 투구와 흉갑을 두루 갖춘다"는 복장 규칙이 있는데, 이러한 세속의 복식이 위태천 도상의 형성에 작용한 것으로 보는 견해가 있다.

두 번째, 위태천의 기원인 스칸다의 바하나가 공작일 뿐만 아니라, 바람보다 빠른 군신이었던 원래의 모습을 잊지 않고 공작의 날개가 투구에 그리고 신들의 군대를 통솔했던 과거가 무장형 갑옷으로 남아있을 가능성이다.

세 번째, 기원전 3세기 알렉산더의 동방원정으로 그리스의 전쟁과 승리의 신 니케와 힌두교의 전쟁의 신 스칸다가 만나서 불교에 유입된 후 동쪽으로 이동한 결과라고 하는 의견도 있다.

위태천의 도상 형성과 관련된 위와 같은 추측 이외에 명확히 글로 기록된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목판본 〈대방광불화엄경보현행원품(大方廣佛華嚴經普賢行願品)〉의 서두에는 위태천을 묘사하고 행장을 상세히 적고 있다. 그 내용은 이와 같다.

"용과 하늘이 공경하고 찬탄하는 3주의 불법을 옹호하는 위태존천께서는 (중략) 석가여래 계신 때에 성도하여 호를 동진보살이라 받으셨다. 손에 팔만 사천 근의 금강보저를 들고 큰 서원 발하기를 만약 금강보저가 무너지면 동진의 몸도 부서지리라 하셨다. 석가여래께서 큰 서원 발하기를 부처께서 세간에 출현하실 때 불법을 구하고 보호하리라. 머리에는 봉황 깃 투구를 발에는 검은 신을 몸에는 황금 갑옷을 입었다."

결과적으로 보면 송대에 갑옷과 날개 달린 투구 그리고 무기류를 갖춘 위태천 도상은 원(元)을 거쳐 명대(明代)에는 확실히 정립하며, 천왕전(天王殿)의 입구나 내부에 반드시 안치하였다.

한국에서도 고려 시대의 목판화인 〈소자본묘법연화경(小字本妙法蓮花經, 1286년)〉 등에서 사경을 수호하는 호법신으로 등장하여, 조선 후기에는 위에서 살펴본 〈대방광불화엄경보현행원품〉 행장의 내용처럼 신중들의 대장격으로 자리 잡게 된다.

인도에서 날아온 스칸다가 부처님의 가피 안에서 천신에서 호법신으로 그리고 신중들의 주존으로 발전하는 과정을 살펴보았다. 이제 신중도 속에서 위태천을 보면 잘생긴 대장부가 날개 달린 투구를 쓰고 갑옷을 입은 모습이 멋져서 사경의 앞머리를 장식하거나 전각의 외벽에 그려지는 것이 아님을 알 것이다.

〈동국대 대학원 미술사학과 객원교수〉

(사)한국불교 금강선원 학인모집

불교통신대학·대학원
직장에서 가정에서 불교 교리 학습
대학장 / 대학원장 서무선
발심을 하고도 시간상, 거리상 제약으로 부처님 공부를 체계적으로 공부할 수 없는 불자들을 위해 통신과정을 마련하여 각자의 근기에 따라 학습 진도를 조절하면서 공부할 수 있도록 통신교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통신대학 | 기초과, 중등과, 고등과, 대학과 (각 6개월 과정 - 2년)
통신대학원 | 경, 율, 론, 선, 밀교 (대학원 - 각 1년 과정)
원서 접수 및 교부 | 수시접수

나란다삼장불교대학
강원 교육
학 장 성 덕
강원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스님과 출가를 원하는 불자 및 초심자를 위하여 의식을 포함한 기초과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 출가수행, 사암, 포교원운영 행정지원
● 출가 수행자를 위한 기숙사 완비
모집학과 | 사미과, 사집과, 사교과, 대교과 (각 6개월 과정)
원서교부 | 2020년 8월 부터 전형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
개 강 | 2020년 9월 7일 월요일 오전 10시
교 수 진 | 활안 한정섭스님, 호암스님, 서무선 박사님 외

불교예술대학
범패·작법무
교 수 해 사
불교예술의 계승 발전과 지도자 양성을 목적으로 교육하는 불교예술대학에서는 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이수자 해사스님을 교수로 초빙하여 불교예술의 진수를 배울 수 있다. 불교예술의 관심을 가지고 배우고자하는 학인들의 좋은 기회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강의내용 | 상단권공의식 원서교부 | 2020년 8월 부터
수업시간 | 매주 화요일 오후 3시 ~ 6시
개 강 | 2020년 9월 1일 화요일 오후 3시

고등강원
승가교육(전문강의)의 일환으로 집중교육을 실시합니다.
개강일시 | 2020년 6월~ 교육중
교육기간 | 6개월 (2020년 6월~11월 11주 교육)
장 소 | 제천 금강사 (☎043-646-3800)
교육내용 | ① 근본불교성전, 원각경 : 활안큰스님
② 금강경오가해 : 혜림스님
③ 유 식 : 서무선 학장님
문 의 | 금강선원 사무국 (☎ 02-969-2410)

서울시 동대문구 청량리 1동 51-14 | www.kumgangnet.com | Tel 02)969-2410, 4981 Fax 02)964-2433

교직자 양성 전문교육
佛教儀式(범음·범패)學人모집
본 대학 불교의식교육원에서는 학인을 모집합니다.

◈ 과정 (야간 및 통신생)

기본중급과정 (6개월)	사물(목탁, 요령, 태징, 법고)다루는 법, 도량석, 쇳송, 상단예불, 각단예불, 천수경, 행선축원, 불공시식 등
	상주권공, 대령관욕, 신중작법, 지장칭, 관음시식, 구병시식, 다비식 등
신행과정(1년)	기본·중급 수료자에 한함
특수작법(1년)	기본·중급 수료자에 한함

◈ 모집인원 : 30명(선착순)
◈ 강의일시 : 매주 화요일, 금요일 오후 5시 ~ 6시 30분(90분) 담임교수 원장직강
◈ 제출서류 : 입학원서 1통, 반명함판 사진 2매

※본원은 초종파 교육도량으로서 수료증을 수여하며, 승려 후보생의 수계득도, 포교원(사찰)창건의 지도와 편의를 제공합니다.
※초심자라도 여법하게 불교의 전통의식을 봉행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海東佛教儀式教育院
海東佛教梵音大學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7번길 45(낙원동 243-3) 탑공공원 뒷편 ☎(02)741-0495~6

공정사회 지름길, 중도정치



윤성식의
붓다의 정치학

⑰ 불교이상국가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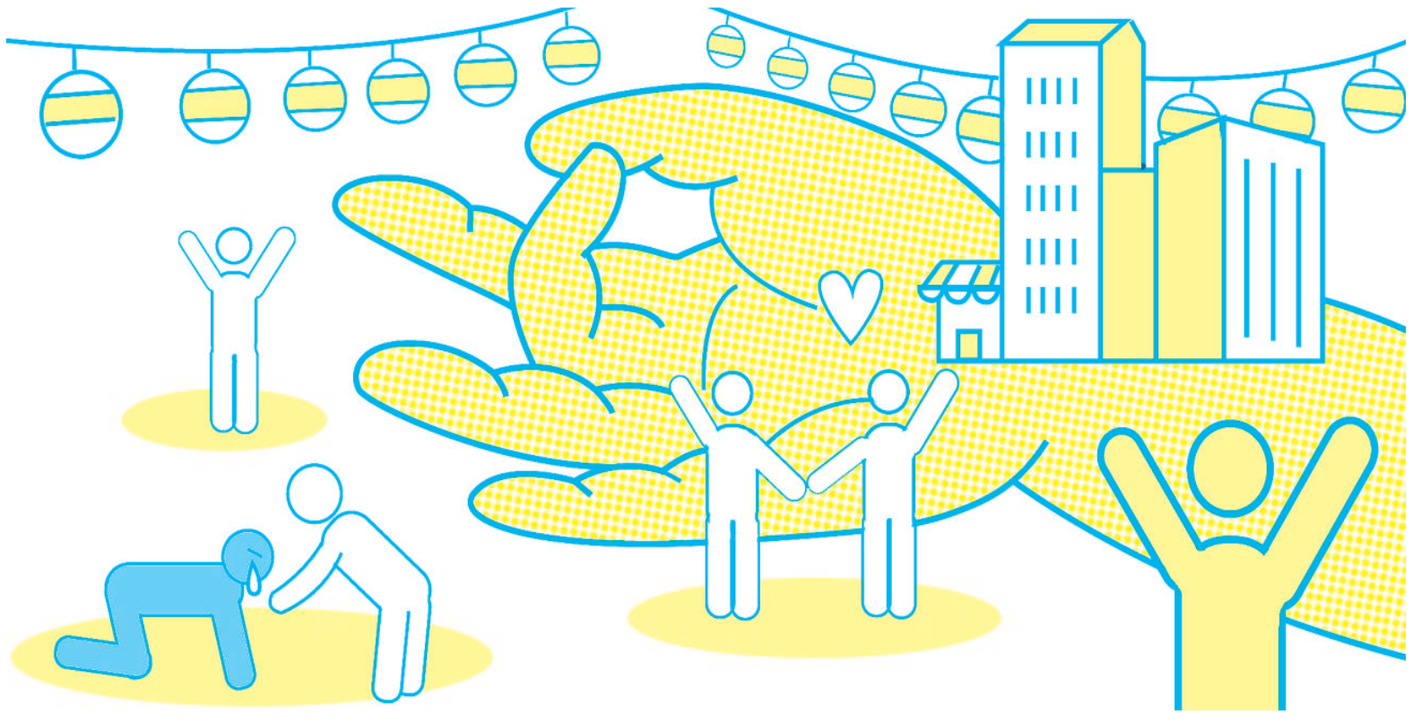


그림 · 박구원

불교국가 부탄은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로 알려져 있다. 과연 그럴까? 그들은 정말 세계에서 가장 행복할까?

행복을 어떻게 측정하는가에 따라 답은 달라진다. 부탄이 세계 1위로 선정되는 행복도 조사도 있지만 2019 유엔의 행복도 조사에 의하면 부탄의 행복지수는 세계 95위이다. 언론에 부탄의 유엔행복지수가 세계1위라는 기사가 제법 보이지만 잘못된 기사로 보인다. 지금이라도 인터넷에 들어가서 유엔의 세계행복보고서(WHR: World Happiness Report)를 검색하면 행복랭킹이 나오는데 부탄이 1등을 한적은 한 번도 없다. 아마 유엔의 행복보고서가 아닌 다른 보고서에 1등으로 나온 것을 유엔으로 착각한 듯 하다.

부탄이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라는 인식에는 잘못된 불교관이 자리잡고 있는지도 모른다. 부처님이 연기법을 설하신지 2,500년이 지나다보니 부처님의 불교와 동떨어진 불교가 지구 곳곳에 자리잡고 있다. 불교 아닌 불교는 이미 인간의 생각 속에 고정관념화 되어 있다. 부탄이 세계에서 가장 행복하다는 말을 듣는 순간 대부분의 사람들은 부탄의 특징을 불교의 핵심 내용으로 생각할지도 모른다. 부탄은 일년에 방문할 수 있는 외국인의 숫자를 제한한다. 말하자면 철저한 은둔 국가다.

부탄은 매우 가난하다. 아직 자본주의의 세례를 받지 못했으니 돈과는 담을 쌓은 듯 보인다. 부탄은 현대사회와는 매우 거리가 있는 과거 속에서 살고 있으며 독재에 가까운 왕정국가다. 사람들은 이러한 특징을 불교적이라고 생각하지만 이것은 오해다.

경전은 행복에 대해 두 가지 관점을 설한다. 첫째, 경전은 '살아 있는 모든 존재는 행복을 추구한다' 고 설한다. 이러한 서술은 좋다 나쁘다의 관점이 아니라 현상을 있는 그대로 묘사하는 문장이다. 즉 사람을 관찰해보니 다들 행복을 추구하더라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설한 것이다. 둘째, 경전은 '살아 있는 모든 존재는 행복하여라' 고 축복의 말을 설한다. 즉 행복은 좋은 것이라는 전제에 기초한 서술이다. 사람을 관찰해보니 다들 행복을 추구하지만 행복은 좋은 것이니 행복하라고 설하는 것이다.

국민을 관찰해보니 모두 행복을 추구하는 존재이지만 행복이 좋은 것이라면 민주국가는 국민이 행복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따라서 국민이 행복을 추구하고 정부는 국민이 행복할 수 있도록 정치와 정책을 펴야 한다. 온 나라의 국민이 나만 빼고 모두 불행한데 나만 홀로 행복해질 수는 없다. 세상이 지옥과 같은데 나 혼자만 행복하려고 해도 행복해질 수 없다. 불교의 연기법에 의하면 나라는 존재는 없다. 나와 너, 나와 세상, 나와 한민족, 나와 세계가 있을 뿐이며 이것 또한 고정된 실체가 없다. 그러므로 행복이란 다른 사람과 세상으로부터 유리되어 나 홀로 누릴 수 있는 어떤 독립된 영역이 아니다. 우리는 오직 공동체의 관점에서 행복할 수 있으며 우리가 만든 정치적 공동체가 국가다. 우리가 진정 행복하고자 한다면 나와 다른 사람, 나와 세상이 분리되어 있다는 기계론적 사고에서 벗어나서 국가적 차원에서 바라보아야 한다.

나부터 바뀌어야 한다는 말은 참 좋은 말이지만 별로 도움이 안되는 말이다. 세상이 바뀌어야 한다는 말도 연기법에 어긋나는 말이다. 나와 세상은 서로 주고 받으며 흘러가는 임시적 존재에 불과하므로 나도 바뀌고 세상도 바뀌어야 한다. 내가 바뀐다는 것은 세상이 바뀐다는 의미이고 세상이 바뀐다는 것은 내가 바뀐다는 의미이다. 행복 또한 이와 같다.

행복국가로 꼽히는 부탄
'가난하지만 행복하다'는
잘못된 불교인식 심어줘

불교서 말하는 행복 '정법'
'중도' 통해 정법가치 실현
억울함 없는 세상 나아가야

국가는 국민의 행복을 위해 나라를 어떻게 운영해야 할까? 〈증일아함경〉은 '바른 법(정법)으로 나라를 다스리라' 고 설한다. 정법국가(正法國家)란 어떤 국가일까? 〈장아함경〉은 '바른 법으로 나라를 다스려라. 부디 치우치거나 억울하게 하지 말라. 온 나라 안에 법 아닌 것이 행하지 않게 하라' 고 설한다. 정법의 핵심은 치우치지 않는 것이며 국민을 억울하게 만들지 않는 것이다.

정치와 정책은 치우치지 않아야 한다. 정부의 모든 결정과 행위는 치우치지 않아야 한다는 의미이다. 공정한 정치와 정책은 국민을 억울하게 하지 않는다. 정부의 모든 결정과 행위는 국민을 억울하게 해서는 안된다는 의미이다.

정법국가는 법치주의에 의한 정치와 정책을 펴는 국가이다. 법이란 무엇일까? 경전에서 법(法)은 모든 존재를 지칭하는 단어이기도 하지만 불교의 진리, 불교 교리를 의미하는 단어로도 쓰인다. 물론 법은 나라에서 정한 실정법을 의미할 수도 있다. 정법국가를 설명하는 경전의 구절 앞뒤를 살펴보면 나라에서 정한 실정법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법치국가는 실정법에 의한 국가를 말한다. 그러나 우리는 실정법을 넘어서 자연법의 세계에서 정법국가를 이야기해야 한다.

실정법은 나라에 따라 다르다. 어떤 경우는 악법으로서의 실정법도 있다.

국민의 의사를 반영하지 않고 독재자가 정한 실정법은 악법의 요소를 다분히 가지고 있다. 이에 반하여 자연법이란 인간과 사회에 보편타당성을 가지는 이성에 합치한 법이다. 이성에 의해 시대와 장소를 초월하여 누구에게나 어떤 국가에나 합리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법이 자연법이다.

예를 들어 남을 속여 재물을 취득하는 행위를 실정법에서 범죄로 규정하고 있지 않더라도 우리는 이성에 의해 사회에서 남을 속여 재물을 취하는 행위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이러한 행위는 실정법에 의해서 범죄가 안되는 나라에서도 자연법에 의해서는 범죄이다.

불교의 진리, 불교 교리는 자연법과 중복되는 부분이 많다. 불교 교리 중 인간 행위의 옳고 그름에 대한 내용은 그대로 자연법이라고 볼 수 있다. 불교의 오계는 실정법과 유사하다.

살인하지 말라, 남의 재물을 훔치지 말라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실정법으로 제정되어 있다. 살인과 절도는 실정법으로 제정되어 있지 않아도 자연법에 의해 금지되어야 하는 행위이다. 술 마시지 말라는 조항을 입법화하기는 어렵다. 미국에서는 한 때 금주법이 제정되어 술의 제조와 판매가 금지되었다. 음행을 하지 말라와 거짓말하지 말라는 계는 윤리 기준으로 존재할 수는 있어도 실정법으로 제정되기는 어렵다.

불교는 세간을 떠나 산 속이나 나무 밑에서만 통용되는 종교가 아니다. 불교의 지혜는 세상을 살아가는 중생에게 빛을 주어야 한다. 부처님이 제시하신 불교는 정치와 경제에도 길잡이가 될 수 있는 진리이다. 불교 교리의 일부분이 자연법의 일부와 중복된다고 보는 것은 이러한 관점에서 하나도 이상하지 않다. 따라서 정법국가에서 법이란 실정법은 물론이고 자연법 나아가서 불교의 진리 중 인간의 행위를 규율하는 내용을 포함한다고 보아야 한다.

자연법 사상에 의하면 잘못된 법은 국민이 지키지 않아도 되고 악법을 강요하는 정부에게는 국민이 저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흔히 소크라테스가 '악법도 법이다' 라는 말을 했다고 한다. 하지만 소크라테스가 등장하는 모든 문헌을 조사한 한 연구에 의하면 소크라테스는 그런 말을 한적이 없다. 소크라테스가 자신을 사형시킨 아테네의 부당한 법에 저항하지 않고 독배를 마셨기에 이런 말이 퍼져 있는지도 모른다. 비록 소크라테스는 독배를 마셨지만 악법을 용인한 적도 없으며 더구나 '악법도 법이다' 는 말을 한적도 없다.

부처님은 악법을 어떻게 생각하셨을까? 경전을 보면 부처님은 나라의 법을 지키라고 말씀하시고 나라의 법을 존중하였다. 출가자가 나라의 법을 어기면 어기지 못하도록 규율을 제정하셨다. 그러나 잘못된 나라의 법은 잘못되었다라고 지적하셨다. 따라서 '악법도 법이다' 라고 무조건 순응함으로써 독재자를 즐겁게 하는 것은 불교가 아니다. 악법은 고쳐야 하며 고쳐지지 않으면 저항해야 한다.

경전에 의하면 정법국가란 치우치지 않아야 한다. 흑백논리와 이분법을 벗어나 중도를 지향하는 중도국가가 불교의 이상국가다. 시장 만능주의도 아니고 정부 만능주의에 빠져 있지도 않아야 한다. 중도국가는 양극단을 떠나 중도를 추구하지만, 중간이나 평균을 고집하는 것 또한 극단이다. 시장과 정부의 중간이 중도일 때도 있지만 아닐 때도 있다. 때로는 양극단이 적절하게 균형을 이루고 있으면 불교가 지향하는 중도의 또 다른 모습이 될 수 있다.

시장자본주의도 절반, 복지도 절반인 국가가 중도라고 볼 수도 있지만 시장자본주의와 복지가 중도적 균형을 이루는 대안도 중도라고 할 수 있다. 덴마크는 기업에 대한 규제가 거의 없고 자유롭게 노동자를 해고 할 수 있어 노동 유연성이 매우 높다.

시장주의의 극단에 치우친 것으로 보이지만 복지 혜택이 북유럽 노르딕 국가답게 세계 최고 수준이다. 노동자가 해고되어도 거의 90% 수준의 최종 봉급을 실업수당으로 지원받는다. 시장만능과 정부만능이 공존하는 것으로 느껴지는 덴마크는 알고 보면 시장이라는 극단, 정부라는 극단을 벗어난 중도국가이다.

중도국가는 국가의 모든 구성원을 동등하게 고려하여 어느 하나에 치우치지 않는다. 국제관계에 있어서도 어느 한 국가에 치우치지 않지만 때로는 한 나라와 오랜 기간 동안 지속적 우호관계를 유지할 수도 있다.

중도국가는 중도적 균형과 조화, 협력적 공존관계가 특징이다. 대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 중산층, 서민이 모두 치우치지 않는 힘의 균형을 유지하면서 화쟁의 정신으로 통합을 이루는 나라이다. 개별 국민은 자신의 이익과 전체의 이익이 조화를 이루는 자리이타를 실현한다.

온 국민은 혼자 힘으로는 빛을 낼 수 없지만 다른 사람의 도움으로 빛을 내는 인드라망처럼 인터넷, 모바일, IT기술을 통하여 집단지능의 힘을 유감없이 발휘한다. 정치인은 국민이 선발한 평등한 국민으로서 국민의 행복을 위해 봉사한다. 불교 이상국가는 국민의 행복을 추구하는 행복국가, 법의 정신으로 나라를 운영하는 정법국가, 치우치지 않는 중도적 균형으로 다양한 힘의 조화를 꾀하는 중도국가이다.

〈고려대 명예교수〉

불교의식 수강생 모집

단기속성 3개월과정(58기)

본 대학에서는 일상적으로 상용화될 수 있는 불교의식 교육을 실시하고자 다음과 같이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1. 교육안내
- 개강일시 : 2020년 9월 7일 (월요일) 오후 3시 (목탁 지참)
- 교육시간 : 매주 월요일, 목요일 오후 3시~5시
- 출 강 반 : 서울 본 대학 (위치 : 서울 조계사 근처)
- 통 신 반 : 지방 거주자를 위해 통신교육을 실시함 (교재, 교육자료, 녹음CD 우송)

2. 교육내용
① 송 주 편 (도량석, 조석종성 등)
② 예 경 편 (상단예불, 조석예불, 각단예불, 향수해례, 사성례, 신중단 등)
③ 헌 공 편 (삼보통청, 중단퇴공, 관음, 지장, 신중청, 각종 불공의식 등)
④ 재의식편 (천도재, 49재, 시다림, 기제사, 명절제사 등)
⑤ 시 식 편 (관음시식, 화엄시식, 상용영반, 구병시식, 방생의식 등)

3. 신청방법 : 전화 또는 방문 접수 (우편, 팩스 접수 가능)
- 사찰 및 포교원에서 실제로 상용화되고 있는 의식방법을 집중 지도함
- 필요에 따라 일부 범음범패를 병용해서 의식 집전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지도함

☎ 02)733-1959 720-1836

깨달음의 법(法) · 전법하는 사(師)
한국불교법사대학
서울특별시 종로구 우정국로 45-3 (견지동, 한선빌딩 3층)
http://www.pubsa.net FAX : 02)737-5305



‘無字’ 화두 완성시킨 선지식



정운 스님의
인물로 읽는 禪이야기
⑰ 무문혜개



중국 호남성 류양 석상사 무문관에서 수행하고 있는 스님의 모습. 스스로를 가둬 정각을 얻는 무문관 수행은 무문 혜개의 저서 〈무문관〉에 어원을 둔다.

“봄에는 꽃이 있고, 가을에는 달이 있다/ 여름에는 시원한 바람이 있고, 겨울에는 눈이 있다/ 망상에 사로잡히지만 않는다면 모두가 좋은 계절이다.(春有百花秋有月 夏有凉風冬有雪 若無閑事掛心頭 便是人間好時節)” –〈무문관〉

이는 무문혜개(無門慧開, 1183~1260)의 선시이다. 어느 선사가 ‘꽃잎은 져도 꽃은 지지 않는다’고 하였다. 꽃잎은 떨어져도 꽃이라는 존재는 영원히 존재한다. 피고 지는 생멸하는 현상 속에 변치 않는 영원한 실재가 있다. 그 실재란 실상(實相)이요, 무아(無我)이며, 공(空)을 말한다.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은 생겨나 잠시 존재하다가 파괴되어 사라지게 되어 있다(生住異滅). 현실적으로 보이는 이 현상은 파괴되어 사라지지만 그 밑바닥에는 변치 않는 실재가 존재한다는 사실이다. 참된 실재를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보는 것, 분별심이 없이 실상을 관함이 깨달음의 경지이다. 혜개의 말대로 망상(생각)에 빠져 있지 않으면, 본질의 세계를 그대로 본다. 이에 소동파(1037~1101)도 “버들은 푸르고 꽃은 붉다”라고 하였고, 도오겐(道元, 1200~1253)은 “눈은 옆으로, 코는 세로로 달려 있다(眼橫鼻直)는 사실을 알았다”고 읊었다.

혜개의 행적

위 선시의 저자, 무문 혜개는 〈무문관〉을 통해 무자 화두를 체계화한 대표 선사다. 무자화두는 거론하지만, 정작 혜개에 대해서는 알려져 있지 않다. 혜개는 남송 시대 절강성(逝江省) 전당(錢塘, 현재 항주) 양저(良渚) 출신이다. 처음에는 천용광(天龍曠)에게 출가해 가르침을 받고, 선지식을 찾아 다녔다. 이후 양기파 강소성 만수사(萬壽寺) 월림 사관(月林師觀, 1143~1217)의 제자가 되었다. 사관은 혜개에게 무자 화두를 참구하라고 하였다. 혜개는 스승 문하에서 무자를 6년간 참구하면서 ‘만약 수면에 빠지면 내 몸을 태워버리리라’ 라고 맹세하였다. 혜개는 수면에서 헤어나지 못하면 선방 기둥에 머리를 부딪쳐가며 정진하였다.

신라의 자장 율사(590~658)도 깊은 산골에서 홀로 백골관을 닦으며, 작은 토굴을 지어 가시덤불로 둘러막고 벗은 몸으로 그 속에 앉아 수행했다. 조금이라도 움직이면 가시에 찔리도록 가시를 둘러친 것이다. 또 끈으로 머리를 천장에 매달고 수행했는데, 조금이라도 졸면 머리카락이 당겨져 바로 깰 수 있도록 자신을 경책하였다. 그러던 어느 날, 혜개는 점심공양을 알리는 북소리를 듣고 깨달았다(聞聲悟道).

“청천 백일에 천지를 진동하는 우레/ 대지 위 삼라만상의 눈을 활짝 열어주었네./ 모든 만물이 모두 머리를 숙이니/ 수미산이 뛰어올라 어깨 춤(三臺)을 추는구나.(靑天白日一聲雷 大地群生眼豁開 萬家森羅齊稽首 須彌勃跳舞三臺)”

혜개의 오도송 첫머리에 “청천백일에 천지를 진동하는 뇌성이 울렸다”고 표현하고 있다. 혜개의 정진이 북소리와 닿아 시절인연이 맞은 것이다. 혜개는 월림에게 오도송을 보였으나 월림은 ‘허튼 소리 하지 말라’ 며 내쫓았다. 혜개가 오히려 크게 할을 하자, 스승도 할을 하면서 스승과 제자가 정각의 도반이 된 순간이었다. 혜개는 사관에게 인가를 받고 법을 받았다.

혜개는 스승이 입적한 다음 해 1218년 35세 때 호주(湖州) 안길산(安吉山) 보국사에 머물며 개당 설법을 하였다. 이후 혜개는 강서성(江西省) 천녕사 · 황룡사 · 취암사 · 강소성 · 초산 보제사 · 평강 개원사 · 건강 보령사 등지에 머물며 선풍을 전개했다. 혜개가 머무는 곳마다 승려들 이외 재가자들까지 찾아왔다. 혜개는 1246년 64세에 황제의 명에 의해 호국인왕사를 개산하고, 이곳에서 선풍을 진작했다. 그런데 선객들이 너무 많이 찾아와 선사가 이를 피해 서호(西湖) 언덕에 은거했으나 학인들이 여기까지 찾아왔다. 어느 해 이종(理宗) 황제가 선사를 초청했는데, 마침 가뭄이 들어 법을 설해 마친 뒤에 비가 내리는 상서로운 일이 있었다. 황제는 혜개에게 금란가사를 하사하며, ‘불안선사(佛眼禪師)’ 라는 시호를 내렸다. 혜개는 1260년 78세에 탑을 세우게 하고, 감실을 완성한 뒤에 스스로 찬탄하며 말했다. “허공은 생(生)도 없고, 멸(滅)도 없다. 이런 허공의 이치를 체득하면, 허공은 별 것이 아니다.”

선사는 ‘지수화풍 4대가 꿈 · 환상 · 물거품 · 그림자와 같아서 78년 세월이 손가락 한번 튀기는 사이와 같다’ 고 하였다. 이렇게 게를 설해 마치고, 좌탈입망하였다.

南宋 이종황제에게 〈무문관〉 상진
‘無자’, 禪의 제1관문임을 강조해
선종 3대저서 평가… 韓서도 애독
한국 선지식들 무자 화두로 정각

〈무문관〉은 어떤 어록인가? 1228년 남송 이종황제의 즉위를 기념해 〈무문관〉을 상진하였다. 〈무문관〉은 ‘선종무문관(禪宗無門關)’ 이라고도 한다. ‘무문관’ 이란 ‘무(無)’ 자의 정확한 탐구만이 선문(禪門)의 종지(宗旨)로 들어서는 제일의 관문이라는 뜻이다. 이 책의 총론에 해당하는 제1칙이 ‘오로지 이 하나의 무 자가 종문의 일관(一關)’ 이라고 하였다. 〈무문관〉은 조주 무자를 드러내기 위함이고, 1칙 이외 47칙은 조주 무자를 철저히 투과했는지를 다시 점검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아도 다름없다.

혜개는 제자를 제접할 때, 제자들의 근기에 맞는 공안을 3~4개씩 부여했다. 그런 뒤에 제자의 수행을 점검해주었는데, 이런 체험을 바탕으로 46세(1228년) 때 동가(東嘉)의 용상사에서 선객들에게 강의하고, 집성해 모은 것이 〈무문관〉이다. 참 노사(老師)로서의 기량이 원숙기에 접어든 것을 집결한 것이 〈무문관〉이라고 볼 수 있다. 혜개는 옛 선인의 공안 48칙을 선별해 본칙과 혜개 자신의 수행 체험을 바탕으로 48개 화두에 평창(評昌)과 송을 붙였다.

선사는 〈무문관〉 서문에 ‘납자들이 내게 찾아와 고인(古人)의 공안을 가지고 진리의 문을 두드리는 기와조각과 같은 수행의 방편으로 삼도록 하여 근기에 따라 학인들을 지도하였다’ 라고 하였다. 편자는 혜개의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인 미연종소(彌衍宗紹)라고 하는데, 그에 대해 알려진 기록이 없다. 이 책은 1245년에 맹공이 다시 간행하여 남송 때 널리 유포되었다. 〈무문관〉은 〈벽암록〉 · 〈종용록〉과 함께 선종의 3대 저서요, 우리나라 선객들도 애독하는 선서이다.

무자 공안의 선종사적 의의

무(無)자는 간화선 선자들이 가장 많이 들고 있는 화두이며, 요긴한 화두이다. 선종사 측면에서 무자 화두를 살펴보자. 오조 법연은 〈법연어록〉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다.

“그대들은 오롯이 ‘무(無)’ 자를 생각하라. 그대들 가운데 이를 일삼아 공부하는 이가 몇이나 되는가? 있다면 누구 하나 여기 나와서 대답해 보라. 나는 그대들이 ‘있다(有)’ 고 말하는 것도, ‘없다(無)’ 고 말하는 것도 바라지 않는다. 또한 그대들이 ‘있는 것도 아니요(非有)’ , ‘없는 것도 아니다(非無)’ 라고 말하는 것도 바라지 않는다.”

또한 대혜 종고도 〈서장〉의 ‘강급사(江給事)에게 답하는 글’ 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다. “ ‘무(無)’ 라는 한 글자야 말로 분별을 타파하는 몽둥이다. 그것에 ‘있다’ , ‘없다’ 라는 판단을 하지 말라. 또한 이론적인 해석을 해서도 안된다. 오직 일편단심으로 걸을 때도 멈춰 있을 때도 누워 있을 때도 앉아 있을 때도 모든 정신을 집중하라.”

혜개도 〈무문관〉에서 “360골절 뼈마디, 8만 4천의 털구멍, 온몸, 온 정신에 똘똘 뭉쳐 하나의 의문 덩어리를 만들어 이 무자 화두를 참구하라”고 하면서 해탈의 대자재를 얻으라고 하였다. 혜개는 사량분별심을 경계하기 위한 것으로 무자 화두를 강조하였다. 또한 “참선하는 데는 모든 조사들이 경험한 바를 그대로 하는 것이 좋다. 무엇이 조사의 관문인가(?) 하면 ‘오직 무자’ 뿐이다. 이렇게 하면 역대의 조사들과 손을 잡고 듣거나 볼 수가 있게 된다. 이보다 유쾌한 일이 어디 있는가”라고 하였다. 곧 혜개는 대의(大疑)의 응결(凝結)과 이 의단(疑團)을 타파하는 두 단계의 수행 구조를 강조하고 있다.

다음 고봉 원묘는 〈선요〉에서 “의심은 믿음을 본체로 삼고, 깨달음은 의심을 작용으로 삼는다. 믿음이 충분하다면 의심도 충분하다. 참선하려면, 세 가지를 갖춰야 한다. 대신근(大信根) · 대분지(大憤志) · 대의(大疑)”라고 하였다.

대체로 무자 화두에 대한 선사들의 공통된 점은 (혜개도 그러지만) 무자에 큰 의심을 하고, 타파하는 2단계로 통일된다고 볼 수 있다. 이렇게 오조 법연에게서 무자 공안이 비롯된 이래 손자뻘 제자인 종고에서 발전되었고, 다시 혜개에 의해 완성되었다. 무자 화두는 인도선이 중국으로 유입된 이래 최고의 경지에 이른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무자 화두로 정각을 이루다

우리나라 선사들도 무자 화두로 정각을 이룬 선지식들이 많다. 고려 말기로 접어들면서 강화도 선원사를 중심으로 몽산 덕이(1231~1308)의 선풍이 수입되어 간화선이 토착화되었다. 덕이는 무자 화두 위주의 간화선 수행법과 깨달은 후에 선지식을 찾아 인가 받는 전통을 강조하였다. 이 점이 우리나라 조계 선풍의 큰 골격인데, 이는 덕이의 선풍에 영향을 받아서이다.

고려 말기, 태고 보우(1301~1382)는 무자 화두가 간화선 수행 중에 최고이며, 이 무자 화두가 간화선의 출신활로이며, 선이 지향하는 유일한 길이자 최고의 경지라고 강조했다. 보우와 같은 시대 인물인 나옹 혜근(1320~1376)도 네 가지(萬法歸一 一歸何處 · 父母未生前本來面目 · 是什麼 · 無字) 화두를 강조했는데, 이 가운데 무자 화두가 포함되어 있다.

서산 휴정(1520~1604)도 〈선가귀감〉에서 ‘조주 무자’ 를 중시하였다. 휴정과 사형제 간인 부휴 선수(1543~1615)도 “조주 무자에 의단을 일으켜 12시중에 오롯하여라. 물이 다하고, 구름이 다한 자리에 이르면 곧 바로 조사의 관문을 파하리라”라고 하였다. 〈선문수경〉의 저자 백파 긍선(1767~1852)도 임제의 3구에 입각해 선문을 판석했는 데, 마지막에 무자화두 드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또한 경허의 제자인 만공(1388~1463)은 무자로 정각을 이루었다. 만공은 공주 마곡사 토굴로 옮겨와 2년간 보림을 한 뒤에 스승 경허선사를 만났다. 만공이 자신의 수행 경지를 말하자, 경허 선사가 말했다. “아직 너는 완전한 깨달음을 이루지 못했다. ‘만법귀일’ 화두로는 진전이 없는 것 같으니, ‘조주 무자’ 를 들어라. 무문관을 통하여 다시 정각을 얻도록 하여라. 반드시 원돈문(圓頓門)을 짓지 말고 경절문(徑截門)을 다시 지어보도록 하여라.”

이렇게 스승이 다시 준 무자 화두를 붙잡고 씨름하던 중에 새벽 종소리를 듣고 홀연히 깨달아 경허 선사로부터 ‘만공’ 이라는 법호와 전법게를 받았다.

이와 같이 살펴본 대로 송나라 때, 오조 법연-대혜 종고-무문 혜개-몽산 덕이-고려-현대에 이르기까지 깨달음을 위한 최고의 기와조각이 무자 화두였다. 바로 이런 점에서 ‘무’ 자를 종문(宗門)의 일관(一關)이라고 부른다.

〈조계종 교육원 불학연구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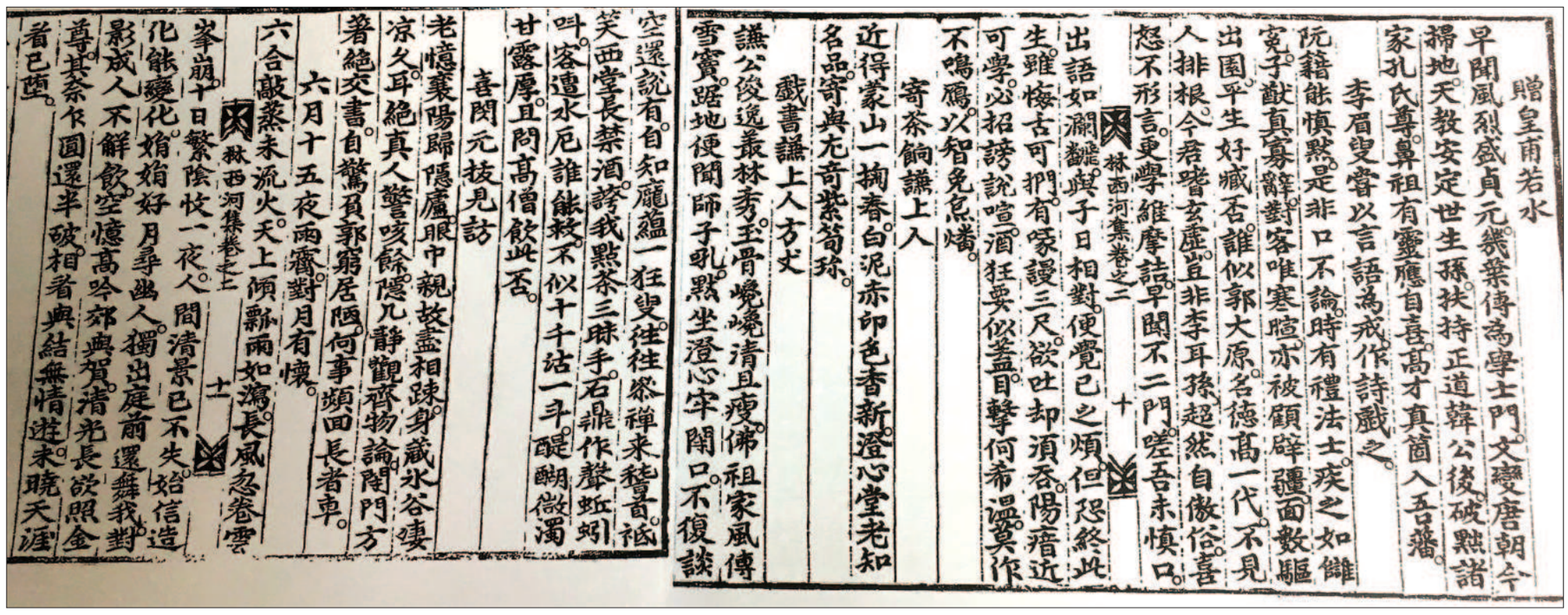
존경받는 수행자·문인, 茶로 깊은 교유



박동춘의

고려茶 문화, 그 아름다움

⑰ 고려시대 차 문화



12세기 문인 임춘의 시 〈희서겸상인방장〉이 수록된 〈서하집〉 2권. 수행이 깊고 차에 밝았던 지겸 스님의 면모가 잘 드러나 있다.

고려 후기 차 문화는 다시 전기와 후기로 나눌 수 있다. 특히 전기의 차 문화와 무신 정권기, 그리고 원의 간섭기의 차 문화의 흐름은 다른 양상을 보이는데, 관료 문인들이 차의 향유층으로 부상한다. 무엇보다 고려 후기 차 문화의 흐름 중에서 문인들이 차 문화를 주도했던 승려들과의 교유를 통해 사원이 주관하는 명전(茗戰)에 참여하거나 귀한 차를 접할 수 있었던 창구였다. 따라서 사원과 승려들은 실제 고려 시대 차 문화를 생성해낸 그룹이었음이 드러난다. 이런 정황은 12세기 인물 임춘(林椿 1148~1186)의 〈기차향겸상인(寄茶餉謙上人)〉에서 확인된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근래 몽산차 한 움큼을 얻었는데
(近得蒙山一掬春)
붉은 도장 찍힌 백니차는 색과 향이 싱그럽네
(白泥赤印色香新)
징심당의 늙은이 명품을 아시기에
(澄心堂老知名品)
더욱 기이하고 진귀한 자순차를 보냈구려
(寄與尤奇紫筍珍)

윗글에서 임춘이 말한 겸상인(謙上人)은 어떤 인물이기에 송 황실에 공납되는 극품의 자순차를 접할 수 있었던 것일까. 아마 겸상인은 고려 왕실과 깊은 관련이 있는 인물로, 승려임이 분명하다. 상인이란 승려를 지칭하는 것이며, 징심당(澄心堂)도 마음을 맑고 깨끗하게 하는 집이란 뜻을 함의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정병삼 교수의 〈한국불교사〉를 살펴보면, 강종 2년(1213)에 지겸을 왕사(王師)로 추천하면서 이규보의 〈정각국사비(精覺國師碑)〉에 "양종오교에서 왕사의 대임을 맡을 자는 지겸 밖에 없다"라는 내용이 나온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겸상인은 지겸일 가능성이 크기에 임춘에게 몽정산에서 나는 자순차를 보낼 수 있었을 것으로 생각한다.

한편 임춘이 '겸상인'에 받은 몽정 자순차는 송 황실용 어원에서 생산되는 귀품의 차이다. 이런 차를 접할 수 있는 건 고려 왕실이나 혹은 송 황제와 관련이 있는 수행승에게 하사되는 경우가 종종 있지만 그리 흔한 사례는 아니다. 따라서 지겸은 왕실로부터 공양받은 귀중한 차를 임춘에게 보냈던 것이며 왕실에서 하사한 차이므로 붉은 도장이 찍힌 백니(白泥)차였던 것이다. 그런데 백니란 무슨 차일까. 이는 12세기에 유행했던 연고차(研膏茶)로, 하얀 차 거품이 나는 백차이다. 백차는 어원에서나 생산되는 귀중한 차였고 가장 맛과 향이 좋은 차 중에서도 최고로 치는 차인데, 송 황실에서 하사한 차 이외에도 고려에서도 이런 차가 생산되어 향유되었다.

한편 임춘이 지겸이 수행이 깊고 차에도 밝았다는 점을 재차 언급한 시는 〈희서겸상인방장(戱書謙上人方丈)〉이다. 임춘의 〈서하집〉 권2에 수록된 이 시는 12세기 사원의 음다의 풍모를 가장 잘 드러낸 시라고 할 수 있는데, 지겸의 인품과 격을 이렇게 노래했다.

뛰어나신 겸공은 총림에서도 으뜸이라
(謙公俊逸叢林秀)
고결하고 꼿꼿한 모습, 맑고도 여위였네
(玉骨巉巉清且瘦)
부처님의 가풍이 설두에게 전해져
(佛祖家風傳雪竇)
수행하시는 곳, 문득 사자후가 들리네
(踞地便聞師子吼)
잠잠히 선정에 들어 입을 닫은 채
(默坐澄心牢閉口)
공이나 유(有)를 더는 말하지 않지만
(不復談空還說有)
올곧은 늙은 방거사가(自知龐蘊一狂叟)
이따금 참선하러 와서 머리를 조아리네
(往往參禪來稽首)
오랫동안 술을 금한 서당을 비웃었더니
(祈笑西堂長禁酒)
내게 삼매의 솜씨로 차 내는 걸 뽐내는구려
(誇我點茶三昧手)
돌솥에 물 끓는 소리(石鼎作聲蚯蚓吟)
물고문당할 객을 구할 이 누군가
(客遭水厄誰能救)
일만 전으로 한 말 술을 산 것과는 같지 않지만
(不似十千沽一斗)
조금 진한 제호 같은 차, 감로보다 짙구려
(醍醐微濁甘露厚)
또 묻노니, 고승께서도(이것을) 마실는지
(且問高僧飮此否)

관료계 문인들 중심으로
차 향유층 새롭게 부상
차문화 주도한 승려들과
교유하며 귀한 차 경험
지겸 스님 · 임춘 대표적

윗글은 7언 율시로 16구로 구성되어야 하지만, 현존하는 건 15구만 남아 있어 1구는 빠진 채 전해지고 있다. 그러므로 전문을 파악하기는 어렵다 할지라도 그 규모와 당시의 차 문화의 특징이나 정황을 파악하기엔 무리가 없어 보인다. 아무튼 이 시는 임춘이 방장 겸 상인을 찾아갔을 때, 차를 대접받은 정황을 읊은 것이다.

그의 시엔 지겸 스님이 총림에서도 우뚝한 고승으로 명망을 지녔기에 공과 유무에 회통하신 수행승으로 묘사했고, 아울러 차를 잘 다루는 수행승으로 표현했다는 점이다. 그뿐 아니라 '겸상인방장'이란 표현했기 때문에 이미 지겸 스님이 방장으로 추앙받는 고승이었음을 드러낸다. 하지만 지겸이 1213년 왕사로 추대되었기 때문에 임춘은 지겸이 왕사에 오르는 걸 보지 못했던 듯하다. 그는 지겸상인에 대해 방거사도 예를 갖추는 인물로 묘사하고 있는데, 실제 방거사(?~808)는 어떤 인물인가. 바로 당대 형양 사람으로 석두(石頭)에게 나아가 공부함으로써 선지(禪指)를 깨우친 선각자이다.

그의 이름은 온(蘊)이며 도현(道玄)이란 자를 썼다. 그러므로 방 거사처럼 도가 높은 수행자가 '겸 상인'을 찾아와 머리를 조아리며 예를 표했으니 이는 지겸 스님이 얼마나 추앙받는 수행자인가를 에둘러 표현한 것이라 하겠다. 한편 임춘의 이다시는 고려 시대 차 문화를 생성하고 이끈 그룹이 사원과 승려들이었음을 재삼 확인해 준 자료이다. 그런데 임춘은 어떤 삶을 살았던 인물일까. 한마디로 그는 울분과 실의, 가난으로 점철된 삶을 살았다. 한 때 문인으로 이름을 날렸던 시기도 있었지만 무신 정권이 들어서자 혹독하게 정치적 탄압을 받았다. 고려 건국에 공이 있어 대대로 공음전(功蔭田)의 은택을 입었던 그의 집안이지만 이마저 탈취를 당하고 겨우 목숨을 부지한 채, 타향을 떠돌며 불우한 생을 살았다. 세상이 어지러울 때 이인로 등과 죽림고회(竹林高會)를 결성, 시와 술을 즐기며 무신 정권기의 불만을 토로하고 세상을 탄식했다. 이런 고난의 세월을 보내던 그에게 물심양면으로 도움을 준 건 그와 교유했던 승려들이었다. 특히 요혜(了惠) 수좌는 가난한 그에게 양식을 보내 위안을 주었는데, 이는 그의 시 〈요혜가 양식을 베풀어 줌을 사례하며(謝了惠首座惠糧)〉에 드러나는데, 그 일부를 소개하면 이렇다.

오늘 아침 문 두드려 새벽잠을 깨우더니
(今朝打門驚周公)
좋은 쌀 몇 곡을 가득 얻었네(乞與長腰盈數斛)
서둘러 아낙 불러 쌀을 씻어서
(急呼爨婦淅洗塵)
옹기솥에 앉히니 막 밥이 익는구려
(厚埋飯甕炊方熟)
허리끈 풀고서 배불리 밥을 먹고
(緩帶甘飡若塼塹)
일곱 잔 좋은 차를 가득 마시자
(七椀香茶飮更足)
솔솔 맑은 바람이 겨드랑이에서 일어나
(習習淸風兩腋生)
이 세상 벗어나 하늘을 나는 듯하구나
(乘此朝眞謝塵俗)

윗글은 아마 무신 난을 만나 개경에서 5년간 은둔하다가 영남으로 피신, 타향을 떠돌던 그가 과거 준비를 위해 다시 개경으로 상경한 시기의 시로 보인다. 이 무렵 그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던 시기였을 것인데 이때 요혜 수좌가 그에게 식량을 보낸 것으로 추정된다.

그런데 얼마나 배고픔이 컸으면 급하게 밥을 하는 아낙을 불러 밥을 짓게 했을까. 허리끈을 풀어 제치고 배불리 밥을 먹던 그의 모습이 그림처럼 그려냈고, 곤궁한 삶 속에서도 차를 즐긴 그의 일상이 고스란히 서술되었다는 점이 눈에 띈다.

그의 시 말미에 "일곱 잔 좋은 차를 가득 마시자(七椀香茶飮更足)/ 솔솔 맑은 바람이 겨드랑이에서 일어나(習習淸風兩腋生)"다고 한 내용은 원래 당나라 노동의 〈주필사맹간의대부신차(走筆謝孟諫議大夫新茶)〉에서 영향을 받은 것인데, 이를 〈다가〉, 혹은 〈칠완다가〉라고도 한다. 차를 마신 후에 몸과 마음에 나타나는 변화를 가장 아름답고 정확하게 서술한 다시로, 중국뿐 아니라 한국, 일본의 차 문화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노동의 〈칠완다가〉의 일부분을 소개하면 "첫 잔은 입술을 적시고(一椀喉吻潤)/둘째 잔은 괴로운 고민을 없애고(兩椀破孤悶)/ 셋째 잔은 거친 마음 헤치니 (三椀搜枯腸)/ 오천 권의 문자가 있을 뿐이라(唯有文字五千卷)/ 넷째 잔은 가볍게 땀이 나니(四椀發輕汗)/다섯째 잔은 몸을 가볍게 하고 (五椀肌骨輕) /여섯째 잔은 신령한 신선과 통하며(六椀通仙靈) /일곱째 잔은 마시지도 않았는데,(七椀吃不得也)/겨드랑이에서 스멀스멀 바람이 이는 걸 느끼겠네(唯覺兩腋習習淸風生)"라고 했다. 실제 좋은 차를 잘 끓여 마시면 몸과 마음이 가벼워지는 변화를 느낀다. 더구나 어려운 시절을 감내했던 임춘에게는 차의 공력이 더욱더 절실했을 것이다.

〈(사)동아시아차문화연구소장〉

붓다북 불교종합쇼핑몰 Buddha Book



지면에 진열된 상품들은 붓다북에서
미니불상으로
검색해서 구입이 가능합니다.

www.buddhabook.co.kr

서울 성북구 보문로 38길 11 동일하이빌 지하 1층 (주) 운주사 Tel. 02-953-7181

민속죽염 30년 전통
조상의얼과혼이담긴 우리민족의대표죽염

인체건강의 4대 요소는 "맑은 물, 맑은 공기, 맑은 음식, 질좋은 소금" 인데 이 중 "질 좋은 소금" 자색죽염은 총 아홉 번의 가열 과정을 거쳐 독성의 완전 제거와 약성의 완전 합성이 이루어지며 마지막 아홉 번째는 극강한 열에 의한 용융 과정을 거쳐 탄생된 품질이 가장 우수한 죽염입니다. 이 죽염은 다음과 같은 기능이 있기에 일반인 및 환자들에게 꾸준한 섭취를 권장 할 수 있는 좋은 식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생명 에너지를 굳건히 지키면 약이 입에 이르기 전에 병이 낫는다.
환인동 요가마을

① 강한 해독작용을 하며 간 기능을 좋게 한다.
② 소염작용을 하며 잇몸과 치아를 튼튼하게 해 준다.
③ 위장을 튼튼히 하며 식욕을 촉진시킨다.
④ 정혈작용 등 체질개선에 도움을 준다.

"죽염을 꾸준히 섭취하시면 인체의 자가 면역력이 높아져 감기 등 기타 질병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 9번 구운 민속죽염 ◈

가루자죽염	125g	40,000원
가루자죽염	230g	73,000원
알갱이자죽염	125g	43,000원
알갱이자죽염	230g	78,500원
휴대용 알갱이 자죽염	20g	7,500원

※단체 선물용으로 적합합니다.

◈ 2번 구운 민속죽염 ◈

◆ 음식조리용 · 양치용 · 피부미용

보급형 민속죽염	500g	18,000원
	250g	9,000원

◈ 자죽염 구매시 사은품 「휴대용 알갱이 자죽염 10g」 증정. 회원우대 ※구입가 5만원 미만은 배송비 3천원 적용됩니다.

주문 및 상담 010-2823-0483 입금 : 농협 150012-56-086122 예금주 : 김용희(민속죽염)
경북 영덕군 지품면 속곡동 54번지 www.msjy.co.kr

설사 닦아 얻어도 모두 생사의 業



지안 스님의 임제록 강설

㉝ 본래의 道

"여러분들이 제방에서 도를 말하면서 '닦을 것이 있고, 깨달을 것이 있다' 고 하지만 착각하지 말아야 한다. 설사 닦아 얻는 것이 있다 하더라도 모두가 생사의 업일 뿐이니라. 여러분들이 육도만행(六度萬行)을 빠뜨리지 않고 닦는다 해도 나는 모두 업을 지을 뿐이라고 보느니라. 부처를 찾고 법을 찾는 것도 지옥의 업을 짓는 것이니라. 보살을 구하는 것도 또한 업을 짓는 일이며, 경전을 읽는 것도 업을 짓는 일이니라.

부처와 조사는 할 일이 없는 사람이니라. 그렇기 때문에 번뇌가 있고 하려는 것이 있거나(有漏有爲) 번뇌가 없고 하려는 것이 없는 것(無漏無爲)이 모두 청정한 업이 되는 것이니라.

어떤 눈먼 무리들은 밥 먹고 나면 바로 좌선하고 관행(觀行)을 하며, 망념의 번뇌를 꽉 붙잡아 일어나지 못하게 하며 시끄러운 곳을 싫어하고 조용한 곳을 찾으나 이것은 모두 외도의 수법이니라.

조사가 말했다. '그대가 만약 마음을 머물게 해 고요함을 살피고 마음을 일으켜 밖으로 비추고 마음을 거두어 안으로 맑게 하며 마음을 한곳에 집중하여 선정에 들려 한다면 이와 같은 것들은 모두 조작하는 것' 이라 했느니라.

여러분이 지금 이와 같은 법을 듣고 있는 그 사람을 어떻게 닦으며, 어떻게 깨닫게 하며, 어떻게 장엄할 수 있겠는가? 그 사람은 닦을 수 있는 물건이 아니며, 장엄할 수 있는 물건이 아니니라. 만약 장엄할 수 있다 한다면 일체의 모든 물건도 모두 장엄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착각하지 말아야 하느니라."

〈임제록〉에서 말하는 임제의 법문은 매우 파격적이다. 어떤 면에서는 불교의 수행에 관한 상식마저 엎어버린다. 이 장에 와서 하는 말도 상식을 뛰어넘는 이야기다. '도는 닦을 것도 없고, 깨달을 것도 없다.' 왜 이렇게 말하는가? 도(道) 자체에서 보면 닦을 것이 없다. 깨달음도 깨달을 것이 없다. 마치 눈이 눈을 보지 못하는 것처럼 도에 들어가 버리면 도가 안 보이는 것이다. 도가 도를 닦는다 할 것이 없다. 깨달음도 마찬가지다. '부처를 부처다 하면 부처가 아니다' 는 말은 자주 써온 말이다. '선(禪)을 선(禪)이라 하면 선이 아니라는 말도 해 왔다. 노자의 〈도덕경〉에도 '도를 도라 하면 본래의 도(常道)가 아니다' 했다. 이러한 말들은 도에 계합(契合)된 경지에서 하는 말이다.

〈원각경〉에는 "일체중생이 모두 원각(圓覺)을 증득했다(一切衆生 皆證圓覺)"는 구절이 있다. 원각을 증득했다는 말은 이미 깨달아 있다는 말이다. 규봉 종밀(圭峰 宗密)이 원각경 소(疏)를 지으면서 이 구절의 증(證)자를 갖출 구(具)자의 잘못이 아닌가 의심된다는 사견(私見)을 내어 소에 적었다가 나중에 임제종 황룡파의 진정 극문(眞淨 克文)으로부터 '깨진 범부의 누린내 나는 놈' (破凡夫 腥臊漢)이라는 혹독한 비난을 받았다는 일화가 있다.

상식적인 지견(知見)으로 깨달음에 계합(契合)되기는 불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선(禪)의 입장이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을 일으키고 생각을 움직여서(起心動念) 고의적으로 무엇을 하겠다는 것을 임제는 철저히 부정해 버린다. 모두가 업을 짓는 일일 뿐이라고 말한다. 임제는 육도만행을 해서 부처가 되고자 하는 것은 죽은 송장을 타고 바다를 건너려고 하는 것과 같다는 비유를 들어 본분공부(本分工夫)의 극칙(極則)을 드러내는 말도 하였다.

깨달음의 순간을 '앞생각 뒷생각' 이 끊어지는 것이라고 표현해 놓은 말도 있다. 일종의 돈오(頓悟)의 경지를 설파해 놓은 말이라고 볼 수 있는 이 말은 잠을 자던 사람이 잠을 깰 때 순간적으로 깨는 것이지 깨기 전에 미리 잠을 깨어야겠다고 생각하고 깨는 것이 아니란 말이다.

중생이 수행을 완성해서 부처가 된다는 지극히 상식적인 말을 고차원적으로 비약시켜 이미 부처다 더 이상 부처 되려고 할 것이 없다는 식으로 말하는 여기에 공부의 핵심 묘미가 있다고 한다.

조사의 말을 소개하는 조사는 하택신회(荷澤 神會)다. 신수(神秀)의 점수를 비판하면서 한 말로 알려져 있다.

〈조계종 고시위원장〉

모든 사물이 '空'임 알아야…



세상 속 경전읽기

㉝ 석공관(析空觀)

마음의 병은 내가 아닌 것을 나와 동일시하는 습관에서 기인한다. 우리의 개아는 우리가 보고 접촉할 수 있는 사물들, 곧 우주의 모든 조각들을 자기의 것처럼 여기려고 한다. 이렇게 사물을 소유함으로써 우리의 참 자아는 점점 자신으로부터 소외된다. 그리고 소유물(이라 여겨지는 것)에 집착하는 동안 그에 상응하는 두려움이라는 벌칙을 받게 된다.

붓다는 이러한 집적현상[集積現象 · 사물들에 집착하여 내 소유물이라고 쌓아가는 현상]을 제거함으로써만 생사윤회의 굴레에서 빠져나올 수 있으며 건강을 회복할 수 있다고 가르쳤다.

건전한 계율을 실천하면 소유물이 우리에게 지운 짐의 무게가 어느 정도는 경감된다. 불교에서는 '부유' 보다는 '청빈' 을 소중히 하며, 받기보다는 주기[보시 · 布施]를 좋아하는 등, 가능한 한 소유를 줄이도록 가르침을 받는다. 게다가 선정[定]의 수행도 그런 방향으로 행해져, 상식적이고 감각적인 세계의 제법(諸法)이 망상이고, 거짓이고, 꿈같이 여겨지므로 이들이 궁극적으로 실재한다는 믿음을 털어버리고, 나와 동일시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는 지혜[慧]가 계발된다. 이러한 지혜만이 오래된 습관으로 굳어진 우리 생각으로부터 개아가 있다는 망상을 몰아내고 (인연생멸을 떠난) 무위(無爲)의 세계로 이끌 수 있다.

무위의 세계는 (인연생멸하는) 유위(有爲)의 세계와 구분된다. 우리가 고통을 겪는 것은 유위(인연생멸의 조건이 지어진 것)의 사물들을 우리와 동일시하기 때문이며, 그 사물들에 일어난 일을 우리에게 일어난 일처럼 행동하기 때문이다. 지속적인 수행으로 우리는 유일하게 지고의 가치를 지닌 무위(조건지어지지 않은 것)를 제외한 모든 유위의 사물들을 거부하고 버려야 한다. 다시 말하면, 모든 유위를 나와 동일시하지 말자는 것이다.

사물을 나와 동일시하기 위한 전제는 사물이 실재한다는 믿음이다. 사물이 실재하지 않는다는 확신이 있으면 나와 동일시하지 않기가 훨씬 수월해진다. 사물 자체가 공(空)하다는 당체즉공(當體卽空)을 깨닫기 전에, 사물을 분석해서 사물이 실재하지 않는 공(空)임을 이해하는 방법이 석공관(析空觀)이다. 금타 화상이 짓고 청화 스님이 엮은 〈금강심론(金剛心論)〉의 '석공관' 은 다음과 같이 시작된다.

"수행자는 먼저 해와 달과 별들[日月星宿] 및 산과 내와 대지[山河大地] 등 삼라만상(森羅萬象)과 사람과 짐승 내지 꿈틀거리는 일체중생(一切衆生)을 남김없이 파괴하여 '문틈의 햇살에 비치는 티끌[日光塵]' 화(化)하고 점차 나아가서 묘유의 극치인 인허(隣虛)의 백길이나 되는 장대 위[百尺竿頭]에서도 오히려 한걸음 더 전진하여 진공(眞空)의 경계에 도달할지니…"

〈金剛心論 第1編 第2章 菩提方便門 第6節 析空觀 중에서〉

우주 만물 곧 무생물[無生物 · 무정중생(無情衆生)]과 생물[生物 · 유정중생(有情衆生)]을 부수어 가루를 만들되, 문틈에 햇살이 비칠 때 부유물로 보이는 정도의 가루[日光塵, 隙遊塵]로 만들고, 더 부수어 우모진[牛毛塵 · 분자], 양모진[羊毛塵 · 원자], 토모진[兎毛塵 · 전자각(電子殼)], 수진[水塵 · 원자핵], 금진[金塵 · 원자핵의 본질], 미[微 · 식립(識粒, 식의 알갱이), 천안(天眼)으로만 보임], 극미[極微 · 색구경(色究竟, 물질의 끝), 법안(法眼)으로만 보임]로 쪼개고, 묘유의 극치인 인허[鄰虛 · 물질과 비물질의 경계, 염심근(染心根, 오염된 마음의 뿌리), 혜안(慧眼)으로만 보임]의 백척간두에서도 진일보하여 진공원명[眞空圓明 · 진공의 온전한 빛, 불안(佛眼)으로만 보임]의 경계에 도달하는 것이 석공관이다.

〈배광식 서울대 치의대학원 명예교수〉



신해행증으로 본 백문백답

㊾ 닦음의 길 19

염불, 현재의 마음이 부처

〈念佛〉

법회의식 가운데 정근(精勤)이라는 순서가 있다. 이는 쉬거나 게으름을 피우지 않고 열심히 노력한다는 뜻인데, 대개 법문이 끝난 후반부에 진행되는 의식이다. 이때가 되면 의식을 집전하는 사람이 염불(念佛)을 시작하며, 법회에 참가한 불자들은 염불을 따라하면서 절을 하거나 불전함으로 나아가 각자 준비한 보시금을 내고 자기 자리로 돌아온다. 정근은 법회가 열리는 법당의 주불(主佛)에 따라 그 대상과 내용이 달라진다. 만약 대웅전에서 법회가 열리면 '삼계의 도사이자 사생의 자애로운 어버이며 우리들의 스승이신 석가모니 부처님께 귀의합니다(南無三界導師 四生慈父 是我本師 釋迦牟尼佛).' 로 시작하는 석가모니불 정근을 한다. 법당이 무량수전이라면 아미타불 정근을, 관음전에서는 관세음보살 정근을, 지장전이면 지장보살 정근을 한다.

염불은 가장 대중적인 수행이라 할 만큼 불자들 사이에서 널리 실천되고 있다. 평소에도 손으로 염주를 굴리면서 '나무아미타불' 을 염하는 이들을 심심찮게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염불을 하는 목적은 무엇이며, 불교적으로 어떤 의미를 지니는 것일까? 염불의 목적은 아미타불이나 관세음보살의 본원력(本願力)에 의지해서 서방정토(西方淨土)에 태어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염불하는 대상이 석가모니불보다는 아미타불이나 관세음보살인 경우가 많다. 일반인들에게도 널리 알려진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에는 아미타불과 관세음보살에게 귀의함으로써 종교적 목적을 이루고자 하는 바람이 담겨있다.

염불은 내용에 따라 몇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는 가장 일반적으로 행해지는 칭명염불(稱名念佛)이다. 글자 그대로 아미타불이나 관세음보살 등의 명호를 입으로 소리 내어 부르는 것이다. 이때 북이나 징, 목탁을 치면서 큰 소리로 염불하기도 하는데, 이를 고성염불(高聲念佛)이라 부른다. 둘째로 관상염불(觀想念佛)은 입으로 소리를 내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아미타불을 간절히 생각하면서 행하는 수행이다. 그리고 실상염불(實相念佛)이라고 해서 모든 생명의 참 모습(實相)을 관하는 염불도 있다. 아미타불은 공간적으로 한량없는 빛(無量光)이며 시간적으로 영원한 생명(無量壽)을 의미한다. 실상의 차원에서 본다면, 염불은 우리들 생명의 근원인 영원한 빛과 생명 자리에 돌아간다는 자기 고백이라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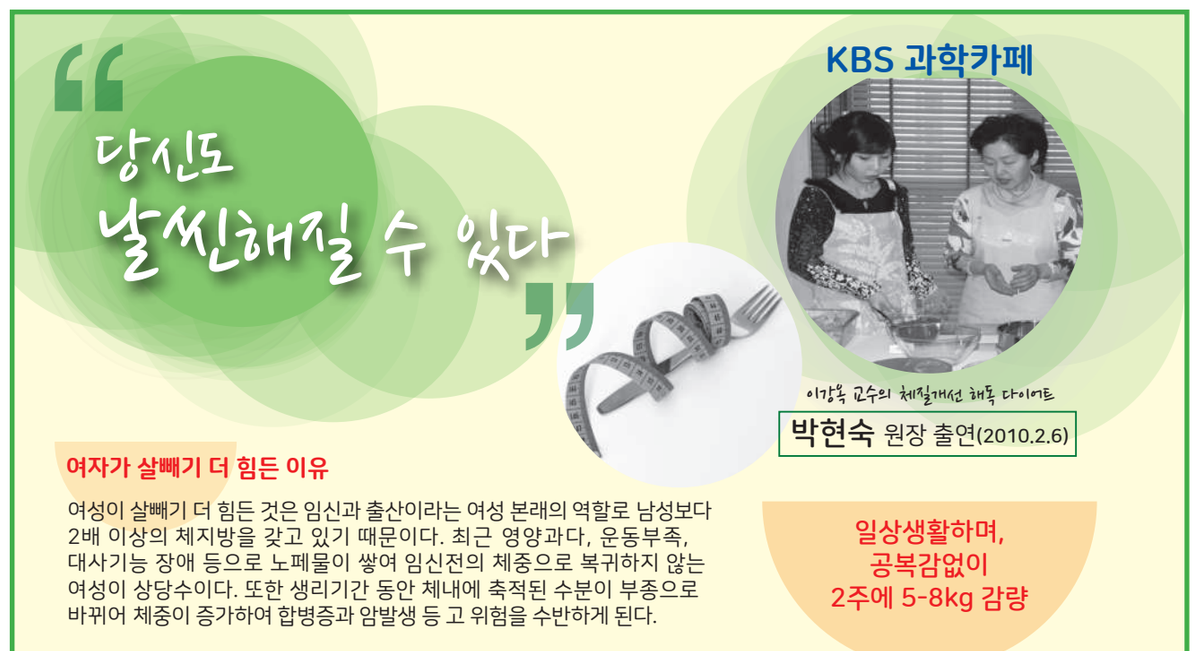
염불의 목적이 서방정토에 태어나는 것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자력적(自力的) 근본불교와는 이질적인 모습을 하고 있다. 스스로 수행해서 깨침에 이르는 붓다의 근본 가르침과 달리 염불은 절대 타자, 즉 아미타불의 힘에 의존한 타력적(他力的) 신앙이라는 뜻이다. 흔히 정토신앙에서는 깨침에 이르는 방법으로 난행도(難行道)와 이행도(易行道) 두 길이 있다고 말한다. 자기 수행을 통해 깨침에 이르는 것이 어려운 길이라면, 염불은 쉽고도 빠르게 도달할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이다. 오직 간절한 마음으로 아미타불에게 귀의하기만 하면 극락왕생이 보장되기 때문이다. 아미타불의 48대 서원에서도 "어떠한 중생이라도 지극한 신심과 환희심을 내어 열 번만 나의 이름을 부르는 이가 있다면 반드시 왕생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이러한 타력적인 측면 때문에 염불을 가볍게 보는 시선도 없지 않지만 이는 큰 오해다. 염불의 대상이 석가모니불이든 아미타불이든 관계없이 그분들의 명호를 오직 일념으로 부르다 보면 어느새 모든 번뇌, 망상이 사라지고 마음이 청정해진다. 그렇게 탐진치(貪瞋癡) 삼독(三毒)이 모두 사라지면 맑고 고요한 마음으로 세계를 바라볼 수 있다. 수행을 통해 깨침에 이른 여러 선사들이 염불을 중시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염(念)이라는 한자를 풀어보면 현재(今)의 마음(心)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 그러니까 염불은 과거나 미래가 아닌 '현재의 마음이 곧 부처' 라는 뜻이 된다. 염불을 통해 지나간 과거에 대한 집착과 오지 않은 미래에 대한 불안을 떨쳐버린다면, 우리는 바로 지금을 있는 그대로 살 수 있는 것이다. 현재의 나를 구속하는 번뇌, 망상이 사라졌으니 말이다. 염불의 불교적 의미도 바로 여기에 있다.

〈이일야 전북불교대학 학장〉





나의 고통 인정서 명상 출발



최훈동의
마음 사용 설명서

⑰ 깨달음(통찰)과 변화



17-1 넘어져 울고 있는 아이를 야단치는 부모가 의외로 많습니다. 자신의 속상함을 아이에게 푸는 경우들이지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아파하는 아이를 꼬옥 보듬어주고 얼마나 아프고 힘든지 어루만져 주고 실컷 울도록 허용합니다. 흐느낌이 되어 잦아들 때까지 충분히 놔둡니다. 그런 연후 어떻게 다쳤는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차근차근 이야기시켜 봅니다. 다그치지 말고 훈계하려들지 말고 처음부터 끝까지 사건이 분명해질 때까지 들어줍니다.

명상도 우선 나의 고통을 수용하고 인정하는 데서 출발합니다. 그동안 겪어온 아픔과 상처를 분명히 알아주고 포옹해주지 않고서 나를 사랑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남도 똑같이 고통을 겪었고 아픔을 가지고 있고 쉽게 상처받을 수 있음을 인정하게 되고 상대를 배려할 수 있게 됩니다. 나를 사랑한다면서 해치는 경우가 많은 것도 상처를 보듬어주지 않아서 상처를 보호하려는 방어작용이 자신을 쾌락에 탐닉하게 하거나 극단적 행동을 하게 됩니다. 아이에게도 지나친 보호나 방치 또는 학대하는 행동으로 대하게 됩니다.

17-2 사랑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치우친 사랑(偏愛)과 보편적인 사랑(遍愛)입니다. 치우친 사랑은 에고가 강한 사랑입니다. 보편적인 사랑은 에고가 없는 사랑입니다. 에고가 강한 사랑은 나의 것과 나를 강조합니다. 내 가족을 사랑하고 내가 다닌 학교를 사랑하고 내가 태어나고 자란 고향과 나라를 사랑하는 것 자체는 선악이 없습니다. 그러나 남과 비교하여 차별할 때 학벌 족벌주의, 지역 차별 민족차별, 인종 차별 종교 차별 등 갖가지 형태로 드러납니다. 이데올로기 전쟁 종교전쟁도 자신만이 옳고 선하다는 독선으로 살육마저 불사합니다. 나와 다름을 용납 못하는 것이 독재입니다.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 욕망이 가득 찬 에고의 사랑입니다. 필연적으로 소외가 일어나고 상대방의 가슴에 지울 수 없는 상채기를 남기게 됩니다.

자식에 대한 편애는 그 결과가 끔찍합니다. 어린 시절 형제는 부모의 사랑과 관심을 차지하려고 갖은 방법을 쓰며 싸우기도 하지만 서로 인정하고 적응하는 법을 배우게 되는데 부모가 편애를 하면 이것은 어린 아이의 통제 범위에서 벗어납니다. 소외와 분리감, 고독감, 위축, 불신과 배신감, 세상에 대한 원망으로 가득 차서 무차별한 적대감의 표출, 연쇄살인(무차별 총기난사), 아니면 절망적 자살이 일어납니다.

17-3 심리치료나 명상 수행에서 모든 것을 떠나 치유 평가 기준이 있다면 '변화가 일어났는가' 입니다. 상담치료를 받았건 어떤 마음공부를 했건 그 사람이 질적으로 바뀌었는지 여부가 기준입니다. 관점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는 변화가 없다면 구두선에 불과하지요.

A양은 약물치료는 싫고 심리치료만 받고 싶다 하였습니다. 고교시절부터 우울해지고 외모에 대한 불만, 자기 비하, 자신감 결여, 부모와 학교에 대한 불만으로 가득했지요. 공부는 싫고 하고 싶은 걸 해야겠는데 반대만 한다며 분개합니다. 끄떡하면 '죽고싶다' 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다 하였고, 손목에 자해한 흔적들이 많았습니다. 대인관계가 힘들어 급우들과도 자꾸 틀어지고 좌절의 연속이었지요. 학교도 바꿔보았지만 새로운 환경에 적응이 어려워 자퇴하고 맙니다. 게임 등 쾌감을 주는 것들에 몰입해보지만 그 순간뿐 불안은 가중되고 점점 상황이 악화되어 희망이 안 보인다는 것이었습니다. 햇수로 2년 넘게 정기적 심리치료와 함께 명상을 배운 후 마음의 평온을 회복하여 마지막 면담 중에 스스로 토로한 말이 인상 깊습니다. 이제 자신의 얼굴을 보아도 밉상이 아니고 오히려 예쁜 편인 것같고 예전과 달리 얼굴이 밝고 편해졌다고 주위에서 말한답니다. 친구들도 자기를 만나는 게 편하고 즐겁다고들 하며 윗사람을 대할 때도 긴장하거나 눈치 보던 관계에서 자유로워졌다 하였습니다. 한 번은 자신의 호흡을 한 시간 정도 바라보았는데 너무 편하고 행복한 느낌을 받았는데 자신에 몰입된 느낌을 처음 경험하였다 하였습니다. 끄떡하면 상처받곤 하였던 다른 사람의 지적을 더 이상 비난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소외당할까 봐 겁나서 움츠리고 상대방에게 자신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한 방식에서 자신의 감정을 스스럼없이 드러내니 대인관계가 원만하게 이루어지는 것 같다 하였지요.

A양은 질적으로 변하였음을 자신도 주변 사람들도 인정한 사례입니다. 호흡 바라보기를 권유한 것은 A양이 심리치료 받기 시작한지 6개월째로 기억하는데 그동안 틈틈이 호흡을 바라보다가 최근에 몰입을 경험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질적 변화는 호흡 집중과 몰입에서 온 게 아닙니다. 통찰(깨달음)에서 비롯된 것이지요. 자신을 그렇게 졸라매던 것들에서 풀려난 것도 정서적 깨달음이 일어난 후입니다.

> **남과 비교, 차별로 이어져**
> **원망은 적대감으로 표출돼**
> **독선은 에고의 욕망, 사랑**
> **영적 성숙의 기회 열어야**

17-4 흔히 깨달음을 지적 깨달음으로 오인하는데 깨달음의 지혜는 머리에서 오지 않습니다. 진정한 깨달음은 회한과 사랑, 감사 등 깊은 감정의 충격과 함께 오므로 정서적 깨달음, 곧 가슴의 통찰이라 하지요. 고통의 의미를 알게 되면 고통을 불러 일으킨 대상(사람 또는 상황)에 대한 원망이나 증오는 물거품처럼 꺼지고 대신 용서와 사랑, 그리고 감사의 념이 솟아나게 됩니다. 상처를 준 사람들과 고난이 모두 은인이고 축복이었음을 깨닫게 되는 것이지요. 분노도 이런 과정을 밟아서 비로소 분노가 사그러지는 것이지 그냥 참거나 이해만으로는 불씨만 눌러주는 효과밖에 없어서 또 바람 불면 재점화됩니다. 깨달음은 봉숭아 씨앗처럼 터집니다. 봉숭아 씨앗이 까맣게 영글기까진 수많은 시간과 햇빛과 수분과 영양분들이 필요하지요. 이러한 과정 없이 씨앗이란 결과는 몰록 일어나지 않습니다. 마치 산 속 깊은 골짜기 조그만 물부터 계곡물, 천과 시내, 그리고 작은 강줄기와 큰 강물이 되어 마침내 바다에 이르는 것과 동일하다 하셨지요.

17-5 고통의 상황은 우리로 하여금 정신적 영적 성숙의 기회가 왔음을 뜻합니다. 그동안 나름대로 행복하기 위해 열심히 뛰었건만 왜 이렇게 되었는지 찬찬히 돌아볼 기회가 온 것이지요. 상담자는 고통의 메시지를 잘 해석하여 전달할 수 있어야 하지만 그 시기와 방법이 문제입니다. 서둘러 설명하다가는 주입식 교육이 되어 깨달음 대신 지식만 늘게 되니까요. 내담자는 스스로 가지고 있는 능력을 보려하지 않고 현실(고통)에 안주하려 듭니다. 이러한 내담자를 새로운 상황 - 자립과 성숙-으로 안내하는 길은 그를 존중하고 경청하고 그의 모든 표현을 공감적으로 수용하는 것입니다. 서두르지 않고 경이로운 눈길로 지켜보되 환자 스스로 자신을 잘 보고 해결책도 스스로 찾도록 기다릴 줄 알아야 하지요. 이러한 치료자의 태도를 통해 내담자는 부모나 세상에 투사했던 불만과 원망을 되돌리기 시작하며, 부모도 치료자도 대신 해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스스로 채우며 나아가 마침내 통찰에 이르게 됩니다.

17-6 명상 상담에서 가슴으로 들으라는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 가슴에 귀가 있는 것처럼 가슴으로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으라는 것이지요. 그것은 가슴으로 듣고 가슴으로 보고 가슴으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머리로 이해하는 게 아닌 가슴으로 대상을 만나는 것이지요. 이것은 명상의 골자이기도 합니다.

대화에서 단절이 일어나는 것은 경청이 없고 자신의 이야기에 골몰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생각과 판단, 자신의 신념을 상대에게 피력하느라 상대의 이야기는 귓가로 흘리기 때문이지요. 내 생각(판단, 신념)이 개입되면 상대방을 온전히 바라볼 수 없고, 상대방을 온전히 들을 수 없습니다. 공감과는 거리가 한참 멀어지게 되지요. 다른 사람을 나의 요구에 맞게 변화시키려는 것이지요. 대화가 아니라 관계가 끊어짐을 경험하곤 하지요. 공감은 인간 행위가운데 가장 높은 품성 중 하나입니다, 공감하려면 먼저 내 생각과 판단을 비우고 상대방을 온전히 느껴보아야 합니다.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느끼는 것이지요.

17-7 영적 스승들은 우리 존재의 중심이 가슴임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요가의 차크라(에너지 센터)에서 '가슴 차크라' 는 가슴 중앙에 위치한 에너지 센터로서, 그것이 열리면 사랑의 에너지가 피어납니다. 한번 연습을 해보실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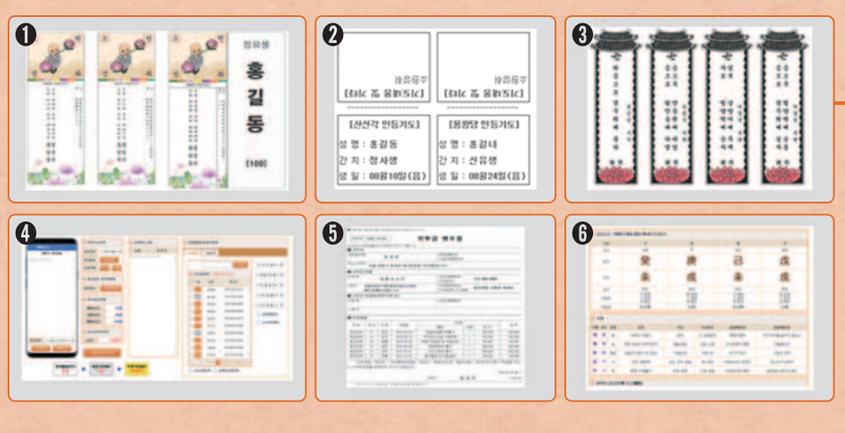
눈을 감고 호흡을 잠시 바라본 후 깊이 아끼는 사람을 한 사람 떠올려 봅니다. 그 사람의 소중함을 한번 느껴보세요. 가슴이 따뜻하게 열리지 않나요? 반대로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을 떠올려 보세요. 가슴이 아프지 않나요? 정도에 따라 가슴이 찢어지게 아플 수도 있습니다. 이제 싫어하는 사람을 떠올려 보세요. 당시 분노하고 반발하던 때를 떠올리면 가슴이 막히고 답답함을 느끼게 됩니다. 다시 소중한 사람을 떠올리면서 가슴이 다시금 따뜻해지게 하고 눈을 뜹니다.

17-8 가슴이 치유와 사랑의 근원입니다. 이 가슴은 아주 지혜롭기도 하지요. 삶을 느끼는 것도, 공명을 통해 삶에 연결되는 것도 가슴입니다. 가슴은 배척이 아니라 포용하는 법, 판단이 아니라 수용하는 법, 저항이 아니라 허용하는 법을 알고 있습니다. 머리로 생각하기보다 가슴으로 느끼는 법을 배울 때 삶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어린 시절 우리는 열린 가슴으로 온전히 살았지만, 점점 가슴을 닫고 머리를 굴리며 상대방의 눈치를 보고 사랑을 잃지 않으려 애쓰기 시작하였지요. 가슴이 아파 괴로운 것을 피하려고 머리를 쓰고 가슴을 닫고 살기 시작하였지요. 이제 명상을 통해 자신의 가슴에 귀 기울이고 다시금 여는 법을 알게 되면 가슴이 가장 지혜로운 스승이자 친구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가슴을 열면 삶은 더 이상 생각의 대상이 아니라 가슴의 경험이 되고 비로소 살만한 세상이 됩니다.

가슴으로 사람을 만나고
가슴으로 세상을 만나면
새로운 삶을 경험하게 된다네.
산도 구름도 계곡 물소리도
이름 모를 나무와 풀,
길가의 돌멩이들과도
교감할 수 있다네.

〈한별정신건강병원장〉

GM SOFT since 2015
사찰신도 관리 프로그램
동종업계 최저가격
"번거로운 설치없이 이용가입 후 바로 사용 가능"
"이용 사찰의 프로그램 만족도 우수"
최초 가입시 1개월 무료 사용 | 월사용료 기본 19,800원 | 설치비 · 세팅비 전액무료



프로그램 주요 기능
❶ 연등표 출력
❷ 인등표 출력
❸ 위패출력
❹ 문자발송
❺ 기부금 영수증
❻ 사주팔자

부가서비스
• 원격지원 | 해당 사찰의 컴퓨터를 원격으로 제어하여 실시간 프로그램 설명 및 오류 수정
• 적립포인트 제도 시행 | 접속률, 이용후기작성, 사용료 3% 등 최대 22,000P 제공
• 축원문출력, 삼재관리, 회계관리, 우편라벨 출력, 신도생일 및 신도영가 기일 자동 표시
• 물품관리, 전국 날씨정보, 메모장, 일정관리, 등록된 모든 자료 파일 다운로드 가능

지엠소프트
[지엠소프트]를 검색하세요
대표전화 070-7633-2525, 010-8588-2525
상담문의 평일 09:30 ~ 17:30. 토/일요일, 공휴일 휴무
홈페이지 www.gmst.co.kr

영가 찾는법
연결카페 : 백암역리원
http://cafe.naver.com/baikamsa
영가는 본인과 관련된 영가를 천도해야 영험이 있다. 매사에 장애, 신경성, 우울증, 공부가 안되는 학생, 결혼이 안되거나 가정의 풍파, 병명이 안나올 때는 영가의 작용으로 볼 수 있다.
대 상
명리 및 육효초보반, 영가특강반
백암역리원
02)597-1101
2,4호선 사당역 8,9번 출구 먹자거리 골목 안 200m

탈 종 공 고
• 사찰명 : 수암정사
• 주 지 : 혜공 원공 (속명 / 김택수)
• 주 소 : 전북 부안군 행안면 당중길 52-57
• 승 번 : 071-0526
위 사찰과 위 본인은 귀 종단과
수행종풍이 맞지않아
귀종에서 탈종을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2일
한국불교태고종 총무원장 법하

접 수 매주 월(月)~수(水)요일 *수요일까지 입금된 기준으로 광고 게재
팩스 02)737-0696 또는 이메일 jabi2018@naver.com 접수

게 재 접수 후 다음 주 수요일 문 의 02)2004-8214

가 격 ◆가로 4㎝ : 4만원/회 ◆가로 9㎝ : 8만원/회

계 좌 ◆농협 : 053-01-269088 ◆국민 :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생활 안내

1307호 | 15 | 전면광고

너는 장차 이 세상에서 좋은 방편과 위없는 지혜로 아흔여섯 가지의 외도들을 물리치고, 법의 눈을 다 얻게 하리라.



부처님 말씀 읽기 - 《수행본기경 현변품》에서

무형문화재 학인모집

무형문화재 작법무 연수원
1. 천수바라, 오공양 작법무
2. 다게작법, 운심게 작법무
3. 염불, 사물, 사주 명리, 회심곡
• 특별반 / 개인 3개월 과정 모집 •
• 사찰등록 및 승려증 발급 •
사 찰 행 사 전 문
(사)대한문화전통불교조계종
총무 010-5511-7000

불공 저렴한 보시금으로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립니다

49제,점안,살풀이,바라
이 인연으로 성불의 씨앗 되십시오
010-2168-2800
011-850-0176

허리병 고치는 법 발을분 배울분

저서 • 허리병 7일만에 고치는 요법
• 내 몸에 맞는 체조로 허리병 고친다

중풍예방. 디스크. 협착증. 불면증.
성인병 등 각종 질병
한번만 오시면 퇴치 가능
2대째 이어온 운동법 발명 특허 획득
네이버 [허리선생 혜경] 검색
50년 전통 상담
010-3829-7582

양 도 공 고

(등록된 종무법인임)
개인사암, 단독법인 가능함
종무업무를 국가기관에 등록받은 불교법인, 불교연합회, 불교종단 양도함
010-5412-8040 법광

입종 동참안내

불교문화정원, 불교문화수련원
불교문화원, 불교선문화원,
불교명상문화원
(설립 운영하실 분)
한국불교문화원연합회
(교육부 산하 상학 인가)
만대 불교학 대학원
010-5412-8040 법광

효보당 108사주 비법 완전전수

한손으로 가장 쉽고 빠르게 똑소리나게 풀어냅니다.
짧은시간에 완전 이수되며 섬세하게 누구나 풀수 있구요.
▶현재의 궁금점과 대안책
(타고난 인생, 인체의 병, 영가, 일년신수, 왜! 원인과 해결)
▶과거/현재·미래·사주와 미래의 대안책
스님, 철학인, 법사 등 대상
왕초보 22강 진행(속성반 7강 진행)
출장 및 개인지도 가능합니다
010-2901-8923

운명학 단기완성

데이터 기반 명리학과 특별한 비법 단기 강의, 스님께 확신이 됩니다
3개월 단기완성 수업료 : 5백만원 교육시간 : 주2회 (2시간씩)
문의 010-2480-5677 (아는소리 명리학당 총무)
한국불교태고종 지성선원(창원시 성산구)

★검 색★

GPN 손도사
인간계발과 MBTI연구원
문의 : 010-5105-5000

49재.천도재.점안의식대행

(바라,작법무,화청,살풀이,불교무용)
의식은 불교의 꽃, 40년 수행공덕으로
귀 사찰의 행사를 성취해 드리겠습니다.
문의 010-3263-6544
010-5270-8260

먹으로쓴 반야심경8폭병풍 소장하실 불자님 연락주십시요

지리산감나무골 운송도암
010-9208- 3835

점안식 49재 천도재

불공 사찰행사 전문
• 범음범패 실전위주교육 바라나비무,법고,화청,살풀이,풍수, 명리,육효,주역,작명(학인모집)
• 남 · 여 결혼 성사 접수 중
대광명사 (동양불교대학)
031-953-3328
010-8893-8361

팔공산 천년고찰
운전도 하고 주지스님 수발하실 보살님 구함
(50대~60세)
010-8833-4416

부전스님 모십니다.
010-2078-9595

부전스님 모십니다.
010-4598-3280

술술 풀리는 사주강의

스님들, 불자님들 요즈음 많이 어려우시죠? 절운영과 삶에 큰 도움이 될 사주를 2개월 만에 막힘없이 술술 풀도록 강의해 드리겠습니다.
강의 장소는 경주시이며 일주일에 두번 정도 강의 할 것입니다
010-7307-1727

수강생 모집(그림)

• 수업 : 산수화, 풍속화, 달마도, 동자승
• 장소 : 서울 인사동 미술 교육관 (종로오피스텔 4층 401호)
• 매주 수·목요일 주 1일 [월 4일]
• 수강료 : 월10만원

그림에 소질이 없어도 관심있는 분이라면 누구나 그릴 수 있습니다. 연락바랍니다.
청곡 이한동 화백
010-3747-8692

생각대로 되는
기도법을 전수, 스님에 한합니다.
서울 동대문구 왕산로 274-1 3층 백선사 대주 합장
☎ 02)963-1148 / 011-741-0867

한국불교대학 大관음사
우학스님 상좌 및 예비수행승(행자)모집
이 시대 불교를 리더할 참신한 예비수행승(행자)을 모집합니다
1. 수행 위주의 교육
2. 수계후공부100%(대학, 강원, 기본선원) 교육비전액지원
3. 공부 마친 후 국내도량, 해외도량, 복지시설 등에서 활동 할 수 있음
4. 본인의 희망에 따라 대구큰절, 감포도량 중 선택하여 행자생활함
문의 : 054-753-8228, 010-8852-0075

명리·육효강좌

(연결카페http://cafe.naver.com/baikamsa 백암역리원)
영가반 ○ 초보에서 실천완성
명리·육효학 ○ 초보반 : 명리·육효 기초가 전혀없는 왕초보
○ 실전반 : 명리·육효 기초 완성자
백암역리원 02)597-1101
오시는 곳 : 사당역 8, 9번출구 먹거리골목200M

국제 붓다 평화봉사단

국내외 활동 자원 봉사자 환영합니다
지구촌 그늘진 곳곳에서 자비심이 가득한 사랑으로 같이 울고 웃으며 땀 흘려 봉사해온 여성 불자 봉사단 입단의 문이 항상 열려 있습니다.
02-733-5665

향로용 유리알 향운정주(수정모사)



▣ 상품명 : 향운정주 (수정모사)
▣ 재 질 : 크리스탈 유리알
▣ 용 도 : 법당향로, 개인향로, 법당 조화용 화병, 크리스탈 꽃병 등등 다양한 곳에 반영구적으로 사용가능
▣ 규 격 : 1kg : 13 x 15 x 3.5cm (종이박스) / 5kg : 14 x 15.5 x 18.5cm (종이박스)
▣ 특별공급가격 : 1kg : 10,000원 (배송비 별도)
5kg 1BOX (1kg X 5ea) : 50,000원/세트 (배송비 포함)
▣ 구입처 : 전화 : 02-732-1520 , 팩스 : 02-737-0696
▣ 계 좌 : 농협 053-01-269062 예금주: (주)현대불교신문사
▣ 판매원 : 마하몰 (www.mahamall.co.kr) / 제조원 : ㈜바이넥스 / 원산지 : 대한민국

상품특성
• 향운정주(수정모사)는 맑고 투명한 작은 구슬로 향로에 사용하던 쌀 등 곡식이나 모래, 흙 등을 대체한 제품입니다.
• 모양과 빛이 아름다워 보는 이로 하여금 정결하고 정성스러운 마음을 갖게 합니다.
• 향운정주(수정모사)는 향이 잘 꽂아지고 부러지지 않으며, 물로 씻어 정갈하게 대를 물려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일정 온도에서 원적외선이 방출되어 인체에도 유익합니다.
• 조화용 화병이나 크리스탈 꽃병에 사용하시면 투명한 빛이 아름답게 보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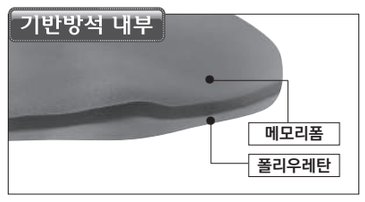
※ 향로에 들어가는 향로용 유리알 수량 (스텐 향로 기준)

종류		크기			수량
향로(스텐)	特大	지름: 20cm	높이: 18.5cm	내부: 13cm	5kg
향로(스텐)	大	지름: 17.5cm	높이: 18.5cm	내부: 11.5cm	3kg
향로(스텐)	中	지름: 13.5cm	높이: 16cm	내부: 10cm	1.5kg
향로(스텐)	小	지름: 12cm	높이: 12.5cm	내부: 8.5cm	1kg

세계최초
수련 전용방석 기반

수련문화 활성화를 위한 기반은 품격이 다릅니다.





VIP형 ~~49,000원~~
➡ 44,000원

가로	45cm
세로	32cm
높이(뒷면)	8cm

• 제품의 특징 •
인체공학적 설계로 신체의 좌·우 균형을 바르게 유지하며, 척추와 허리가 무리없이 바르고 자연스럽게 펴집니다. 보관과 이동이 용이하며, 어느 곳에서도 쉽게 수련 할 수 있습니다.
평상시에 사용하여도 척추와 허리를 보호하고 바른 자세의 습관을 갖는 효과를 줍니다. 고급 외피를 사용하여 물이 묻어도 스며들지 않습니다. VIP형은 하단부분은 최고급 폴리우레탄으로 균형을 잡았으며, 상단은 신소재 최고급 메모리폼을 내익하여 자연스럽게 자세를 더욱더 안정시켜 줍니다.

주문은 마하몰 TEL 02)732-1520 |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좋은인연 대출안내

☑ 대출이 더 필요하십니까?
☑ 불사자금이 부족하십니까?
☑ 사찰구입자금이 필요하십니까?

1980년 설립하여 전국의 많은 사찰과 인연을 맺고 있는 사찰전문 은행인 형산새마을금고와 의논해주시면 좋은 인연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사찰을 매매하실때 문의해 주세요~
부동산권리분석 · 매매관련세금 · 감정평가


형산새마을금고 본점 전경

• 대출기간 최장30년
• 설정비,감정료 면제
• 제주도까지 전국가능
• 타은행대출 전환가능
• 법인,단체사찰 가능
• 종단사찰 가능

365 친절상담
이사장 이강욱 ☎ 010-9842-4200
상 무 김상민 ☎ 010-7314-2522

형산새마을금고
본 점 054)282-9600
제1지점 054)282-9601
제2지점 054)282-9602

달마 선법으로 본 금강경 달마선의 참마음(眞心)으로 금강경을 풀이하다!

깨달음은
공개된 부처를 비밀스레 찾은 신앙이 아니라
밝혀지지않은 자성불을 구현하여
제3의 생명으로 거듭남에 있음으로
남을 따르거나 흉내를 내어서는 안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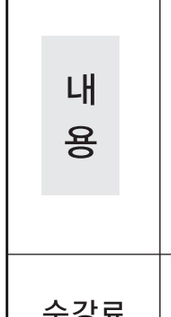


달마 선법으로 본 금강경
개정판!
이창우 역주 | 19,000원
46배판 | 양장 | 573쪽
현대불교신문사
구입문의 : 02)732-1520

입금계좌 :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알기쉬운 **구단구궁법**

특허 상표등록번호 40-0863341 저작권등록번호 C-2011-003967
서비스표등록번호 41-0213393



저작권자, 상표권자 법화 종헌(속명 정흥교)는 경주불국사, 대구동화사, 부산범어사 승가대학에서 수학하고 고려고찰 고산사, 석불사 등 주지직을 수행하고, 전통불교조계종정을 역임. 지금은「구단구궁법주」로서 자비의 방편학문인「구단구궁법」을 세상에 널리 펼쳐 많은중생을 요익케 하고 있다.

누가? 몇일?	◆누구나 5일이면 실력자가 될 수 있습니다. ◆왕초보 저학력 아무상관 없습니다. ◆써먹지도 못하는 죽은 학문이 아니라 살아있는 이 시대의 필수과목입니다.
내용	◆손으로 짚어 5분안에 자금회전, 일의성패, 직업, 성격, 적성, 궁합, 택일, 이사방위 등을 주저없이 판단하고 기판(답안지 5분) 작성시에는 과거, 미래 십년도 한눈에 일년 열두달도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날짜별, 시간별도 마찬가지이다.) ◆한문에 관계없이 초보자도 가능함 ◆귀신뽑아 조상천도 연계 ◆교수 이수 후 즉시 영업 활동 가능함 ◆사찰, 포교당, 철학관 상담소 운영에 획기적인 방법
수강료	◆스 님 – 오십만원(책값 별도) ◆일반인 – 일백만원(책값 별도) ◆우체국 : 601401-01-001843(예금주 : 자비실천불교연합회)

부산 ❷,❸호선 덕천역 2번 출구 20m

구단구궁법 교실 cafe.daum.net/9dan9gung
부산광역시 북구 백양대로 1198 (구포동 147-3) 3층 전층
전화 010-7415-0803

❖ 본 지면의 불자정보 광고는 광고주의 요청에 따라 게재한 것이므로, 광고지면 제공 이외에 광고주와의 거래 및 기타 사항에 대해서 일체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접 수 매주 월(月)~수(水)요일 *수요일까지 입금된 기준으로 광고 게재
팩스 02)737-0696 또는 이메일 jabi2018@naver.com 접수
게 재 접수 후 다음 주 수요일 문 의 02)2004-8214
가 격 ◆가로 5㎝: 5만원/회 ◆가로 7㎝: 7만원/회 ◆가로 10㎝: 10만원/회
계 좌 ◆농협 : 053-01-269088 ◆국민 :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불자정보

1307호 | 16 | 전면광고

병이 있어도 치료하지 않는 것, 치료하되 조심하지 않는 것, 교만해서 이치에 어긋나는 일을 알지 못하는 것, 이 세 가지가 그릇된 죽음이다.



부처님 말씀 읽기 - 《법구비유경》에서

광 진 불 사

◎ 위치 : 서울시
◎ 대지 : 120평
◎ 건평 : 50평
◎ 시내중심, 토굴 및 암자
◎ 매가 : 15억

◎ 위치 : 부산시
◎ 주상복합상가
◎ 건평 : 90평
◎ 공원옆, 주차가
◎ 매가 : 7억5천만원

*40년세월,신용과,믿음으로일합니다. 출장상담받습니다. *사찰관련 컨설팅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전국사찰, 땅, 포교당, 다량보유 부전, 공양주, 처사 소개합니다.
*신행상담, 사찰순례, 채권상담, 종교법인, 상담받습니다

광진불사 010-4586-4525

사 찰 안 내

- 위치 : 전남 나주 동강면
- 대지 230평(임대)
- 법당 20평. 산신각 10평
- 요사채 2동. 범종각
- 영산강 전망이 좋음
- 가액 : 3500만원

010-7637-1250

사찰(급)안내

- 위치 : 경주시 시래동. 정남향
- 대지 194평. 건평 43평
- 법당. 칠성. 산신. 용왕. 나반. 방 친견실. 공양간. 샤워실. 화장실
- 외부시설 : 용왕연못. 탑. 남여화장실 등
- 시설일체. 최고입지요건 갖춘 암자
- 가액 : 2억 3천만원(급양도)
- 사전 전화요망

010-5427-3699

사 찰 안 내

- 위치 : 울산광역시 울주군
- 대지 : 335평
- 대웅전. 삼존불. 목불. 목후불탱화. 목조단청 12평. 요사채. 방3개. 목조단청 19평. 공양간. 방1개. 7평 목조단청. 화장실 남.여(목조단청)
- 상담 후 결정

010-3206-6622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대구시 동구 지하철 역세권 대도로접 3층
- 약 50평, 도시가스, 옥상사용, 주변주차시설양호
- 보증금 500만, 월 45만
- 시설비 1300

010-7337-5956

사 찰 안 내

- 위치 : 경기도 양평군 강하면
- 부지 : 1648평(대지 927평)
- 대웅전(25평). 지장전(15평). 독성각(5평). 목조건물
- 요사채 : 조립식 건물 25평. 황토방 7평. 5평
- 납골당 5000개 가능
- 가액 : 11억

010-5421-1536

전원주택&토굴 안내

- 위치 : 충북 보은군 내북면 성암가고로 36-32
- 총1,024평 (계획관리지구)
- 대지 285평, 건평 30평, 20평 강의실 10평
- 지하수150m 약수물, CCTV, 화목,기름보일러 (전기판넬), 탁트인 들판, 뒤에는 산, 청정지역 명당터임
- 기운 좋은 토굴, 접근성좋은 도로, 주차시설 넓음
- 가액 : 답사 후 결정

010-5458-2258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서울 동작구 사당역 (2,4호선)
- 먹자골목, 교통최요지
- 2층 평수 30평, 시설 완비, 즉시 강좌, 법회 가능
- 보증금 2천만원, 월 125만원
- 시설비 : 답사후 절충

010-9150-2284

포 교 원 안 내

- 위치:서울시 노원구 상계1동
- 수락산역 등산로입구 (먹자골목)
- 약 30평 / 방3 / 법당 별도
- 총3층 건물 3층(옥상사용)
- 보증금 5천만원
- 월 40만원 / 시설비 5백만원

※ 불교서적 1천권 무료드림

010-5656-2766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울산 북구 호계동 유황사우나앞 도로변 3층
- 평수 : 50평, 방 3개 (도시가스)
- 보증금 1천만원, 월60만원
- 시설비 없음

010-9110-3301

멋진토굴(급)안내

- 위치 : 경북 김천시내 인근
- 대지 : 약 717평방(약 217평)
- (멋진 2층건물 1층 방5개 기도처) (2층 방3개, 거실, 주방, 밖 휴게공간) 마당, 잔디, 조경좋음 주차공간 확보
- 가액 : 3억에서 5천 빼드림(조정가능)
- 사정상 시세이하로 계산함

010-3007-5611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창원시 회원구 내서읍 (내서IC 3분거리)
- 대지 100평. 법당 25평
- 요사채. 스님친견실. 산신각 대형주차장
- 가액 : 3억1천만원(절충가능)

010-5550-9725
010-4001-8476

좋 은 사 찰 안 내

- 위치 : 서울도심
- 대지 200평, 법당 50평, 요사채 100평, 별채 50평
- 가액 : 25억 (대출가능)
- 별채빼고 양도가능
- 신도다수 • 건강문제로 양도코저 함

02-992-0032

지리산 작은암자

- 위치 : 경남 하동 적량면 작은암자
- 인법당, 별채 두동 황토방 하나
- 가액 : 2억 5천

010-6770-8163

사찰(암자)안내

- 위치 : 세종시 전의면 (청정도량)
- 대지 : 550평, 삼성각4평 목재
- 건평 : 대웅전 24평 목재
- 요사채 : 약 30평, 황토방 10평
- 가액 : 6억 5천
- 주차장시설 완비

010-6768-7169

사 찰 안 내

- 위치 : 부산 연제구
- 대지 : 123평, 건평 : 60평
- 법당외, 삼성각, 용왕, 호신불당, 마당6층 옥탑, 차고, 자연수(사철)
- 상수도, 뒤는산, 전면 좌우 주택지
- 가액 : 3억 5천

010-2720-1580

◈◈◈
서울 부동산 사찰양도 전문 명진도사
◈◈◈

010-4492-3479

사 찰 (급) 안 내

- 위치 : 전주 중심 풍수대명당, 전주 한옥마을 10분거리, 사철에서 전주가 한눈에 들어옴
- 등기면적 : 4백여평, 실제 사용평수 1천여평 국유지 절 뒤 1만여평 무상 사용중
- 석불(산신, 용왕, 아미타불, 지장보살, 약사여래 불)1억5천 석불로 3년전 모심, 극락전 1억 3년전 신축, 약수터 최상, 대나무숲, 법당, 요사채 1억5천 3년전 편백나무 인테리어 시공(40평), 현재 도량 마당 1억 공사중
- 가액 : 5억(대출 3억5천 포함)

010-9647-0723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대구시 송구 동산동 동산병원옆, 동산네거리 대도로접 3층
- 40평, 방2, 응접실, 다용도실, 3층건물 3층
- 보증금3백만, 월30만, 시설비 1천5백만
- 즉시 법회가능, 꼭 하실분만 연락요

011-9572-4652

사찰 안내

- 위치 : 전남 해남군 소재
- 대지 : 350평
- 구조 : 철근 콘크리트조
- 건물 : 약 80평 (법당, 요사채)
- 가액 : 답사후 결정

010-7584-8338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통영시에 자리잡은 아늑한 사찰
- 현재 법회중이며 손댈거 없이 인수만 하시면 됨.
- 삼존불, 삼성각, 주방일체, 에어컨, 냉장고등
- 가사장삼만 들고오시면 됨
- 가액 : 1억 8천만원

010-9421-0772

사 찰 안 내

- 위치 : 충남 당진시 면천면 i.c 3분거리
- 법당 20평, 요사채 25평 스라브 양옥 주차장 완비 텃밭100평
- 보증금500 월40만원, 시설비 2천만원,
- 살림기기 일체양도, 몸만 오시면 됩니다

010-5404-9213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경기도 여주시 흥천면 -흥천이포IC 5Km (이천 여주 광주 시내 25분거리)
- 대지299평, 건물 2채 주차시설, 목조 한옥집(24평), 법당 사무실 방 주방 화장실, 요사채(18평), 방2개 화장실2 주방
- 가액 5억5천만원

010-6355-6468

사 찰 안 내

- 위치 : 참외의 고장 경북 성주
- 대지500평, 임야500평
- 건물 : 대웅전, 삼성각, 공양실, 요사채
- 가액 : 6억 5천

010-5224-0399

토 굴 안 내

- 위치 : 경북 청도 이서면
- 200평, 토굴임대
- 법당15평, 청동부처님3존불, 법당종, 104위신중, 후불탱화, 앰프, 에어컨, 소각장, 주차장, 별장같은 요사채, 욕실, 화장실
- 보증금1천만원, 월세30만원
- 시설비3600만원(절충가능)

010-9150-0029

사 찰 안 내

- 위치 : 경상북도 청도군 (대구 30분거리)
- 대지 : 199평
- 건평 : 22평
- 가액 : 3억 5천
- 잔디밭, 5층석탑, 석등 기타 (경치, 전망 아주좋음)

010-4822-7233

놀라운생명 에너지를 가진
희담석 염주·합장주·지키미

희담석이란? 희담석(稀潭石 / Batu Hitam)은 대규모의 화산 폭발로 인해 지구 깊숙이 묻혀 있던 무기물들이 용암과 함께 분출된 후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단단해진 화산석(현무암)의 한 종류입니다. 동남아 오지의 현지 주민들은 이 돌을 옛부터 치료용으로 사용 해왔는데, 그 중에서도 성분 분석과 원적외선 파동 검사를 통해 인체에 생명력을 불어넣는 유익한 에너지를 가진 것만을 엄선하여 실용화 한 것이 바로 【희담석】입니다. 희담석은 【생명의 돌】이라 부를 만큼 생명체에게 유익하며, 방출되는 원적외선의 질과 양은 타 제품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뛰어납니다. 따라서 세포의 활성화를 통한 최고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희담석 합장주(10mm) 판매가 : 10,000원
- 남자와 여성분들의 손목에 맞추어져 있음.
- 재질 : ABS, 희담석 50%
- ▪ 팔목이 늘 뻐근한 분 ▪ 피로가 누적된 불자
- ▪ 온종일 책상에 앉아 있는 운동이 부족한 불자들의 수행과 업무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희담석 지키미 판매가 : 20,000원
희담석 지키미는 놀라운 생명 에너지를 가진 희담 원석을 휴대하기 간편하도록 제작한 제품입니다.
평상시 주머니에 넣어 다니거나, 틈나는 대로 특정한 통증 부위에 사용하시면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희담석108염주(8mm) 판매가 : 39,600원 ➡ 35,000원
방사능력이 탁월한 희담석의 생명에너지로 건강과 수행증진을!!
구성 : 희담석 108염주
크기 : 직경 8mm "희담석 8mm염주는 차걸이용으로도 아주 좋습니다."

농협 053-01-269062 예금주 : (주)현대불교신문사

불교문화상품 전문몰 마하몰 (http://www.mahamall.co.kr)

구매전화 1688-9099 / (02)732-1520



생활 속의 불법수행
대행 스님과의 신행문답
주인공이란 '참나'라 해도 좋고 '한 물건'이라 해도 좋고, '본래 면목'이라 해도 좋습니다. 일체를 다 싸잡아서 불인 이름입니다.
현대불교신문(여시아문 前) | 신국판 | 무선 | 흑백 | 480쪽 | 15,500원



삶은 고가 아니다
대행 스님 법어
세상 모든 생명에게 바치는 저자의 생활 속 불법 이야기를 담아냈다. 흔히 어렵다고 여겨지는 불교를 친숙하게 받아들이도록 인도한다.
(재)한마음선원 출판부 | 148×210mm | 287쪽 | 10,000원

구입문의 — 02)732-1520 • 3만원 미만 택배비 별도 • 농협 053-01-269062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불자의 긍지 | 신행의 기쁨
현대불교

전국 지사 안내

구독신청 기사제보 광고게재

항상 여러분들에게 가까이 다가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사명	지사장	연락처
대구지사	손문철	M 010-2813-8008
부산지사	이도경	M 010-5640-8883
광주전남지사	양행선	M 010-2629-1508
전북지사	조동제	M 010-8642-7733
경남지사	성낙두	M 010-3860-7008
영주지국	박영애	M 010-9373-3778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에 앞장서 온 현대불교

❖ 본 지면의 불자정보 광고는 광고주의 요청에 따라 게재한 것이므로, 광고지면 제공 이외에 광고주와의 거래 및 기타 사항에 대해서 일체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대행 스님

여러분이 겁을 거쳐오면서 살던 습에 속지 마시고 환상에 속지 마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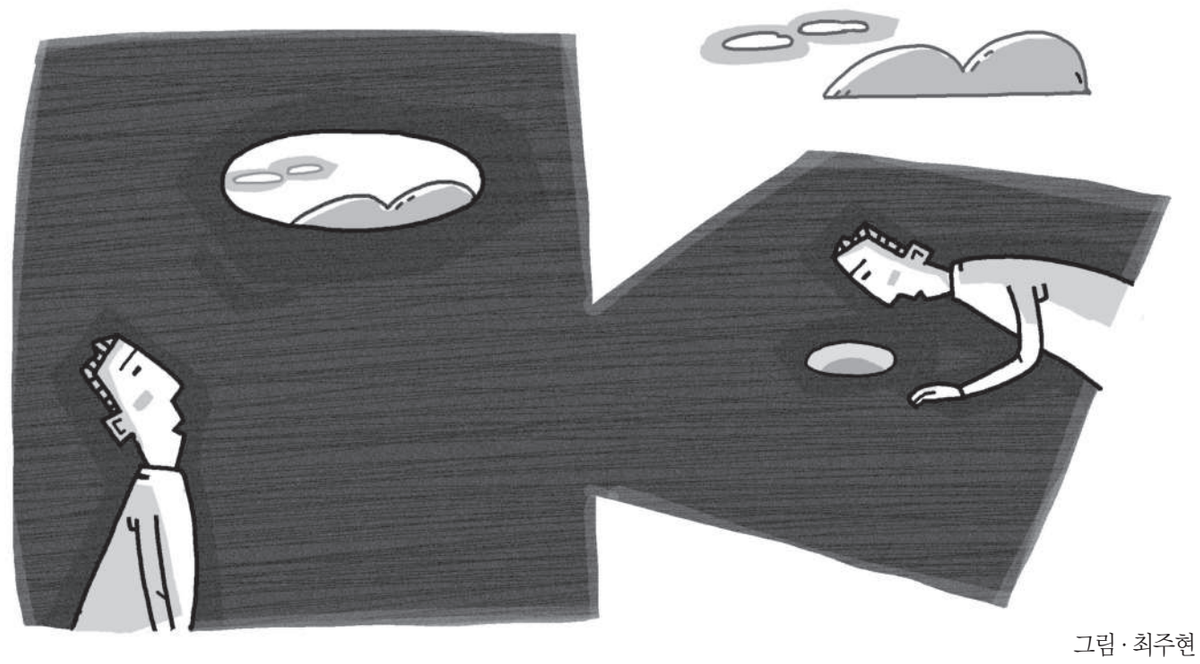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여러분이 공부하시려고 모두 이렇게 한자리에, 항상 같이 앉아 주시는데 한편 감사하게도 생각이 듭니다. 남들은 그렇게 기복으로 자꾸 나가는데, 자기 가짜 면목을 찾으려고 애를 쓰지 않고 진짜 면목을 찾으려고 애를 쓰는 이런 여러분의 그 마음이 얼마나 갸륵한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눈물까지 쨀끔 나옵니다. 하하하…. 감사해서요.

여러분, 테레비에서 '임진왜란' 하는 걸 보시죠? 그랬을 때에 서산 대사 대목이며 일본에서 온 스님의 대목 보셨죠? 물로써 군사를 죽이는 거와 또 물이 치켜 올라가게끔 서산 대사가 던진 문제요. 그거 보셨죠? 또는 일본에서 조선을 탐지하러 왔을 때에 서산 대사가, 그 동자가 나서서 모든 스님들을 붙들어서 못 가게 하고 또 가게 하고 이러는 대목 보셨죠?

여러분은 보시고 어떠한 생각을 하셨는진 모르겠지마는 어떤 분들은 그것을, 즉 말하자면 애들 만화 정도로 인식하거든요. 그런데 만화가 아닌 진짜 그 동자라면, 스님 자체의 모습은 가(假)모습이지만 스님의 진짜 동자는 그렇게 여러분한테 영화로써 보여 주려니까 그 동자가 보이지, 그 동자는 보이지 않는 바로 그 스님의 참동자인 것입니다. 부처님이신 겁니다. 그러면 그 참부처님은 줄지 않으면서 바로 동자가 나가는 것은 보살행을 하는 것입니다.

또 지난번에 그, 임진왜란 때 붓을 던졌다든가 물 수 자를 써서 던졌다든가 하는 거는 가(假), 글씨 쓴 거나 종잇장이, 즉 말하자면 가짭니다. 그 던진 것을 따르지 마시고, 즉 말하자면 우리가 물건을 하나 쥐어서 이렇게 던졌다고 봅시다. 그런다면 그 물건을 쫓아다니지 말고 던진 놈한테 달려들어서 물어라 이겁니다. "왜 던졌느냐?" 하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그 던진 글씨와 종잇장이 진짜가 아니라 그분의 그 참마음에서 진짜 보살행을 하시는 겁니다. 즉 말하자면 불 수레가 돌듯이 말입니다.

그럼 용도에 따라서 그렇게 무궁무진하게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용도에 따라서. 물에 관한 건이라면 그렇게 물로 치고, 악이라면 너무 대의적인 문제입니다. 죽이 끓고 밥이 끓는 데에 대선사가 나서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나라에 큰일이 생겼을 때에 나서는 것이 바로 대인의 그, 불바퀴를 돌리는 용(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눈에 보이니까 "어이그! 저거 만화 같애. 저거 만화지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나?" 그럴 겁니다.

그전에도 얘기했지마는 어느 마음공부 하는 분이 그믐밤에 어디를 지나다가 그만 구덩이에 빠졌더랍니다. 덫에 걸린 거죠. 사람들이 짐승을 잡기 위해서 덫을 놨는데 고만 그 구덩이에 빠졌어요. 그런데 도대체 앞뒤가 막혀서 나올 수가 없어, 하늘만 보이지. 그러니 거기서 어떻게 나와야 되겠습니까? 거기서 부처님을 찾아서, 그 부처님이라는 이름을 찾아서 나를 건질 수 있겠습니까? 거기서 어떻게 해야만이 내 육(肉)의 구원을 받을 수 있을는지…. 내 마음의 구원을 받을 수 없다면 육의 구원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라는 게, 우리가 그것을 홀랑 발겨서 얘기할 수 없으니 여러분이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가정이든지 남편은 대들보고 여자는 서까래라고 봅시다. 그런데 대들보다 서까래다 할 게 없이 한마음 한 뜻으로 한 식구가 모두 모여서 사는데, 여러분한테 항상 말을 하죠. 우리가 살면 이 모습을 가지고 얼마나 살겠느냐? 우리가 재밌게 살고 할 말만 하고 살아도 다 못 하고 사는데, 할 말 안 할 말 다 해 가며 악을 악을 쓰고 이 세상 모두가 제가끔들 그냥 이것이 옳다고 주장을 하고 싸운다면 복도 들어오다가도 딱 나가. '이놈의 집에 들어갔다가는 내 맘이 상해서 못 살겠어.' 하고.

그러니까 내가 있는 이상에는 돈도 생명이 있는 거고 마음이 있어. 내가 없다면 그 돈도 아무것도 없는 거지만. 그러니까 마음의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영향력과 지혜력, 판단력이 부실한 사람들은 역시 구원을 받지 못한다 이거야. 돈의 구원도 못 받을 것이요, 돈도 나갈 것이요, 복이 다 나가. 그리고 오는 것은 무엇이냐. 액이나, 즉 말하자면 인과응보나 유전성이나 또는 업보가 거기에 매달려서 우환이 끊어지질 않아. 그 마음에 따라서 그렇다 이겁니다.

내가 왜 이런 말을 하느냐 하면 여러분 가정에 진짜로 이익이 될 수 있고 진짜로 우리가 해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분은 만날 시시한 얘기만 해." 그러지 마시고 더러운 연못에서, 질척질척한 데서 연꽃이 핀다는 거, 그 말이 바로 그런 데 있는 겁니다. 우리 가정에 있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조그마한 내 한 티끌 같은 불에서 우주를 밝힐 수도 있고, 내 마음, 하나의 그 마음에서 한 가정을 화목하게 만들 수도 있고, 복을 들어오게 할 수도 있고, 우환을 끊을 수도 있고, 세계를 조절할 수도 있는 거고 또 거기에서 교양, 지혜, 모든 판단이 나옴으로써 우리 가정도 사회도, 지금 공장이나 어떠한 장사하는, 상업하는 분들이나 모든 게 거기에서 보풀어지는 것입니다, 한마음에서.

그러니 모두가 그 마음에서 가설이 돼 가지고 저 태양에나 혹성에나 별성에나 모든, 이 물에나 해안이나 지상에나 산에나 이러한 데도 다 연결이 돼 있어요. 가설이 돼 있단 말이야, 법망이. 그런데 우리가 마음을 그렇게 한다면 가설이 돼 있는 대로 다 퍼지게 돼. 잘해도 퍼지고 못해도 퍼지게 돼 있어. 내가 아는 것을 부처가 아는 거니까. 내가 아는 것을 법망에서 알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애들한테도 모진 욕을 해서도 아니 되고, 상식적으로 생각하고 교양적으로 생각해도 우리가 그렇게 모진 욕을 해서도 아니 되고, 불안을 일으켜도 아니 되고, 또 모진 생각을 해서도 아니 되고, 미운 생각을 해서도 아니 되고, 증오라는 생각을 해서도 아니 되고, 모든 생각을 잘해야만이 우리가 애를 낳아도 기품이 있고 유유하고 이 세상에서 누구하고도 바꿀 수 없는 그런 자식을 낳을 수 있는 겁니다. 옛날에도 어린애를 배면 "가운데 토막으로 먹어라. 교도소에 가지 마라." 뭐, 이렇게 저렇게 모든 걸 가렸습니다.

그것은 옛날 노인네들이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생각하면 너무나 현실적이고 과학적이기도 하면서 너무나 지혜가 컸다고 봅니다. 이 마음이 그렇게 묘하게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근본의 원리를 가졌기 때문에, 한생각이 그렇게 무섭고 한 증오가 그렇게 무섭고, 그 업보는 뭘로도 끊을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마음으로 지은 거 마음으로 끊어야 한다 이겁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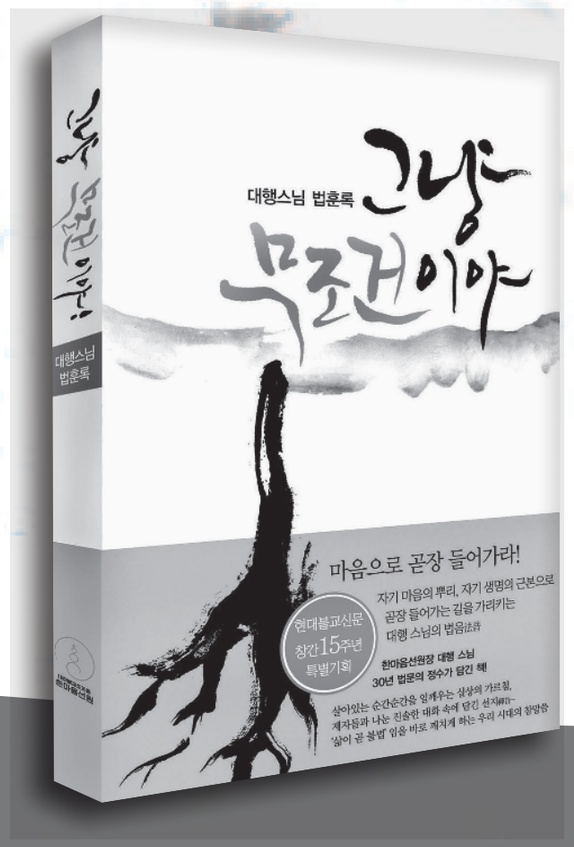
그렇기 때문에 한 가정이 부유하게 대대손손 끊임없이 부자로…, 부자라는 건 돈이 많아서만이 부자가 아닙니다. 돈하고 모든 게, 일체가 결부된 것을 말하는 겁니다. 마음이 부자라야 돈도 가난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가난하다면 가정도 가난하겠죠. 모두가 가난해요, 일체가 다. 그럼으로써 여러분 앞에, 어느 가정에도 공덕이 깃들고 복이 깃들고 우환과 모든 가환이 녹아 없어지게끔 하는 도리가 지금 내가 일러 드리는 그 도리입니다. 그 도리만 갖는다면 여러분한테 열쇠가 맡겨질 수 있는 것입니다. 중이라고 열쇠가 맡겨지고 중이 아니라고 열쇠가 안 맡겨지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이 그 습의 증오, 습으로 망하는 수가 있죠. 습을 뗀다면, 습을 뗀다면 참 모든….

그래서 이런 게 있죠. 예전에 스님들께서 시심마 화두를 던진 게 있으시죠? 그게 뭐냐 하면 사람사람이 누구나가 '아, 이거 이거, 이거 없는 거 있는 거 몰락 놔도 또 있는 것은 무엇일까?' 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러니 '이게 또 놔도 또 놔도, 몰락 다 놔도 또 있으니 무엇일꼬?' 하는 것까지도 훌렁 넘어서라 하는 겁니다, 나는. '뭘꼬?' 하고서 10년 20년 가지 말고 '이 뭘꼬?' 까지 놓고 훌렁 넘어서라. 만약에 그렇게 훌렁 넘어설 수 있다면, 그 습을 다 떼지 않으면 훌렁 넘어설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열쇠를 내가 스스로서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예전에 손오공이 스님 시자로서의 소임을 다하고 부처님을 모시고 다녔는데, 그것이 영화로 나올 때 사람들은 모두 그걸 어떻게 봤는지 모르겠지만, 애들은 만화로밖에는 볼 수가 없고 어른도 만화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 마음이, 진짜 자기 마음 하나가 다 할 수 없으니까 법신들을 만들고 보살들을 만들어서 똑같은 손오공이 수없이 나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이 봤으니까 이런 말을 할 수 있습니다.

☞ 18면으로 계속

마음으로 곧장 들어가라!



자기 마음의 뿌리, 자기 생명의 근본으로 곧장 들어가는 길을 가리키는 대행큰스님의 법음 法音

제자들과 나눈 진솔한 대화 속에 담긴 선지 禪旨
'삶이 곧 불법'임을 바로 깨치게 하는 우리시대의 참 말씀

우리는 일체의 경계를 둘로 보지 않고 자기의 깊은 내면에 던져버리는 수행이 꼭 필요합니다. 오로지 마음의 용광로에 넣기만 하면 됩니다. 주인공은 뜨거운 용광로입니다. 일체를 다 녹이는 용광로, 그 용광로가 우리의 마음 안에 있습니다.

– 본문 중에서

주문은 마하몰!
02)732-1520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www.mahamall.co.kr

마음을 밝히는 가르침
대행스님 법훈록
그냥 무조건이야

양장본 / 211쪽 / 값 11,000원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6길 36, 606호 현대불교 마하몰

색으로만 쫓아다니다 보면 부처님의 뜻을 하나도 알지 못합니다

☞ 17면에서 계속

그럼 똑같은 손오공이 쭉 만 개가 나갔다고 합시다. 근데 똑같은 손오공이 만 개가 나갔는데 여러분한테 보여 주려니까 똑같은 손오공이 보인 거지, 그건 보이지 않는 데서 바로 불바퀴가 용을 하는 그런 도법입니다.

그러면 그런대로 그렇게 만 개가 나갔으면 용도에 따라서 하나하나가, 부처님께서는 다닐 때 둘씩도 다니지 말라 하셨습니다. 왜? 이 우주 삼천대천세계에 너무도 건질 게 많으니 하나하나 용도에 따라서 나가거라. 그러니 그 용도에 따라서 얼마나 많겠습니까? 우리 여기 앉아 있는 분들만 해도 용도가 참 많은데 그,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니 많은 숫자대로, 숫자가 만이면 만대로 부처가 계시고 손도 천이요, 눈도 천이라고 한 그 말이, 그 천이 천이 아니라 이 우주 공간에 꽉 찼다는 얘깁니다. 있는 대로 말입니다. 그렇게 용도에 따라서 똑같은 손오공이 나갔어도, 용도에 따라서 하나는 이쪽으로 가고 하나는 저쪽으로 가고 하나는 사방으로 꽉 차서 어느 데에 아니 닿는 데가 없이 닿을 수 있었으니 말입니다.

그랬는데도 손오공이 자기 재주만 믿고 어떤 때는 자꾸 일을 저지르는 수가 많이 있으니까 부처님이 나중에는…, 그래도 부처님 손바닥에서 놀았어. 그래서 나중에는, 부처님은 자비하시기 때문에 때에 따라서는 이 줄을 잡고 있던 걸 늦춰 놔, 가고 싶어 하는 대로. 나도 그렇게 실감이 나게 걸었거든요. 그런데 늦춰 놨다가도 자기가 해 볼 거 다 해 보면 그것이 인제 '아, 이게 이런 거구나.' 그러고선 아예 그냥 싫증이 난다고요. 그럴 때 줄을 딱 잡아 젖히는 겁니다. 그래야 되지 '내가 이걸 꼭 해 봐야지.' 하고 하고 싶어 할 때에 이걸 탁 막으면 그건 부작용이 나는 겁니다.

여러분이 생각을 깊이 해 보시면 아실 것입니다마는 세 살 먹은 어린애나 네 살 먹은 어린애나 또는 요렇게 두 살 먹은 어린애, 한 살 먹은 어린애를 만약에 잘못한다고, 울고 그런다고 자꾸 때려 보십시오. 그럼 더 웁니다. 그럼 저만 손해야. 어른만 손해야. 병나고 그러면 더 손해고. 그런데 만약에 어른들도 죄가 있다면 모르는 죄뿐이지,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죄가 있다면 바로 모르는 죄입니다. 허허허….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사람들이 모르니까 어린애로 생각하고 '그 어린애를 때리면 뭘 하나.' 했습니다. 때리면 더 울기나 하지. 이걸 잘 깊이 새겨들으십시오. 그러니까 모른다고 밉다고 그러고 아무 데서나 때리지 않았습니다. 때리지 않고 항상 자기가 어린애로 돼 있었을 때의 과거의 자기라는 걸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자비하시고 얼마나 도량이 크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의 그 뜻을 판단하고 그 뜻을 따르라는 것입니다. 은산철벽이다 뭐다 이러는 것도 그 뜻을 따라야 된다는 얘깁니다. 그 뜻을 따르지 않고 만날 물질로만, 색으로만 본다 한다면, 색으로 쫓아다니다가 볼일 못 보면 부처님의 뜻을 하나도 알지 못해요.

저 스님은 만날 한 말 되하고 한 말 되하고 한다 싶더라도, 천 번을 하더라도 잘 새겨들어 보십시오. 그런다면 진흙, 그 더러운 물에서 아주 예쁜 연꽃이라는 그 향기 내음이 바로 거기에서 나오게 되고, 열쇠도 거기서 나오게 되고, 온 누리에 자기가, 참자기가 온 누리에 꽉 차 있을 수 있고, 자기의 사리가 온 누리 우주에 꽉 찰 수가 있다는 얘깁니다. 사리가 별다른 겁니까? 여러분의 마음의 사리가 온 우주에 다 담겨 있는데, 어떤 사람은 스님이 열반하시면 사리 나올 때를 기다리고 그게 안 나오면 그냥 탈을 잡고 섭섭해하고 온통 무시하고, 이러한 문제들도 좀 음미해 볼 수 있는 생각이 필요합니다.

색만 보고 취하지 마십시다. 우리가 지금 당대의 요 모습을 가지고 얼마나 살겠습니까. 모두가 색을 보고 취한다면 요 모습을 벗을 때 아픔을 견딜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이 공부를 한 분들께서는 죽으려도 맘대로 죽을 수 있고 살려도 맘대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생사윤회에 끄달리지 않고 말입니다. 그리고 사람에 의지해서 나지도 않습니다. 내가 맘대로, 이 즉시에 태어난다 하면 이 즉시에 태어나는 것입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옛날에 어느 나라에 태자 될 아이가 없어서 어느 스님께 빌러 왔는데, 애기를 꼭 줘야만 하겠는데 그냥 줘서 될 일이 아니더랍니다. 왜냐하면 아무 애기나 줘서는 인군이 될 수가 없더랍니다. 그런데 두 스님이 친구였는데 하나가 열반하셔서 그리로 태어나셨다고 하는데, 난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그 스님은 그대로 계시면서 그 스님이 바로 그리로 태어나셨어도 천백 화신입니다. 그리로 태어나셨어도 늘지도 않고 줄지도 않았더라는 얘깁니다. 그 뜻을 아셔야 합니다.

그 스님이 열반하셔서 그리로 태어나셨다는 거는 여러분을 가르치기 위해서 "야, 망건 쓰고 버선 신고 이거, 40년 살기가 참 얼마나 어려우냐." 하는 것을 여러분한테 가르치느라고 방편을 쓰신 겁니다. 사람으로 태어나면 얼마큼 고초가 많고 얼마큼 애로가 많은지를 여러분한테 알려 주고 가르쳐 주기 위해서 방편을 쓰신 거고, 또 모르는 사람한테는 그렇지마는 아는 사람은 그 말을 안 해도 그 뜻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좇아가는 게 아니라 그렇게 말씀하신 그 뜻을 좇아가 보면 뭐가 나오느냐 하면, 아, 천백억화신이라니, 아니, 그 스님이 열로 되면 아니 되나, 만으로 되면 아니 되나? 이 공간에 꽉 찼는데 그 스님이 하나 빠졌다고 줄어들 수 있을까? 그러니 그 스님은 부처이신 거라. 산 부처라. 산 불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 바닷물에서 물 한 그릇 뚝 떠서 줬단 말이야, 목마른 사람한테. 그 식이야. 그러면 그 바닷물이 줄었겠습니까, 늘었겠습니까?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이 물 한 그릇 갖다가 들이부었는데도 아니, 거기 두드러집디까?

이렇게 자재력이 있고 이렇게 광대무변한 이 법을 여러분은 그 도리를 모르고 만화로만 생각하고 그 말귀만 따라서 좇아다니지, 색을 보고 쫓아다니지, 부처님이 돌을 던지고 "저거 뭐냐?" 하면 돌 굴러가는 걸 보고 그 돌을 쫓아갈 겁니다, 아마. 그리고 또 돌이 이렇게 이렇게 됐다 하면 돌인 줄 안다 이겁니다, 응? 벽을 치면 봇장이 울리는 걸 알아야 될 텐데, 종을 울리면 종 울리는 소리만 듣고 그걸 소리라고 하거든. 그걸 듣는 거라. 종 치는 거하고 소리하고 듣는 거야. 그 소리만 좇아다니다가 뭘 합니까? 그 뜻을 좇아야지.

우리가 지금 향 하나 꽂고 향 피우는 것도 바로 법문이요. 여러분은 말을 해야만이 법문으로 듣지 마시고 내가 이것을 하나 들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도, 말을 해도 함이 없고 이걸 들었어도 든 것이 없다 이겁니다. 그러나 이 든 이 자체의 근본이 무엇이냐는 겁니다. 말, 이것이 성품 따라서 어디서 나오는가? 그 뜻을 알아야 된다 이겁니다. 그러면 내 뱃속도 알면…. 예를 들어서 자기 뱃속을 자기가 알아야 내 뱃속도 알 수 있고 또 역대의 부처님 뱃속도 알 수 있고 그 뜻을 알 수 있다 이 소립니다. 이 우주의 섭류의 뜻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맘대로 자유자재할 수 있는 그런 열쇠를, 열쇠 아닌 열쇠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공부하면서 가정에서 어떠한 불화가 일어나도, 내가 항상 당부하는 것은 아무리 속이 상한다 할지라도 가정이 화목 화목 화목, 죽을 때까지 화목, 화목해야 됩니다. 아까 얘기한 거와 같이, 세상에 해 보고 싶은 거 다 해 보고 나니까 모든 게 시들한 거라.

여기에 앉아 계신 어느 분이 그런 분이 있습니다.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아, 재밌게 애들 낳고 잘 살았습니다. 근데 여자를 얻어 가지고는 나가서 영 돌아본 체를 안 합니다. 야, 돈도 다 까불지 그냥, 아주 그냥 매기단을 칩니다. "얘야, 주인공에 맡겨 버리고 가만둬라. 저 하고 싶은 대로 이 줄을 늦춰 줘라, 늦춰 줘. 가는 대로 늦춰 줘라. 이 마음과 마음의 줄은 남편이라는 거하고 아내라는 거하고 줄이 있다. 이 줄을 그냥 늦춰 줘라. 그리고 자비로써 그냥 놔둬라. 여기다 맡기고 놔둬, 그냥." 그랬더니 한참 가다가, 이 줄은 쥐고 있으니까, 여기에 같이 가설이 돼 있으니까, 돌아다니다 돌아다니다가 나중에는 싫증이 났어, 그만. 허허, 고생만 되고.

야, 이거 그냥 버린 것도 아깝고 그냥 싫증이 나 버리니까 그 줄이 인제 슬슬 늦춰진단 말이야, 돌아오느라고. 그러니까 돌아오는 대로 줄이 느근하게 되니까 그냥 그것만, 느근한 대로만 잡아당기는 거라. 아, 그러니까 집으로 쏙 들어왔는데 바짝 쥐었단 말이야. 허허허. 그러니까 너무도 사랑하거든. 가서 경험을 하고 보니까 "야, 세상에 손이 들이굽지 내굽지 않더라. 세상에 다니면서 봐도 너 같은 아내가 없고, 너같이 예쁜 아내가 없고, 마음씨 그렇게 착한 아내가 없더라." 이러고서는 그냥, 그냥 위에다 놓는 거라, 응? 그러니 전자의 애정이, 없던 애정도 솟아 나오는 거라.

이것이 바로 남자든 여자든 우리가 이 주인공에 다, 주인공 줄에다가 모든 것을 놓게 되면 아무리 나쁜 사람도 참 착해져. 그리고 사랑을 받게 돼. 아무리 아들이 나쁘고 도둑질을 하고 그래도 전자의 인연줄로 인해서 그런 거니까 그 인연줄을 녹여 주기 위해서는, 그저 그런 것도 걱정하지 마라. 여기 줄만 쥐고선 그냥 다 놔두면, 그렇게 믿고 놔두면 그냥 저절로 녹아 버리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은 그게 아니야. 줄을 쥐고선 그걸 붙들고 바들바들 뛰니까, 이게 가는 거 그냥 당기고 당기고 하니까 가 보질 못하는 거야. 가서 그냥, 이것을 좀 느긋하게 두면 그냥 갔다가 한번 휘 돌아서 '아, 이런 게 이런 거로구나.' 그러고는 다시는 안 갈 텐데도 불구하고 그걸 가 보고 싶은데 보질 못하게 딱 쥐고서는 늘어지니까 그냥 신경질을 내고 온통 야단이 나는 거죠. 좋아요, 그게? 그러니까 그냥 탁 던져요, 응? (중략)

끝으로 한마디 당부 말씀 해 드릴 거는, 공부하는 사람들이 삼독의 욕심으로, 또는 욕심으로 인해서도 그렇지만 욕심을 버렸다 하더라도 하나하나의 모습으로 우리가 억겁을 거쳐 오면서 살아나오던 그 습이 있습니다. 뱀의 모습이든지 곰의 모습이든지 원숭이의 모습이든지 고양이의 모습이든지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거쳐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잠재해 있던 그 습이 공부를 하려면 그냥 쏟아집니다. 꿈에 나오는 한정 없이 쏟아지는 그 모습들이 누군 줄 아십니까? 여러분이 이 인간이 되기까지 거쳐 나올 때에 살던 그 습입니다. 그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딴 남이라고 생각하고 '꿈에 이런 걸 봤으니 어이구, 내가 언짢지.' 왜 언짢습니까? 예?

우리한테 많은 재산도, 물건 이것도 본래 무면목이라고 했습니다. 모든 걸 깨끗하게 다듬고 분 바르고 이렇게 했어도 이것은 가짜야. 아무리 잘났든 못났든 이건 가짜다 이거야. 그러니 자기라고 하지 말라 이거야. 그러나 자기, 가(假)자기가 있기 때문에 진짜 자기가 있으니 가자기가 모든 거를, 부처님의 뜻을 잡고서 모든 거를 놔라 이거야. 놓되, 여기서는 분명히 놓는다고 하고 가서는, 집에 가선 악을 쓰고 그러는 거예요. 아, 이러니 어떡합니까? 송구스럽단 말입니다. 내가 다 민망스러워.

그러니 여러분이 겁을 거쳐 오면서 살던 그 습에 의해서 속지 마시고, 환상을 보고 속지 마시고, 자기의 모습을 보고 놀라서 속지 마시고, 꿈이 나빠서 안 되느니 되느니 이렇게 속지 마시고, 또 싸움이 일어나더라도 어떠한 문제든지 조용히 좋은 말로, 하다가도 안 되면 딱 멈추고, 말하지 말고 여기다가 맡겨 놓는 그러한 사람이 되신다면 큰소리가 영 없고 화목이 깃들고 복이 들어오고 공덕이 될 것입니다. (중략)

편안하게들 사십시오. 나는 그것을 원합니다. 한 생 이렇게 알뜰하게 관하고 정진하고 살아서, 세세생생을 우리가 보람 있게 참, 부처님의 자리에서 이 세상에 모습을 가지고 태어나지 않으면서도 그 모습들이 다 나 아님이 없이 될 수 있다면, 당당하게 내가 지금 태어나려면 태어나고 죽으려면 죽고 맘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자유권을 가질 때 그 보람이란 정말이지 눈부신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은 이걸로써 끝을 마치겠습니다.

이 공부를 한 분들께서는 죽으려도 맘대로 죽을 수 있고
살려도 맘대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생사윤회에 끄달리지 않고 말입니다.

※위 법문은 1986년 9월 4일 일반법회에서 설법하신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한마음선원 홈페이지(www.hanmaum.org)에서도 같은 내용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전국 주요 서점과 인터넷 서점에서 동시 판매중!

다만 그윽한 마음을 내라

대행 스님 법문의 정수가 담긴
2019년 최고의 결정판!

한마음선원 대행 스님 초창기 법문의
핵심을 모아 한 권으로 엮은 책

삶의 지침이 될 지혜의 가르침들이
내 마음에 꽃이 되어 피어나다!

한마음선원 출판부 엮음 | 양장본 | 총 384면 | 책값 18,000원

현대불교신문사 02)732-1520 무진향 031)470-3118

대한불교조계종 한마음선원



일감 스님의
암각화 기행

깃발 꼬리



어이~ 여러분들~~!
내가 누군지 알겠는가?
잘 모른다고?

멋있는 발톱을 보고도 모른단
말인가?
이빨까지 보여 줄 필요는 없겠지?

꼬리도 멋있잖아~~!
허, 허, 허, 허~~~

까잘만, 싸이말루이 따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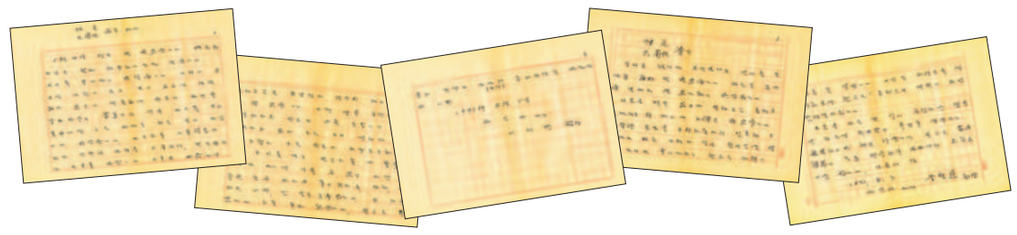
꼬리가 깃발처럼 펄럭거린다. 바람이 뒤에서 불었을까? 좋은 일이 있어서 꼬리 끝을 '다다닥' 흔들다 보니, 꼬리가 깃발이 되었을까? 꼬리를 잘못 그렸는지 유별나게 그렸는지는 모르지만 독특하다. 또 눈에 띄는 것은 이 동물의 발톱이다. 발톱을 길고 무섭게 그렸다. 어지간해서는 저 발톱 앞에 나설 만한 상대가 없을 것만 같다. 그런데 이빨은 드러내지 않았다. 굳이 이빨까지 연출하지 않아도 그 존재감을 보여 주기에 충분했던 모양이다.

이 그림을 새긴 사람은 이 동물과 어떤 깊은 연관이 있었을까? 다른 동물이나 어떤 이야기가 전혀 없다. 화폭에 드러나지 않은 그들만의 이야기가 궁금하다. 앞의 상체는 커 보이고 뒤의 허리는 잘록하게 그려서 더 강하고 날렵해 보인다. 동물이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듯 구도를 잡은 것도 긴장감을 더한다. 한 마리의 동물이지만 여러 가지를 읽어 낼 수 있다. 시간이 없던 탓도 있었지만, 현장에서는 이 그림의 가치를 몰랐고, 이 그림을 해석해 내지 못해서 탁본을 뜨지 않았다. 기회가 다시 온다면, 이 동물 때문에라도 그곳을 또 가야 할 것 같다.



대원성보살의
선지식 '산중서신'
⑰ 지관 스님 3

늘 진지한 삶 살았던 선지식



〈서신 1〉
대원성 양주에게
1월 4일 편지 잘 받았습니다. 성원 처사님도 함께 편안하시리라 믿습니다. 아기를 낳았다하니 반갑습니다. 시작이 있으면 마침이 있고 生이 있으면 死가 있듯이 결혼을 하면 반드시 자식을 낳아야만이 常道(상도)이지 만일 아기를 보지 못한다면 그는 제대로 되는 길이 아닙니다. 반갑습니다. 아무쪼록 二身同志(이신동지)가 되어 단란한 가정을 이룩하며 현모양처가 되도록 바랍니다. 이곳은 如前(여전)하며 일타 스님은 극락전에 편안히 계시며 나도 잘 있습니다. 이젠 옛날 수련대회를 다닐 때와는 각도가 다를 것입니다.
부산 앞바다의 뛰어노는 고기 냄새가 납니다. 그러나 그는 원효나 의상 스님처럼 죽은 고기를 먹고 산 고기를 내놓을 정도가 아니면 먹을 수 없고 다만 가능한 것은 바다의 풀이겠지요. 파래, 진저리, 미역, 김 같은 것 등입니다. 난 서울 갔다가 오늘 돌아왔습니다. 끝으로 두 분의 건강과 꼬마(근영)의 무애성장을 바라면서 이만.
1971. 2. 5. 해인사에서 이지관

〈서신 2〉
대원성 귀하
보내준 편지와 부산의 바다 냄새를 보내준 海物(해물) 잘 받았습니다. 찌는 듯 무더운 날씨에 잘 있다하니 반갑습니다. 이곳은 별일 없으며 일타 스님 종정스님께서도 잘 계시며 小僧(소승)도 잘 있습니다. 재작년 늦가을 구원차 중에서 신혼차 오던 때가 어제와 같은 감이건만 벌써 아이가 둘이라니 참으로 세월이 빠른 것 같습니다. 이런 것 저런 것 생각해보면 부처님의 말씀이 새삼 감명 깊어집니다. 지금은 찌는 듯 무덥지만 며칠만 지나면 찬바람이 올 것을 생각하니 무상하기만 한 것 같습니다. 끝으로 가내제절이 모두 평안하기를 바라면서 오늘은 이만 합니다.
1971. 8. 3. 해인사에서 이지관 회답

〈서신 3〉
대원성에게
23일 편지 잘 받았습니다. 그간 노 처사님을 비롯하여 모두 편안하시길 바랍니다. 난 진주 마산 서울 등지를 돌아 2월 3일에 귀사하여 이제 막 음력설을 쇠었습니다. 이곳은 종정스님은 온천장에, 일타 스님은 조사전에 방장스님 등 모두 편안하십니다. 기유년 묵은해의 360일 동안에 신 구 의로 지었던 3업을 모두 씻어 버리고 깨끗한 身口意로 경술 새해를 맞이하여 한층 더 신심을 일으켜 가정에 행복이 깃들기를 바랍니다. 산다는 것은 성장이 아니고 한 걸음 한 걸음 현생을 감축하는 것. 마음에 번민을 제거함은 감소가 아니고 지혜의 증장인 것입니다.
※특히 노 처사님께 안부 전해주세요. 언제든지 부산 가면 한 번 찾을까 생각하나 촌사람이 찾을 수 있을지? (음력 1월 20일 경, 가부간 고속버스를 한 번 타기 위해서)

스님께서는 범어사 보살계 수계법회 때마다 교수아사리로 오셨고 때때로 우리 집에서 여는 마을 법회 때도 와 주셨다. 그런데 스님께서는 늘 밤기차로 오시곤 했다. 하루는 궁금하여 왜 밤기차로 오시는지 여쭈었더니 낮 시간이 아까워서 잠을 자는 밤 시간을 이용하여 주무시면서 오신다는 것이었다. 나는 그때 그 말씀에서 많은 것을 느끼고 공부했다. 삶을 진정으로 진지하게 사셨던 선지식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선지식의 삶에는 선지식으로 불러야 하는 이유가 있었다.



1980년 범어사 보살계 수계법회 후 지관 스님(중앙)과 연꽃모임회원들 기념촬영.

청동불상 조성업체 대원불교미술원



그 동안 저희 대원불교미술원을 성원해 주신 여러 스님분들께 머리 숙여 감사 드립니다.

그 성원에 조금이나마 보답하기 위하여 저희 대원불교미술원에서는 청동불, 개금, 탁자, 단청, 천불전, 특수불 등 일체를 혼을 담아 조성(제작)하여 저렴하고 합리적인 가격에 조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대원불교미술원에서는 법당 철거 및 정리 일체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수거해 온 물건 및 퇴불은 파불없이 좋은 인연으로 어려운 스님들께 무료로 조성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원장 임영달 올림.

경기도 포천시 내촌면 진목리 565-5 전화 031)532-3722, 533-3722 | H·P 010-7171-2636 | 정성을 다하는 대원불교미술원이 되겠습니다

대한불교조계종
교육원인증 승려연수과정

승려연수과정 수강생 모집

현대인을 위한 생활수행과 포교

일 정 2020년 9월 10일(목) ~ 9월 12일(토), 2박 3일
장 소 **경주 황룡원**〈점심제공〉
(경북 경주시 엑스포로 40 (지번) 신평동 150-8)
문 의 031-470-3196, 010-8779-6926
정 원 50명(선착순)
교 육 비 20만원 (국민은행 292-01-0033-316 (재)한마음선원과학원)
주 관 (재)한마음선원 한마음과학원
웹사이트 http://edu.hansi.org

QR코드를 스캔하시면
모바일 신청도 가능합니다.



법회에서 활용할 수 있는 컨텐츠
▶생활 속에서의 주인공 관법 수행
▶승려의 사회적 역할 확대와 전문성 향상
▶포교현장에서 실질적 활용 방안

1일차 (9월 10일 목)	2일차 (9월 11일 금)	3일차 (9월 12일 토)
마음치유와 수행	생활수행의 원리와 사례	의식에 관한 통찰과 마음공부, 그리고 사찰발전을 위한 실제적 적용방안
현대인의 마음공부	현대인을 위한 포교	
	내 마음의 용광로	

재단법인 한마음선원
한마음과학원

한마음 공생실천과정
나로부터의 시작

제33기 모집

내 앞에 닥치는 일들을 한마음으로 굴려
놓아 원만하게 풀어나가며, 자신의 근본을 탐구하여
자성을 밝혀 나가는 생활 속 참선수행 프로그램

대 상 마음공부를 하고자 하는 분
일 정 2020년 10월 10일(토) ~ 12월 12일(토) 총10주
시 간 매주 토요일 오후 1시 30분 ~ 6시
장 소 한마음과학원 국제회의실(3층)
모집인원 총50명(선착순 모집)
수 강 료 20만원
(국민은행 292-01-0033-316 (재)한마음선원)
신청방법 인터넷 접수 또는 직접 방문 접수
(네이버에서 '함께하는 진화'를 검색)
문 의 031-470-3200, 3201

영혼의 세계 빙의

◉ 영가천도는 이렇게 해야 한다! ◉

■ 영가천도를 행하는 사람이 영화 화면 보듯이 훤하게 영가를 볼 수 있어야 한다!
■ 영가의 생각을 환자의 입으로 영가의 이름, 나이, 성별, 빙의, 년수, 살던곳, 가족인지 아닌지를 확인 할 수 있어야 된다.
■ 영가가 몸에 들어온 이유를 말하게 해야 한다.
■ 영가가 병든 상태인지, 다친상태인지등을 확인하여 치료해줄 수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환자의 병이 낫지 않는다(영가의 병이 사람에게 옮겨온 경우.)
■ 영가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갖고 싶은것, 먹고 싶은것을 물어서 원하는 것을 갖고, 먹게 해주어야 떠난다.
■ 예를들면 소주가 먹고 싶은데 맥주를 주면 영가가 토라져서 천도가 되지 않는다. (환자의 입으로 말한다.)
■ 영가가 알아듣기 쉬운말로 설득을 해야 한다. 어려운 경문을 외우면 영가는 알아듣지 못한다. (살아있는 사람도 어렵게 얘기하면 못 알아듣는다.)
■ 환자의 입을 통해 영가가 떠난다고 말하고 빛을 타고가는 것이 환자가 볼 수 있어야 된다. (빛은 영가가 천상으로 가는 길이다.)
■ 조상영만 천도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영가를 확인해보면 조상령 보다도 타 영가가 훨씬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조상영가,전생영가로 인해 잡귀가 들어온다.)
■ **영가 천도제를 하고 나면 곧바로 병이 호전되어야 한다.**
■ '비만'같으면 그 자리에서 살이 빠지는 것이 확인 되어야 하고 육체적인 증상이 곧바로 개선 되어야 한다.
■ 먹는 음식이 절제가 되지않고 살이 찌시는 분.

불임, 자연유산, 우울증, 심장발작, 조울증, 강박증세, 신들림, 불면증, 악몽, 가위눌림, 현대의학으로 진단이 안나는 병, 몸에서 기운이 빠져나가는 병, 근육이 풀어지며 통증으로 고통 받는 분, 몸이 굳어지며 감각이 없는 분, 병원 등을 수 군데 찾아다니고도 못고친 병으로 고생하는 분.

❖ 스님(수행하시는 모든분)오래된 고질병으로 고생하시는분. ❖ ❖ 영가를 확인하면 어마어마한 사실을 알게된다. ❖

풍수에 관한 모든 것 상담 가능 **천광수련원 TEL 043) 905-8275** (충북 보은군 내북면 봉황리 223번지)

한국불교 대표방송 BTN

2020 정기개편

법안스님의
기도



방송시간
목 08:30, 16:00
토 13:30

BTN붓다회 동참문의 1855-0108 | olleh 233번 | tv 305번 | U+TV 275번 | skylife 181번 지역 케이블 문의 : 02)3270-3300